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2월 2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63 호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저를 필요로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립의료원 515호에 입원하고 있는 말기환자 김씨는 아침마다 자신의 용변을 받아내고 침대를 깨끗이 청소해 주는 이청자씨(56 · 법명 보현경)를 볼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거듭거듭 한다. 김씨는 자신과 같은 환자들의 수발을 7년째 들고 있는 자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원봉사자 이씨를 만나게 되면서 세상엔 아름다운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과 살아있음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어디 불편하신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식사도 많이 하시고요."

이청자씨는 생면부지의 사람들, 그것도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에 진물이 배어나 살갗이 썩어들어 가는 환자들의 어머니가 되어 수발을 든다. 그 뿐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각 층의 병실을 돌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들의 용변을



받아내고, 밥을 떠 먹여주는등 손발이 되고 있다. 국립의료원 법당에서 기도하는 1시간을 빼고나면 하루 6시간을 쉴새없이 '보살'의 삶을 살아간다.

이씨의 작지만 따뜻한 마음 씀씀이는 외로운 이웃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국립의료원 법당 폐쇄를 막아냈고 법당 부처님 점안식(1월18일)을 가졌다. 또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발생한 훼불사건과 종교편향 시정을 위해 앞장섰었다. 불교에 입문하고 10여년을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온 것이 못내 부끄러워 이웃을 돌보는 일에 나선 이청자씨의 또다른 실천행이었다.

새벽 4시면 부인을 좇아 함께 예불을 드리는 남편 강노식씨(61)와 두 딸은 그의 든든한 후원자다. 너나할 것 없이 일손을 덜어 주는 가족들 덕분에 오늘도 이씨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나선다.

소리내지 않고 묵묵히 불자된 도리와 자세를 그려내고 있는 이씨의 모습에서 환자들은 용기를 얻고, 가슴 벅찬 기쁨을 느낀다.

〈도필선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조계종 갈라서는가 선학원

조계종, 재산환수 · 스님자격 정지등 결별수순
선학원도 대응책모색…"한뿌리 잊지말라" 여론

조계종과 선학원의 결별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계종은 선학원 재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소속 스님들에 대한 각종 규제, 선학원 설립시 출연된 조계종의 재산환수 등을 내용으로하는 '선학원 정리방침'을 세웠다. 조계종의 이같은 방침은 17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 보고되며 공개됐다.

같은날 선학원은 재단이사회를 열고 96년 재단 내부규정 10조 2항에 신설했던 '재단의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로써 조계종과 선학원이 96년 8월 27일 도출했던 합의사항은 사실상 무산 됐으며 조계종과 선학원은 '결별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은 18일 '선학원 분원장스님들께 알립니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종단과 선학원의 대화와 협상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있어 종단은 불가피하게 종헌종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선학원 소속 승려의 △각종 종무직 취임불가 △조계종의 승려 자격정지 △교육기회 제한 등 3가지 규제사항을 통보했다. 조계종은 또 성명에서 "만약 조계종 소속으로 남으려는 분원장 스님이 개별적으로 종단에 등록한다면 인사와 재정 전반에 걸쳐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혔다.

이와관련 선학원측은 "재단이사회는 분원장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종단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학원의 한 관계자는 "종단의 선학원 재단 임원에 대한 징계와 재단 설립시의 재산환수는 법적으로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며 종단의 조치에 상당한 불만을 표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문제는 "각자의 갈 길로 간다"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지만 "조계종과 선학원이 한 뿌리라는 점을 감안,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화합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교계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임연태 기자〉



◇국민회의 연등회와 자민련불자회는 20일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가졌다.

"종교중립 지키는 정부"

金차기대통령, 국민화합 기원법회서 약속

국민회의 연등회와 자민련불자회가 마련한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법회'가 20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백양사방장 서옹스님과 김대중 차기대통령 등 교계와 정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김차기대통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경제난국을 극복하자"며 "종교문제에 대해 엄정 중립을 지키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연등회 박상규회장은 "올해 연등회는 전국사찰순회법회를 열어 국난 극복을 위한 불심 다지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를 예수부대로 만들겠다"
전도봉 해병사령관 발언 '파문'

해병대 사령관의 "해병대를 예수님의 부대로 만들겠다"는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열린 (가칭)종교편향대책위원회 준비를 위한 불교단체 실무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교계단체 실무자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도봉 해병대사령관이 16일 오후2시 해병2사단 교회 신축기공식에 참석, '해병대를 예수님의 부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교계 10개 단체 종교편향대책위 준비위와 조계종 포교원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전 사령관의 발언이 사실이면 공식사과와 퇴진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 사령관의 문제의 발언과 관련 해병대사령부 비서실은 "이날 행사가 순수한 교회행사였으므로 전 사령관이 성경구절을 인용, 군복음화의 일환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요지의 말을 했으나 '해병대를 예수님의 부대로 만들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독실한 개신교신자인 전 사령관은 이에 앞서도 지난해 가을 경 해병 2사단장에 지시, 각 중대당 2명씩 70여명의 사병을 차출해 서울 강남의 모교회에서 개최하는 성령수련회(부흥회)에 참석토록 하는 등 종교편향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종교편향 대책위 3월 발족

전불련 실천승가회 평불협 등 10개단체 참가

(가칭)종교편향대책위원회가 상설기구로 구성된다. 교계 10개 단체 실무자들은 18일 조계종포교원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3월중 대책위를 발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책위 활동목표를 △종교편향 예방과 홍보 △훼불·편향사례 접수 △문제해결과 방지대책 마련하는 한편 자비의전화에 고발전화(국번미정 8400번)를 개설키로 했다.

대책위 참가단체는 전국불교운동연합 실천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 자비의전화 보리방송모니터회 평불협 우리는 선우 군불교진흥회 등이다.

한편 대책위에 포교원이 실무자를 파견해 결합하며, 포교원에서 재정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국난극복과 미래자손을 위한 회향

디지털 대장경을 만듭시다

우리의 선조들은 외적의 침입을 맞아 구국의 일념으로 팔만대장경을 판각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보인 팔만대장경을 후손들에게 영구히 보존, 계승하고 정보화사회에 맞추어 대장경을 전산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영광스런 사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고려대장경연구소가 팔만대장경에 새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펼치고 있는 '국난극복과 미래 자손을 위한 회향, 21세기 디지털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적극 후원키로 했습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국난극복의 뜻을 되새겨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업적을 온세상에 펼치자는 취지의 이 사업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바랍니다.

◇기 간: 2월25일~12월 31일
◇참여방법: 위 기간 동안 전국 사찰순례 후원법회와 '후원인의 밤' 등을 통한 후원인 모집
◇98년사업: 고려워드 및 고려폰트, 자동교정 프로그램 개발
◇참여문의: 사단법인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전화 (02)797-0585
http://www.members.iworld.net/~hederein
◇주 최: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후 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관광부,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 체험기행

온 대지가 새롭게 깨어나는 봄의 길목 3월.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 진종선사의 오도현장이며 신라불교의 초전지인 선산 모례원 · 도리사, 용성스님 유물전이 열리는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대각사를 찾아 스님의 대각교 운동과 독립정신을 기립니다. 3 · 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을 했으며, 한문불경 번역과 찬불가 작곡 등 대중포교에 앞장섰던 용성스님의 가르침과 업적을 현장에서 새겨보세요. 이날 대각회에서는 참가자에게 용성스님의 대표저서 〈각해일륜〉을 법공양 합니다.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발자취

독립기념관 모례원 도리사 서울대각사

◇출 발: 3월 15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5천원(점심제공 · '각해일륜' 법공양)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교계 무료급식소 '노인행렬' 23면
'二本 한글화엄경' 나왔다 8면

"내 마음에 부처님을 모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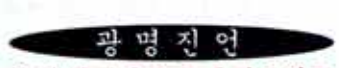
부처님 '조성'과 '개금' 및 '광명진언' 사경불사 동참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福福이 늘 상 충만하도록 부처님전에 촛사르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로지 부처님 일이라는 一念으로 佛事에 임해 왔지만 智慧와 福이 엷고 모든 신도님들의 금전적 부담이 되는것 같아 시절인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국난이 있을때나 자신의 소원을 기원할때 부처님 혹은 탑전 또는 眞言을 사경하는 佛事를 봉행하여 업장소멸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였습니다. 이때에 부처님의 가피와 우리의 부처님 조성불사 원력으로 크고 작은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더불어 IMF시대의 터널에서 헤어 날 수 있도록 부처님 조성 불사와 사경기도에 적극 同參하시어 平生에 한번 만나기 어려운 뜻깊은 인연맺어 금생은 물로 世世生生 無量功德 지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봉영사
주지 철 안 합장

광 명 진 언



옴아모가바이로자나마하무드라마니피드마조바라프라바르타야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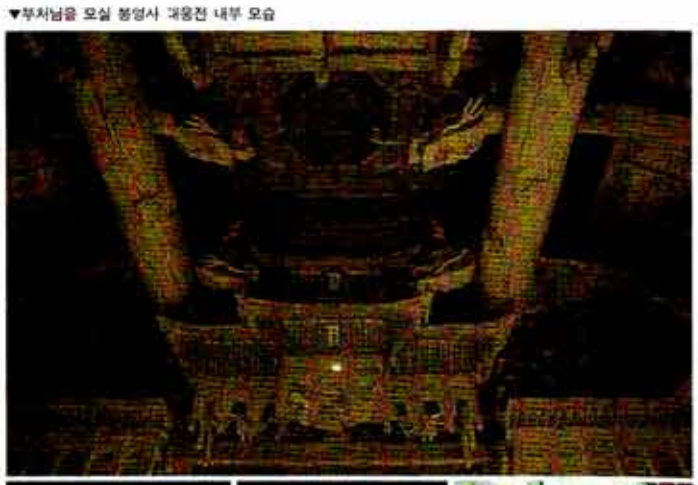
진언이란 무엇인가?

진언(眞言)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인 만트라(mantra)라는 어원입니다. 또는 불가사의한 영험력과 가르침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란 뜻으로 '신주(神呪)', '총지(總持)'라고도 합니다. 眞言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功德)과 능력(能力)이 함축되어 있는 신비(神秘)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眞言을 외우면 온갖 재난을 극복하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면 世世生生 자비심과 남의 功德을 기뻐하는 모든 중생(衆生)을 평등(平等)하게 여기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진언을 외우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眞言속에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명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眞言을 외우면 염불(念佛)이나 예불(禮佛)을 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게 되어 자연히 업장(業障)을 소멸할 수 있으며 世世生生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을 뵙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을 모실 봉영사 대웅전 내부 모습









▲주지스님께서 직접 포크레인으로 주춧돌을 놓고 계시다

진언을 지송하는 법

眞言을 언제 어디서나 지니고 외울 수 있습니다. 法堂에서뿐만 아니라 걸어다닐 때에나 누워 있을 때에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뿐만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眞言을 지송하려면 날짜를 정하여 3일, 7일 혹은 21일 또는 000일을 정하여 청정하게 목욕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향을 피우고 일심(一心)정성으로 呪文을 지송해야 합니다.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해야 한다.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하지 못하여 번뇌가 가득찬 채 악업(惡業)을 지으면서 眞言을 외우면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또 眞言의 功德을 불신하면서 외우면 효험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온 마음을 집중하여 외워야 합니다.

본인이 일자일배 쓴 다음 부처님 복장에 영원히 모십니다.

사대부중(남자스님, 여스님, 남신도, 여신도)이 관명진언 일자일배를 하며 기도한 다음 본인이 사경하여 부처님 복장에 영원히 모시는 불사입니다.

동참하시는 방법

● **부처님 조성 및 개금불사** 각자의 信心과 형편 또는 개인의 원력에 따라 자유로이 동참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 **사경기도** 이는 나라에 어려운 일(해인사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이 있었거나 개인의 업장소멸, 병고퇴치, 사업성취, 수명증장, 기타 중생구제의 큰 원력을 세웠을 때 쓰시게 되며 우리 봉영사는 수백 수천년전에 선조들께서 하셨던 방법대로 경면주사를 어렵게 구해 사대부중이 날짜와 시간을(3日, 7日, 21日 혹은 000日)임의로 정하여 한자쓰고 한번 절하는(一字一拜) 방식으로 올해 동지날까지 써오시는 분들에 한해 부처님 복장에 넣어 드립니다.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분께 양식과 붓, 경면주사를 드리오니 친지나 먼 이웃에게도 一生에 한번 인연맺기 어려운 佛事에 좋은 功德 지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男女老少 누구나 本人이 직접 쓰셔야 합니다.

● **사경기도 동참금** : 20세 미만 아이는 1일 500원(동짓날까지 기준) 어른은 1일 1000원이상 本人의 信心에 따라서 내시면 됩니다.

부처님 '조성' '개금' 및 '사경불사'에 관한 안내 : 전화 (0346)571-0555~7번
온라인 : 농협 580-02-000095 예금주 : 대웅전 건립회
대한불교 조계종 천년고찰 봉영사 대웅전 건립회

사 설

'국민의 정부' 기대

25일 취임하는 김대중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대단하다. 국민의 뜻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꿈을 실현했고 오랜 정치경륜을 쌓아온 준비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부터 지금까지 두달이 넘도록 무엇을 했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불을 끄는 데 정신없이 뛰어 다녔다.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지난 5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김영삼정권이 쌓은 업보를 물려받을 준비를 했다. 이제 새 대통령이 되었지만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대란을 극복해야 한다. 세계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정(失政)을 거듭한 김영삼정권의 무능과 부패의 유산을 청산할 과제가 급선무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이 어려운 국난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그가 앞으로 5년간 국정의 기본방향과 운영지침으로 삼을 100대 과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명의로 발표되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당면한 경제위기극복이 새정권의 제1차적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울러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나라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현실극복이 우선이다. 그러나 심호흡을 하고 앞을 조금 멀리 내다보면 밝은 미래가 있다.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이 넘치는 국가지도력을 강력히 발휘하기 바란다. 취임하는 날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갈망한다.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퇴임 후에도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역대 정권에 의해 조장된 지역갈등, 노사갈등, 종교갈등 등의 매듭을 풀고 화합과 화해의 새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속에서 우리는 김대중대통령의 향후 종교·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특정종교 편향정책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지난 5년동안 김영삼정권이 저지른 과오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정종교의 편을 들거나 불교를 비하, 탄압하는 정책이었다. 취임직후에 있었던 국방부예배사건부터 시작해 교과서 왜곡사건 등 각종 불교탄압정책으로 불교계와 많은 갈등대립을 겪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이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유산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일이다. 과거정권이 서양문화 우대와 개발우선 정책으로 민족문화가 파괴되고 말살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아 왔다. 이는 사회전반의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국론분열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불교문화재를 비롯하여 우리 문화유산이 잘 지켜질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전통문화재의 보수,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각종 불교관계악법의 개폐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공원관계법령에 의해 문제되었던 국립공원입장료의 폐지는 대통령선거공약사항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방침을 확인한 바와 같이 곧바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등 지금까지 불교계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늘 귀를 열어 놓고 민심을 읽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이끌어 가길 김대중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충심으로 바란다.

해인사 인근지방도 착공 연기

부산 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 부실 인정
조계종·환경단체·주민등 '백지화' 요구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3월 착공예정이었던 해인사 인근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가야~봉산간) 2차로 개설공사가 당분간 연기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일 "18일 가야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기존의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부실 부분을 보완한 뒤 다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관리청의 한 관계자는 또 "차제에 사업내용의 수정 변경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59호선 도로 개설의 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백지화 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해인사 신부락과 마장동을 거쳐 봉산으로 이어지는 59호선 도로는 2003년까지 4백억원을 들여 총연장 12.9㎞ 노폭 11m 터널 1개를 포함하는 왕복 차선 도로로 개설될 예정. 이 지역은 국립공원 가야산을 가로지르며 해인사와 인접해 있어 자연환경 훼손과 수행환경권 침해가 우려돼왔다. 이와관련 18일열린 주민공청회에서 해인총림대책위(우원장 고봉)는 "국립공원안에 1㎞가 넘는 터널을 뚫어 가야산의 정기를 끊고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도로건설 철회 △가야산 국립공원 보존대책 수립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도 17일 59호선 지방도 개설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 공사 계획의 즉각 철회와 반환경적 환경영향평가의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불교계와 지역 환경단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계회사(동신개발)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59호선 도로 개설과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의 부실이 집중 토의됐다.

공술인 자격으로 참가한 이영경교수(동국대 조경학과)는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기간이 짧고 팔만대장경 보존에 미치는 온습도 변화등 공사후 예측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누락됐다"며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와 현장사진 보완등을 포함,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원교수(계명대생물학과)도 "10월 중순과 하순에만 실시된 현장조사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특성으로 볼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4계절에 걸친 평가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환경연합 문창식 사무국장은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일반 시민이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도로 개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지방도 건설철회 촉구
교구본사 주지모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설조)은 18일 해인사에서 월례 모임을 갖고 지방도로 59호선 건설의 철회, 종단의 사미 사미니 의제 제도 정착과 기초 교육기관의 정원제 엄수 등을 촉구했다.



◇해인사 인근 지방도로 59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교계와 환경단체들은 18일 가야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사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조계종 올 예산 10% 감축운영
본사주지회의서 밝혀

조계종은 17일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금년 종단 예산을 10%절감 운용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 종무계획을 밝히며 "종무원의 임금과 일반 업무추진비, 사업비 보조금등 전반에 걸친 10% 절감 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IMF 상황에 따른 사찰의 영향정도는 봉축행사 이후 실태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무원은 회의에서 금년도 봉축행사 계획과 선학원 대책문제, 경제살리기 동참 방안, 사찰환경 포럼 안내, 사미(니) 위계확립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계종 '본·말사 포교규정' 재추진
전국사찰 포살법회·신도교육 정례화

"사문화 우려" 시각도

사찰의 포교의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본·말사 포교규정 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17일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회의에서 '본사 포교규정(안)'과 '사찰 포교규정(안)'을 제출, 논의했다.

포교원이 제출한 규정(안)에 따르면, 본사의 경우 △포교시설의 설치와 활동 △청소년 육성 및 인재양성 △군포교 및 재소자 교화 △포교요원에 대한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포교국장의 신분보장도 의무화했다.

또 본사예산의 10% 이상을 포교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며, 포교예산을 △포교국장, 상임포교사의 보시 및 활동비 △포교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교구 포교활동 지원비 △포교 신행조직 운영 지원비로 명시하고 △포교예산의 타용도 전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찰 포교규정(안)'에는 모든 사찰의 신도교육 및 포살법회의 정기적 실시, 포교실적을 주지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포교원은 규정(안)을 총무원 기획실과 논의한 후 종무회의에 상정, 규정으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규정은 종령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96년에도 본·말사 포교규정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유야무야됐던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제정은 불투명하다. 규정의 제정보다 포교법의 개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포교국장은 "포교에 관심없는 본사의 경우는 포교예산 책정도 없는 현실에서 규정으로 10% 이상 포교예산을 책정한다고 해서 현실성이 있겠느냐"며 규정을 제정하더라도 사문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문화관광부로 변경
정부, 문체부 조직 개편

17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체육부가 문화광광부로 새 문패를 달게된다. 해외공보 신문·잡지 및 방송업무를 이관받은 문화관광부는 국립극장, 지방박물관 등을 민간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한다. 조직체계는 1차관보 2실6국 1외국으로 조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2천4백18명에서 6백96명이 감소된 1천9백22명으로 인력도 감축됐다.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개설
교계 처음…간병인등 유료봉사 활성화될듯

불자연도 개소 준비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불자들의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을 도와주는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소장 강태운·인터뷰 4면)를 개설했다. 지난 9일 서울시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은 연꽃마을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개소식을 갖고 무료 취업알선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무료직업소 개소 개설은 불교 유료간병활동의 공신력을 갖게 하는 등 구인구직자간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게돼 불자인력의 활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료직업소개소는 기독교에선 이미 80여개의 소개소를 운영, 기독교간병활동 등 유료봉사활동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민간직업소개소는 유료 1천4백56개소, 무료는 82개소로 알려지고 있으며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 등 복지단체들도 개소를 서두르고 있다.

연꽃마을은 직업소개소를 매년 4~5회 실시해 오고 있는 주부 및 중·고령자 취업대비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다양한 취업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구인구직정보를 컴퓨터통신망을 구축, 충분한 인력정보를 확보해 불교계의 대표적인 무료직업소개소로 활성화 시켜 나갈 방침이다. (02)363-7884

고침 162호 3면 서옹스님 법어중 '徹'는 '微'로, '박'은 '귀'로, 원담스님 법어중 '坡'는 '彼'로 바로잡습니다.

"지방박물관 지자체 이관반대"
고고학회등 13개단체 성명…"관리부실 불보듯"

18일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발표한 문화체육부의 문화관광부 개편안 중 '국립지방박물관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는 방안에 대한 반대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고고학회(회장 김종철), 한국선사고고학회(회장 임효재), 한국박물관협회(회장 허동화) 등 13개 관련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국립지방박물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은 각 지방박물관 사이의 유기적인 유물관리체계의 붕괴를 초래, 지방문화재 보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물관 관련사업이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현안사업에 밀려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에 비춰볼 때 박물관 운영이 불능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박물관 관계자도 "현행법상 출토된 모든 문화재는 국고로 귀속되며, 그 관리는 국립박물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방박물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 그곳의 유물들을 모두 중앙박물관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각 지방박물관은 상설전시 운영이 불가능해지며 중앙박물관은 유물보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사람잡는 해병

고령산 도솔암 중창불사 권선문



주지 성조

존경하옵는 불자님께!

소승은 작년 3월 조계종 25교구 말사인 도솔암으로 주지 임명받아 수행 정진중입니다.

불조의 혜명을 이어온지 어언 30여년, 이제 이 도솔암에서 마지막 수행정진을 발원하였습니다.

파주 고령산 도솔암은 드러나지 않은 명찰 기도도량으로 300여년동안 많은 선사들의 수행정진 내력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찌기 백용성 조사께서 19세에 전도하시고 혜능선사를 스승으로 서원한 도량이며, 6.25전란 이후에는 도형선사께서 정진하시며 중창불사를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그후로 영험있는 산신기도도량으로 많은 불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고찰인 관계로 쇄락해 감을 어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수도생활기간을 두고 도솔암 가람중창 중흥불사를 생애 마지막 기회로 알고 불조의 높고 높은 뜻을 받들어 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불사를 계획하며 불자님들의 무루 동참을 기원하오니 어려움을 극복하는 복덕 자비 지혜를 심는 계기가 되어 만대의 복전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2년 무인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고령산 도솔암** 住持 景性昭(성조) 합장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2리 山 50의 4 전화: 0348-942-7703 / 호출: 015-345-5158

● 1차 불사 개요 ●

요사채 1동 - 해체중창불사

대들보	600만원	서까래	30만원
상량대	400만원	(지난창고에 (만원으로 찰옷 기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둥	150만원	기와10개	7만원
주춧돌	100만원	기타	1만원

■온 라인 번호 우체국 011742-0101242 (예금주:경현용)
농 협 021-02-261275 (예금주:경현용)
▶ 분할 입금 가능!

법 회 안 내

● 정기법회안내
- 음 1月 1日부터 보름까지 : 천초불공
- 음 1月 8日 : 입춘불공 - 음 3月16日 : 고령산 국산재
- 음 4月 8日 : 부처님 오신날
(장엄등(1년) 5만원, 입일등(당일) 2만원, 삼성각·인등(1년) 6만원)
- 음 7月 7日 : 칠월칠석불공 - 음 7月15日 : 백중천도재일
- 음 10月15日 : 고령산 국산재

● 매월법회안내
- 음 매월 초하루 : 인등관음법회
- 음 매월 보 름 : 산신기도법회
- 음 매월 18일 : 지장재일(참회기도)

결국 '중징계' 선언…파장 클 듯

조계종-선학원 문제발생 20년

'선학원 문제'를 더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조계종의 입장과 법인을 종단 산하의 기구로 둘 수 없다는 선학원측의 입장이 결국 '결별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조계종이 선학원의 일부 임원에 대한 징계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띤다. 아직 징계 대상과 범위는 거론되지 않지만 현재 선학원의 임원(16명)들 대부분은 "징계를 하면 당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이는 종단의 징계를 이유로 재단을 떠나거나 정관개정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선학원 재단 설립시(1934년) 조계종 스님들이 출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의 문제는 조계종이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인에 등록된 재산의 환수는 민법상(32조 43조 등)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계종의 재산환수 문제는 출연재산의 파악과 법적 절차등을 감안 '장기적 고려'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선학원의 한 임원은 "발상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 선학원 중앙선원.

3월에 열리는 제14차 행자교육원에 선학원 소속 행자의 입방을 거부한 조계종은 가을 단일계단에도 선학원 소속 사미(니)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종립대등의 각종 장학혜택도 규제할 방침이다. 이는 종단이 선학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규제조치다. 때문에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선학원은 도제교육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상황. 선학원의 한 임원스님은 "종단과의 문제가 악화될 경우 선학원의 자체적인 교육기관과 수계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분종 내지 선학원의 별도 종단 창종이라는 극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어서 선학원이 이미 결별의 각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게한다.

조계종 선학원 문제의 발단은 멀게는 78년 선학원이 정관 제6조를 '임원의 자격'을 조계종 승려에서 분원장으로 고친데서 찾을 수 있다. 조계종은 95년 4월 중앙종회 선학원대책특위는 선학원 정관에 대한불교 조계종' 명칭 사용,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봉대' 내용 삽입, 임원선출시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추천 등 3개항을 선학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선학원은 90%의 분원장들이 정관개정에 반대의사를 보여 종단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조계종이 요구하는 '임원 선출시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추천' 부분은 선학원에 대한 인사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선학원의 강한 반발을 산 부분이기도 하다. 조계종은 '사설사암 등록및 관리법'을 통해 사설사암에 대한 재산상 인사상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으나 선학원 소속 분원장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정관개정 불응의 요인으로 꼽힌다.

조계종은 종단으로 돌아 올 스님들이 상당수 있다고 분석하고 홍보를 강화할 생각이다. 그러나 선학원측은 냉담한 반응이다. 그간의 분원장회의에서 보여준 결속력과 분원장들이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스스로 재단에 등록했다는 점 때문이다. 또 이미 재단에 출연된 재산은 사적인 이유로 회수해 갈 수 없다는 현행법도 분원장들이 선학원을 쉽게 떠나지 못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대해 조계종은 "재산적 보호가 확실한데 왜 정관개정을 않느냐"고 묻고 있다.

조계종은 3월 종회에서 총무원법을 개정, 조계종 관련법인의 법인등록을 의무화하는 시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계종이 19일 밝힌 성명대로라면 선학원 소속 승려에 대한 종무직 취임 불가와 조계종 승려자격 정지 부분에 따라 원로스님들의 조계종 원로직도 취소돼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조계종은 원로스님들에 대한 발언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선학원과 조계종이 결별 수순을 밟아 급기야 '딴 살림'으로 갈라설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통 선 수행의 기치를 내세워 항일의 폿대를 세웠다는 점에서 청정성과 역사성을 인정 받아 온 선학원의 이미지가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될 것이란 지적이다. 재산보호라는 현실 문제로 종단과 결별하는 모습이 곱게 비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계종 역시 상처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종단의 모체로 인식되어 온 선학원을 떼어 낸다는 것과 상당수의 소속 승려를 잃는다는 것 역시 종단 이미지 제고에 적잖은 상실이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법인재산 안전…종지 봉대하라"

선학원 "간섭싫다…정관 개정은 불가능"

조계종-선학원 문제일지

△1978. 2. 23 임원의 자격을 조계종 승려에서 분원장으로 변경
△85. 11. 22 제84회 중앙종회-총무원에 선학원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 파악 요구
△86. 3. 28 제85회 중앙종회-선학원정관 개정 요구
△87. 7. 7 제89회 중앙종회-불교관계법 특위 선학원문제 다루기로 결의
△88. 3. 28 제109회 중앙종회-선학원대책 특위 구성
△94. 11. 28 제114회 중앙종회 '선학원대책특위' 구성
△95. 1. 24 특위-선학원 연석회의 개최-최초 종단요구안 전달(5개항)
△95. 2. 22 선학원-'정관변경 불가' 통보
△95. 4. 15 '선학원 관계정립을 위한 수정안' 전달
△95. 6. 23 중앙종회 선학원특위 해체-총무원 이관
△95. 7 선학원 도제 교육기회 제한
△95. 9. 28 제118회 중앙종회 법인대책특위 구성과 법인 임원 징계 결의
△95. 10. 5 선학원이사회-정관개정 불가 재천명
△95. 11. 8 선학원 전국분원장회의(경주)-독자노선표방 결의
△95. 12. 18 종단주최 '전국분원장초청간담회' 개최-법인대책특위 요구에 대한 동의 요청
△96. 3. 27 제120회 중앙종회-조계종산하 법인대책특위 선학원 이사 징계 결의
△96. 6. 18 제121회 중앙종회-조계종산하 법인대책특위 징계촉구 결의
△96. 8. 27 종단-선학원 공동발표문
△96. 11. 1 제123회 중앙종회 조계종-선학원 실무위원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97. 7. 9 제1차 조계종-선학원 실무협의회
△97. 8. 13 제2차 조계종-선학원 실무협의회
△97. 11. 4 총무원-'종헌과 중앙종회 결의에 의거 처리한다'는 요지 공문 발송
△97. 11. 18 총무원-선학원에 대한 종단 지침을 교구본사, 선원, 강원, 교육원에 통보
△97. 12월초 선학원-종단방침 수용 거부 입장 천명(이사회, 분원장회의)

교계반응

"분열상 보이지 않도록 출가정신으로 대화를"

IMF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교계가 재산의 보호를 골간으로 하는 분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불교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조계종과 선학원측의 명분이 어떤 것이건 사회에서는 '재산싸움'의 선상에서 이 문제를 볼 것이란 점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재판을 우려 "부처님 법 안에 사는 불제자들이 사회법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거나 물질적 이익 때문에 부처님 법의 정신을 퇴색 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양측이 결별의 수순을 밟으면 결국 법적 시비가 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삼보정재의 손실도 자명한 것이라며 승가의 기본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사회적 변화속에서 더이상 불교계의 분열상을 보이지 않도록 대승적 입장을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궁금합니다

분원장 90% 조계종 소속 석주·정일·범행스님 등도

- 선학원 소속 스님중 조계종 스님은?

▲선학원의 전체 분원수는 5백50여개 이중 90%에 해당하는 4백95개 사찰의 분원장이 조계종 소속스님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원장들의 도제와 은사등 권속을 합하면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 석주, 진제, 정일, 범행스님 등 원로들도 다수.

- 선학원 정관개정 절차는?

▲선학원 정관 33조는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때는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선학원 설립시 스님들의 재산 출연 현황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조계종은 1934년 설립당시 만공 경산 성월스님등이 수덕사 대승사 직지사 범어사등의 전답을 선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당시지가는 8만2천9백70원45전.

수요 인터뷰



용성스님(1864~1940)은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앞장선 선사일 뿐 아니라 일제치하에서 한국불교 중흥과 독립운동을 선도한 민족대표 33인중 한 분이다. 만해스님과 더불어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용성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을 만났다.

'용성스님의 달' 행사 준비 도문 스님

"대각교운동 다시 전개"

- 행사는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는지요

▲우선 3월 1일 그 탑골공원에서 용성스님추모법회를 갖습니다. 또 스님의 유물유품전이 3월 한달동안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관련기사 7면〉되며 영가천도법회와 유허비제막식도 봉행됩니다. 스님의 사상과 근 현대 불교사를 연구하기 위한 대각사상연구원이 개원되고 세미나도 개최됩니다.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국립극장에서는 박범훈교수가 창작한 국악교성곡 '용성'의 음악제도 열립니다.

- 이번 행사들을 계기로 만해스님에 비해 잘 안 알려졌던 용성스님이 어떠한 분인지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질 것 같습니다. 스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요.

▲스님은 16세때 해인사에서 출가하여 오로지 견성성불을 위해 일로매진하여 23세때 모례원에서 첫번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40세까지 20여년간 전국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수행정진하시다가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자 본격적으로 대각교운동을 펼치시는 등 중생구제에 나섰습니다. 대각교운동이란 "내가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자"는 자각각타운동입니다.

- 스님은 현대 찬불가의 선구자로도 밝혀졌지요.

▲그렇습니다. 스님은 늘 중생구제와 민족독립의 역량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를 고심했고 그것은 불교를 대중화시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구제하자는 원력으로 귀결되었지요. 최초로 찬불가를 작사 작곡하신 일은 물론 우리말불교의식, 선농(禪農)일치운동, 불경의 한글화 작업 등은 모두 경제적 자립과 함께 문화·정신적 자립으로 일제치하를 벗어나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려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 스님께서는 용성스님이 남기신 10대 유훈을 실천하시기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스님께서는 1940년 음력 2월 24일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상좌인 동헌스님(도문스님 은사)을 부르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고는 "49재 지나고 조용히 풀어봐라"하셨습니다. 49재가 지나 풀어보니 10조목의 유훈이 써 있었지요.

가야 신라 등 불교초전법륜성지와 신라고도 성지 남산과 낭산, 부처님 5대성지를 가꾸고 불경 1백만권 발간유포, 1백만명 수계 불자화 등 포교·교화를 많이 하라는 내용입니다.

미력하나마 스님의 유훈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으니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인 듯 싶습니다.

-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큰 스님의 법력이 그리워지는데요. 용성스님의 뜻을 오늘날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요.

▲스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그것이 불교중흥 민족중흥, 나아가 인류중흥으로 이어집니다. 스님은 '심처존불 이사불공(心處存佛 理事佛供)'을 말씀하셨지요. 즉 마음가는 곳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모든 일을 불공처럼 정성으로 하라는 뜻이지요. 참선주력, 간경 염불 등 수행과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삼보에 귀의해 참회발원하면 저절로 전인류가 부모에 효도, 스승을 공경하며, 나라에 충성하게 됩니다.

용성스님 오도처순례 대각사상연구원 개원

이경숙 기자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게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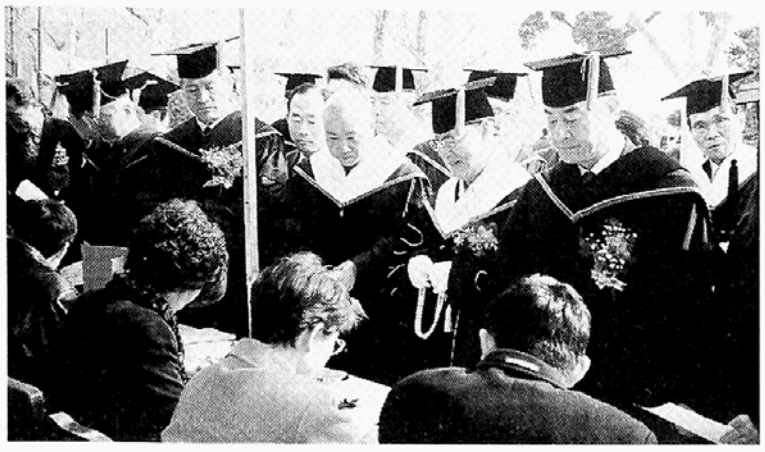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게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놔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동국대 졸업식장 빛낸 '금모으기 불심'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6일 97년도 학위수여식과 함께 본관앞에 금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경제회생 나라사랑 금모으기 행사'를 가졌다.

'나라사랑 금모으기 행사'에는 이사장 녹원스님을 비롯 송석구 총장, 황명수 총동창회장, 불교대 학장 법산스님이 동참, 행운의 열쇠와 금반지 등을 접수해 눈길을 모았다.

국민은행과 SBS 후원으로 열린 이날 금모으기 운동에는 학생과 교직원 1백여명이 5백76돈쭝, 약 3천만원어치의 금을 접수했다.

김정은 기자

"강남을 포교 일번지로"

서초구사암련 초대회장 정우스님



"브살행을 통해 지역에 이 바지하는 불교를 만들겠습니다."

서초구사암연합회 초대회장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은 어둡고 그늘진 곳을 찾아 보살행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30~40대의 경우 3명당 1명이 종교을 갖고 있지만 60~70대는 10%에 불과하다"며 "노인들이 종교를 버렸는지, 종교가 등을 돌렸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사암연합회는 이런 부문을 먼저 찾아가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암연합회는 △각 사찰단위 봉사단 조직 △구청과 연계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보호및 각종 위탁시설 운영 △효도잔치등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 등을 골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강남 및 송파지역 사찰들에도 사암련 구성을 독려하는 한편 복지, 포교등 연계활동을 펼쳐 강남을 포교 1번지로 만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스님은 "서초구사암연합회는 친목단체에서 벗어나 불자들을 대변해 구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초지역은 대부분 포교당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불사와 포교에만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초종파적인 연합회를 통해 포교당의 특수성을 살려 위상 강화와 토착화에 주력하겠다"고 스님은 덧붙였다.

김중근 기자

"교계 최초사업…공신력 얻기 주력"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강태운소장



"불자 구인·구직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교계 최초의 직업소개소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를 맡게 된 강태운 소장(57)은 "교계 최초의 사업인 만큼 우선 공신력을 쌓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달말까지 구직·구인 희망자를 접수해 3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에 나설 예정인 강 소장은 구인구직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컴퓨터통신망을 활용, 충분한 인력정보를 확보해 직업소개소를 활성화 시켜 나갈 방침이다.

'연꽃마을 간병인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 소장은 "1천2백명에 달하는 간병인회 회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 및 알선을 실시해 불교복지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강소장은 국방부에서 35년간 근무하다 만기 예편(예비역 준위), 93년부터 간병인회 회장을 맡아 왔다. 급여를 받지 않고 군인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불교복지 향상에 투신해 온 원력불자다.

김재경 기자

교차로

직지사 신도임원 정기총회



녹원 직지사 회주 스님은 22일 직지사에서 신년조례 및 신도임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8명의 스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불청 경남지구 총재에



화엄 김해 동림사 조실은 21일 진주불교회관에서 대한불교청년회 경남지구 총재로 추대됐다.

서산대사 478주기 추모재



천운 대둔사 주지는 19일 대웅전에서 서산대사 4백78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고창 신림저수지서 방생

혜산 선운사 주지는 25일 전북 고창 신림저수지에서 방생법회를 실시하고 천은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원광대서 철학名博 학위



법장 수덕사 주지는 20일 원광대 졸업식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경스님 52주기 추모재



법타 은해사 주지스님은 22일 은해사 대웅전에서 고경스님 52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대만 불교동수총회 참석



혜우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은 3월2일 대만 만불사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불교동수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출국한다.

'회엄경연구' 박사논문 발표



도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교수 스님은 23일 경주 정각원에서 '화엄경사상연구'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 발표회를 가졌다.

실천승가회 정기총회



지홍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총회준비위원장 스님은 25일 서울 봉은사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붓다의 메아리 행사개최

광명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장 스님은 3월8일 오전 10시 봉원사에서 제47회 붓다의 메아리 행사를 개최한다.

대통령 취임 티종식서 축시



고 은(시인) 본지논설위원은 25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취임식 본행사에 앞서 자정에 시작되는 서울 보신각 타종행사에서 축시를 낭송한다.

미주분교 졸업식 참석

허성구 대원불교대학 학장은 미주분교 졸업식 및 법사호 수여식에 참석한 후 달라스 지역 동문불자들의 불교환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20일 출국했다.

청소년 친선 탁구대회



최일산 원곡청소년센터 관장은 28일 제6회 청소년 친선탁구대회를 개최한다.

'돌담길 음악회' 개최

한명숙 불자가수회고문은 25, 28일 양일간 정동극장에서 중장년을 위한 '돌담길 음악회'를 개최한다.

림헌도 '불교문학대상' 한갑진 '오늘의 불교도상'





시인 림헌도씨(79·공주대 명예교수·시진 오른쪽)가 한국불교문인협회가 수여하는 제3회 불교문학 대상을 수상했다. 15일 열린 한국불교문인협회(회장 림영창)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불교문학상 詩부 본상은 신순애 박달수씨, 산문부 본상은 김두희 안성호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함께 시상된 제1회 불교문협상 詩부 본상은 문한종 김기진씨가, 산문부 본상은 박필규 림정순씨가 수상했다. 한편 '오늘의 불교도상'에는 한갑진씨(한진영상 회장)가 선정, 수상했다.



월주스님 약현성당 위로 방문

Focus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6일 천주교 중림동 성당(약현성당 사적 252호)을 방문 11일 방화를 당한 아픔을 함께 나눴다.

천주교 중림동 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회 건축. 월주스님은 임상무 주임신부의 안내로 본당 내부를 둘러보며 "일부 광신자들의 소행이 민족의 문화유산을 손상시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해마다 초파일을 전후해 사찰들도 방화 피해를 적잖게 입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월주스님은 이번 방문을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간 화합과 이해의 폭을 한 층 넓힌 행보로 주목받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전문성 갖춘 불교복지 절실"

불교사회복지협 공로패 받은 이건식씨



"불교복지사업에 의욕만 앞서서는 안됩니다.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화된 시각을 갖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사업을 펼쳐야 해요."

17일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각현)로부터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이건식 국회 입법보좌관(4급·40)은 불교복지·문화재 관련 정책·예산 분야에서 남모르게 활약한 숨은 일꾼.

이씨는 지난 95년부터 보리수마을 설립예산, 생명공양나눔회 사단법인화, 소쩍새마을 법인허가, 매화복지회관 수탁개원 등의 관련 업무는 물론 봉선사, 보광사, 회룡사 등의 문화재 보수예산과 양주군 회암사 발굴작업의 행정지원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재〉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이선남 30,000원 △김희정 22,000원 △김인화 50,000원 △이도종 10,000원 △이정아 5,000원 △오승민 10,000원 △윤상수 30,000원 △이종석 30,000원 △최윤영 100,000원 △박진석 10,000원 외 66명 △한 주 한끼굶기 400,000원 △밥 한공기 234,000원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한마음선원 1,073,910원 △새로운 교류 교육의 마당 '포럼2001' 1,500,000원 △원당초등학교 4-6 52,490원 △청년 정토회 500,000원 △삼웅산업 50,000원 △부산정토법당 95,810원 △부산부부선계회 30,000원 △김미화 5,000원 외 75명 〈2월18일 현재 총 924,853,15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현대대중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 과정)

동산불교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 집

1.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개설 취지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습니다. 불교의식처럼 다양하면서도 장엄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장중·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글화한 불교의식의 숙달로 생활 속에서, 특히 경조사에서 불교의식 집전은 불교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불교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글불교의식교육 5기생을 모집합니다.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8년 3월 7일 (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권지훈 법사외 1인

한글불교의식 Ⅰ (상반기)	한글불교의식 Ⅱ (하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장례의식 (2) …… 위중·매장·화장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장소
• 정규반 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판 사진 3장	98년 2월 14일(토) ~3월 6일(금)	매주토요일 오후 2시~3시 (동산빕당)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 사무국 (☎732-1206~8 / FAX 732-1207)

6.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자격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포교현장의 전법사양성

능엄경, 아함경 대강좌!

능엄경 : 송찬우 교수(승가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楞嚴十義 ◈

①色 (일곱 군데에서 마음이 있다고 진술함)
(이덟 가지 돌려보내는 예를 통하여 견을 밝힘)
②受 (근원으로 돌아가 한가지로 됨)
(세계와 인간을 분석하여 설명함)
③想 (여섯가지가 풀리면 곧 하나마저도 없어짐)
(5명이 그들의 원통을 저마다 선택하여 의락함)
④行 (능엄주의 持誦과 모용을 설함)
(보살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단계들을 설함)
⑤識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장애는 모두 오음에 의한 망상임)
(그 망상을 세밀하게 70가지로 나누어 설함)

- 출가수행자뿐 아니라 재가수행자들도 한번쯤은 꼭 독파해야 할 경전 능엄경!
  지행합일의 실천수행의 경전, 선학·교학·밀교를 융합시킨 경전!

아함경 : 최봉수 교수(동국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1) 장니카야 - 남방의 장아함
2) 중니카야 - 남방의 중아함
3) 상용니카야 - 남방의 잡아함
4) 중지니카야 - 남방의 증일아함
5) 소니카야 - 남방의 잡장
6) 율장개설

- 2600년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을 필요한 원전에서 적정한 양으로 선별강의!
- 불교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은 불교가 어려운것이 아니라, 불교가 해결하려는 우리 인생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1. 지도교수·법사
: 무진장스님외 교수·스님 14인 강의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모집인원	지원자격
정규반 (30명)	1 불교대학(정규)이수자
	2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통신반 (30명)	3 포교사취득자
	4 과목별 이수 희망자

3. 개강일시 98년 3월 2일(월)

4. 입 학 금 일십만원

5. 졸업자격 11과목 이상 이수자에게 연구원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교육원 사무국(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 4층)
·문의전화 : 732-1206~3
FAX 732-1207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원 장 무진장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김재일

탐방 심우회



◇IMF시대라 하지만 이런때일수록 할일이 더 많다는 심우회 회원들.

"그늘진 곳 따뜻한 마음 심어요"

오지부대·신병 등 군포교 열성
'삼풍' 사고 당시 봉사자 50명 결성

'예쁜 모습은 눈에 남고, 멋진 말은 귀에 남지만, 따뜻한 마음은 가슴에 남는다.'

12일 심우회(회장 김명원) 서울 양재동 월세법당에 3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임종 순간까지 자비의 보살행을 펼친 최정녀보살(73세)의 2재를 치루고 있다. 최보살의 삶이 보시행을 실천했듯 극락정토에 갔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심우회원 50여명은 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만났다. 당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사람들이 천도식을 갖고 회향했으나 행사가 끝난 뒤에도 서로 손을 잡고 헤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뜻있는 몇몇 사람들이 심우회를 조직하고 부처님전에 다시 모이게 됐다. 그런만큼 회원들은 부처님의 인연법을 확실히 믿고 자신의 기복이 아닌 남을 위한 자비행을 펼친다.

심우회원들은 매달 1만원의 회비와 특별행사비를 걷어서 법당 월세와 자원봉사활동하는 곳에 생필품 구입비로 지원해준다. 또 매년 초파일에는 법당등 보시금으로 서초구 미화원들 1백50여명에게 대중공양한다.

양로원 고아원 소년원등을 월1회 방문하는 것과 함께 심우회는 요즘 인간방생에 뜻을 두고 군포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신병교육대와 훈련소, 그리고 부처님도 없는 오지의 군부대를 찾아간다. 심우회의 드러난 활동은 영천 군수사령부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셨고, 5사단 신병교육대와 3군사관학교 법당건립을 지원했다. 22일에는 12사단 훈련소에 지성심 이정숙보살(73세)이 화주가 되어 범종각 낙성식을 갖기도 했다.

김명원회장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자비를 펼 수 있는 만큼 뜻있는 불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02-529-3861, 011-744-2539) 원만행보살.

김원우 기자

호남불교 맥 잇는 청년불자들

'주제있는 사찰순례단' 전북불교대학 결성
3월부터 매월 1회답사



◇호남불교의 맥을 잇겠다는 '주제가 있는 사찰순례단'이 15일 부안 내소사에서 첫 모임을 갖고 발족됐다.

호남불교의 맥을 잇겠다는 취지로 전북불교대학이 '주제가 있는 사찰순례단'을 결성했다.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15일 준비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선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부안 내소사에서 첫 모임을 갖고 순례단을 창립했다.

사찰이 지역내에 끼친 영향을 재조명하고 불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기위한 순례단의 활동은 3월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사찰순례를 갖는다는 계획. 이를위해 올 1년 동안 '불교와 지역경제(부안 개암사)' '구산선문과 오늘의 불교(남원 실상사)' '불교음악(완주 봉서사)' '호국불교(무주 안국사)' '불교문학(고창 선운사)' 등을 주제로 순례키로 했다.

순례단은 앞으로 백제불교문화코스 개발, 불교와 지역문화 관련자료집 발간, 사찰환경보호 및 지역문제 참여등의 활동을 펼친다. 주제가 있는 사찰순례단은 뜻을 같이하는 청년불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0652)226-7878

■ 부산불교실업인회 새 회장 서춘석씨

"불교병원·납골당·불교대 건립"



부산불교실업인회는 20일 코리아나뷔페에서 벽파스님(금강암 회주)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창립7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서춘석씨(60·부산중앙병원장·사진)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서회장은 "불교실업인회의 창립목표인 부산불교중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임소감을 밝히고 "대외적인 행사를 자제하고 회원간 단합과 내실을 다지는 1년 2회의 경제강의와 전국사찰순례, 법회봉행 위주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인 사업으로 "불교병원, 납골당건립, 불교대학설립을 추진하고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회를 설립하겠다"고.

서회장은 부산불교실업인회 상임부회장,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 초대이사장, 부산불교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욕심없이 지혜롭게 살겠어요"

금융결제원 수계식 및 수련회

금융결제원불자회(회장 조화제)는 14, 15일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 봉선사에서 제 1회 수련회를 가졌다.

화선스님의 '참선이론과 방법' '발우공양과 소심경' 강의와 주지 밀운스님 법어, 참선및 참회정진 등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회원들의 신심을 함향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계식에서 회주 월운스님은 "불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입지 발심 섭신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하도록 수행해야 한다"며 "IMF시대에도 집착을 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자신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화제회장은 "창립하고 1년동안 매주 1회씩 사무실에서 법회위주로 운영하던 신행생활을 재정립하기 위해 수련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수련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자회의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월주스님 72사단 법당건립비 지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9일 육군 제72사단 법당 건립 지원금 1천만원을 이영우 부사단장에게 전달했다. 72사단은 3월20일 45평 규모의 법당을 준공할 예정이다. 72사단법당이 준공되면 1천여명에 이르는 군불자와 인근 주민들의 법회장소로 쓰이게 된다. 월주스님은 지원금을 전달하며 "군불자들의 사기진작과 불심함양을 위해 부대차원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북구 사암련 신년 대법회

성북구 사암연합회는 17일 길상사에서 사암련사무실 현판식및 신년대법회를 개최했다. 회장 종본스님(경국사주지)은 대회사를 통해 "국난극복에 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성북구민이 합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암련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길상사주지 청학스님, 유재건 국민회의 부총재, 진영호 성북구청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교대구방송 칠곡교양대 개설

불교대구방송은 지난 2월17일 회성사(주지 종묵, 대구시 북구 읍내동)내에 부설 칠곡교양대학을 개원했다. 칠곡교양대학은 불교대구방송 총괄국장 장적스님, 기획위원 홍승스님·재법스님 등을 교수진으로 위촉, 매주 화·수요일 전통사찰요리 불교기초교리 천수경 참선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현판식을 겸해 열린 개원입학식에는 성진스님(진주 천곡사) 등 사부대중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053)321-3600



해동범음대 위기극복 수륙대법회

해동범음대학(학장 대은스님)은 12일 아산만 광택호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화합 평화통일기원 수륙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서 혜초스님(前 태고종 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산생명을 방생하여 생명의 존귀함을 기리고 경제가 안정되도록 기원하자"고 강조하고 경제난국타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리 모임에션

대전운불 정기총회

대전운전기사불자회(회장 박영조)는 3월4일 대전중앙불교회관 1층 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98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사회봉사활동 활성화 △호출택시 활성화방안 △회원 신행및 취미활동 개발 △사회복지사업 추진 △업무전산화 △가스충전소 단일화 및 신차 단일창구 구입 건등이 논의된다.

금융단불교련 올사업 확정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용이)는 1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98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금융단불자연합회는 올해사업으로 △4월과 10월 합동법회개최 △봄, 여름, 가을 사찰순례 및 야외법회 △5월과 11월 봉사활동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용이 운영위원장은 "합동법회후 봉사활동을 통해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분기당 1회씩의 합동 신행활동을 통해 회원간 친목및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성불회 양로원 방문

안양교도소성불회(회장 변즐연)는 28일 경기도 화성 자제정사 양로원을 방문하여 위문법회 및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성불회회원 30여명은 이날 실·내외 청소, 노인 목욕, 세탁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며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노인위안잔치도 연다.

변즐연회장은 "사회가 어려운만큼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며 "불교양로원 방문을 매월 상시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불자 용주사 순례

경기도청불자회(회장 조한유)는 28일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2월 순례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서는 용주사주지 정락스님이 '어려운시대 불자들이 살아나갈 길'을 주제로 법문한다.

상조회 우리말의식집 간행

부산불교상조회(이사장 리기권)는 14일 아리랑호텔에서 범어사주지 성오스님, 태고종 부산종무원장 상도스님, 미륭사주지 정각스님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기권법사의 '우리말 전통의식집' 발행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불교상조회는 북한동포돕기운동본부에 1천만원을 전달했으며, 성우원 치자마을 등의 불우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

부산거사림회 정기법회

부산불교거사림회(회장 엄영건)는 24일 오후7시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정기법회를 연다. 이날 법회에서는 벽파스님(금강암 회주)이 법문한다. 한편 부산거사림회는 생활불교에 관심있는 일반인및 초심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051)805-1280

대 원 불 교 대 학
학 생 모 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강의시간
출강 / 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 원 불 교 대 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염불 禪 철야정진

옳곧은 자세로 심신을 이완시키고 특히 혀와 턱을 완벽하게 이완시키고 불성의 운률에 맞춰 행주좌와 동정간에 불성으로 염불하고 자성이 귀로 듣는 일념의 수행으로 염불삼매 환희심에 찬란한 자성의 부처를 체험하십시요.

1. 엄불수행시 허가 입천장을 탁닥쳐야 대뇌가 각성되어, 정신이 또렷또렷해지며 번뇌망상이 사라짐을 체험
2. 돈승시 염불이어짐과 자동으로 침이 넘어가고 몸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력이 좋아짐을 체험
3. 호체합장 염불은 자동단전호흡되며, 옳곧은 자세가 계속 유지되는 완벽한 자세로 몸빙 마음빙, 전생빙이 치유됨과 단전혁이 뚫려 완벽한 호흡이 됨을 체험
4. 수행중 자금빛 부처님, 황금연꽃, 백색광명, 수행자의 몸에서 황금빛 오로라를 보게되며 업장소멸 체험
5.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박자에 맞춘 염불삼매로 한두시간 정도는 손끝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세로 몸뚱이 집착 극복을 체험
6. 목탁소리나 타인의 염불소리는 잘 들리나 자신의 염불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때 자신의 귀를 스테레오로 들리게 하여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은 옳곧은 염불삼매체험.
7. 엄불수행시 무의식 자동단전호흡되고 수승하강되어 손, 발, 배는 따뜻해지고 이마와 정수리는 시원하며 머리는 맑고 또렷또렷해짐을 체험
8. 상근기가 아니면 화두참선하지 말고 염불소리 들으며 호흡을 세고 단전복부를 관하여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자나 깨나, 좋으나 싫으나, 석가모니불 명호를 끊임없이 칭명하면 자동으로 염불됨과 신비한 신통력을 체험

⊙수행내용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한글금강경 봉독, 참선기초수행, 와선호흡법, 행선염불, 신비의 도인 건강법
⊙공양미, 넉넉한 복장, 수련회비(2만원)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아침 8시 (소리산 염불등산)

출가희망자 수행체험(3일,7일,15일,30일,50일,100일)
「비전의 수행테크닉 전수로 옳곧은 수행체험과 신심증대」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 (0338) 71-7745 (수행상담시간 오후 5시~8시)

인간과 미래를 생각하는 열린 교육의 장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1998학년도 봄학기 불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1. 모집과정

과정명	세부과정명	과목(반)명	교강사명	교육기간	주야구분
교양교육과정	불교란 무엇인가	Ⅰ	최종석	1학기	주간
		Ⅱ	권기종	〃	〃
	자신법의 이해와 실제	Ⅰ	인환 스님	〃	주간
		Ⅱ	중호 스님	〃	야간
	신기군 (2년과정)	기초반	작은 스님	〃	주간
		중급반	〃	〃	〃
		수련반 Ⅰ	〃	〃	〃
전문교육과정	불교전문교육 (2년과정)	화엄사상의 세계	해주 스님	1학기	주간
		불교와 과학	김용정	〃	〃
		스기불교와 그사상	조용길	〃	〃
		불교와 한도 사상	정승석	〃	〃
		불교사회경제론	박경준	〃	〃
	불교개설		정각 스님	2학기	주간
	불교와 생활		정휘욱	〃	야간
	깨침의 세계		최봉수	〃	주간
	선과 염불		혜원 스님	〃	주간
	불교영어		김종명	〃	주/야
	불교의식진수교육	이론·실기	구해 스님 심상현	3년	주간
반야사 교육과정	불교원전번역사	범어반	최봉수	2년	주간
		티벳어반	〃	〃	〃
		팔리어반	〃	〃	〃
		하무반	이종찬	〃	〃
종신교육과정	동국대TV불교 아카데미(1년과정)	불교의 깨침논리	박성배	1학기	주/야
		여래장사상	이평래	〃	〃
		밀교사상	장익	〃	〃
		정토사상	보응 스님	〃	〃
		중국불교사상사	계환 스님	〃	〃
		화엄사상의 세계	해주 스님	〃	〃
박물관교육과정	불교박물관대학		문명대	2학기	주간

2. 지원자격
제한없음 (단 불교영어는 고졸이상)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8년 2월 16일(월)~2월 27일(금)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학술관 1층)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와 사진(3×4cm)3매
나) 주민등록등본(동국대 TV불교아카데미 과정 지원자에 한함)
5.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 260-3728~9 FAX 260-3730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법회안내



월운스님(봉선사 주지) 3월13일 오후3시 동국대 정각원 삼장법회. 음력 보름법회 오전 10시,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서울 신대방동 흥원사 법회. (0346)555-5974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매월 넷째 일요일 오전 11시 수국사 가족법회. 매월 음력 3일 오전 11시 화계사 삼성암 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1시 경국사 지장재일 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0분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 '선의 이론과 실제' 강의. (02)942-5282



현성스님(현성정사 원장) 3월 6일 오전 10시 보살계법회. 음력 초하루 오전 11시 신중기도법회. 음력 8일 오전 11시 방생재일 법회. 음력 보름 오전 11시 포살대법회. 음력 24일 오전 11시 관음재일 법회.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일요일 오후 2시 시민선방법회. (02)3216-5405



지운스님(송광사 강원 강주) 3월1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동 길상사 가족법회 〈대승육정참회〉강의. 광주 원각사서 매월 둘째 월요일 오전 11시 〈금강경〉강의. (02)3672-5945



정덕스님(인과선원 주지) 음력 초삼일 법회, 지장재일 법회 오전 10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어린이법회. (02) 907-370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봉영사 주지 철안스님의 지도에 따라 '광명진언 사경'에 집중하고 있는 불자들의 모습은 어느덧 세상 모든 번뇌를 잊은 듯하다.

봉영사 'IMF극복' 사경불사

1배에 탐욕심 놓고 1자에 세상시름 잊고

경제난국을 맞아 불력으로 답답한 마음을 풀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자며 주장하고 나선 사찰이 있다. 천년고찰 남양주 봉영사(주지 철안).

봉영사는 7일부터 작은 절약, 작은 실천을 통해 수렁에 빠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자는 바람(願)으로 '광명진언 사경불사'를 시작했다. 일명 IMF형 사경불사. 이 불사는 보시금만으로 동참할 수 없다. 검소한 절약생활이 선행돼야 한다. 금연, 금주, 자가용자제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절약한 만큼 보시하고 불사에 동참하자는 것. 즉 1일 1천원도, 몇백원도 가능하다. 이 광명진언 사경불사는 동짓날까지 이어지며 사경한 것은 모두 대웅전 부처님 복장유물로 봉안된다.

봉영사 주지 철안스님은 "우리민족은 13세기 국운이 몽고군의 말발굽아래 놓여 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을 팔만대장경 판각불사에 담았다"며 광명진언 사경불사의 의의를 강조했다.

지금 당장은 살아가는 일이 힘들지라도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세상시름 혼자 껴안지 말고 1자1배 광명진언 사경불사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지금 봉영사 대웅전에는 작은 책상과 사경지, 경면주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1배로 탐욕 떨치고 1자로 세상시름을 깨끗이 씻어버리자. (0346)571-0555

신라인의 이상세계 여행

민학회, 중학생 경주답사

우리 불교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답사가 봄방학을 맞은 중학생들과 예비중학생들을 기다린다.

부산민학회(회장 주경업)는 26일 신라 천년의 불국토 경주로 문화답사여행을 떠난다. 신라 최대의 사찰 황룡사지, 분황사를 둘러본다. 또 남산 탑골의 부처바위가 새겨진 불국정토세계를 통해 '신라땅이 곧 불국'이라는 신라인들의 믿음을 되새겨 보게 된다. (051)255-5424

진리로 가는 참선수행

봉은사 달마학교 개원

참선 삼매 속에서 부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강좌가 준비됐다.

봉은사(주지 무상)는 달마학교를 개원해 3개월 과정으로 선강좌를 실시한다. 보천스님(봉은사 포교실장)의 지도로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3시까지 열리는 달마학교는 불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02)516-5652

새싹포교 밑거름

레크리에이션 2급과정

어린이·청소년법회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포교활동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레크리에이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는 제9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과정을 개설했다. 3월12일부터 6월초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불교레크리에이션론, 찬불가, 리더쉽, 싱어롱, 프로그램 작성법 등을 강의한다. (02)738-7860

봉정사 전통건축미 감상

터사랑 안동일대 답사

우리나라 고려 건축의 백미인 극락전과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촬영한 영산암을 자랑하는 안동 봉정사 새벽예불에 동참할 기회가 왔다.

국토문화순례 터사랑(대표 전숙희)은 28일부터 3월1일 1박2일동안의 일정으로 안동지역을 찾아간다. 봉정사 참배에 이어 조선 성리학 영남학파의 거두인 퇴계 이황선생을 배향한 도산서원을 방문하고, 병산서원 만대루에 올라 아름다운 병풍처럼 둘러쳐진 병산과 낙동강 줄기를 굽어본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02)725-1284

나의 수행일기



송지연 〈한국불교사회봉사회 회장〉

20년째 매월 산사 참배

꽃공양·봉사활동 통해 '감사함' 배워

20여년전 어느 여름 날. 절친한 고향 친구인 강순화와 함께 도봉산에 올랐다. 나와 불교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그날 우연히 떠난 봄 나들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젊은 시절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어린이 지도교사까지 한 내가, '천수 다라니'보다는 '主기도문'이 더 입에 익던 내가 어떻게 불자가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다. 아마 도봉산 천축사의 절경처럼 신비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불교의 가르침이 나를 서서히 매료시켰던 것은 아닐까.

내가 불교를 접한 것은 주로 책을 통해서였다. 〈천수경〉이나 〈금강경〉 등 경전을 쉽게 해석한 책을 통해 기독교와 불교의 교리를 비교하며 자연스럽게 불교에 친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천축사와의 인연은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 그전부터 서울 시내의 포교당을 친구와 가끔 찾곤 했지만 본격적인 신심을 갖진 못했다. 결국 그날 천축사의 아름다움에 감탄, 봉은사 신도인 친구의 권유로 무작정 적은 주소가 불교와 나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됐다. 천축사를 처음 다녀 온 한 달 뒤 절에서 엽서가 날아왔다. 나반존자 기도에 참석하라는 안내문이었다.



그로부터 나는 20여년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절을 찾고 있다. 이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사를 오른다. 무심코 시작한 산사참배가 이제는 가장 큰 수행방편이 되었다. 이른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관세음보살'이나 '천수다라니'를 외우며 오르는 산행은 일상에 찌든 심신을 정화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청정심을 자아낸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는 밥 하기전 새벽에 '천수 다라니' 7독,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금강경〉 1독을 지속했다. 나름대로 신심이 깊어지면서 문득 천축사 부처님 전에 꽃을 내 손으로 올리고 싶다는 발심이 났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연화정사의 정명스님으로 부터 배운 꽃꽂이였다. 매달 초하루나 부처님오신날, 특별한 법회가 있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양재동 꽃시장에서 꽃을 골라 직접 부처님께 공양할 꽃을 다듬는다. 정성을 담아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아침 일찍 그 꽃을 들고 절을 찾는 그 마음은 마치 나비처럼 가볍다. 매번 이같은 환희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지 모른다.

조계사·능인선원 불교대학을 졸업하면서 포교사 자격증도 따는등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갚이가 더해졌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금강경〉의 '무주상 보시(無住相 布施)'의 실천이었다. '진정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불자라면 마땅히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났다. 10여년전부터 시작한 불교사회봉사회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사회에 회향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의 과정이었다.

천축사, 원효정사 불자 3백명으로 구성된 불교사회봉사회 회원들은 불교 4대명절과 각종 행사장에서 하루찻집을 열거나 수시로 차·미역 등을 부지런히 판매해 왔다. 회원들의 회비도 함께 모아 작은 정성이지만 지금까지 어린이 40여명에게 7천여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해 왔다. 또한 불우 이웃을 위한 생활비 보조, 군부대 위문 등과 함께 주부 회원들은 10~15명씩 하루 봉사팀을 구성, 서울대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느끼는 것은 '나를 포함한 불자들이 남을 위해 베푸는 것에 아직은 인색하다'는 생각이다. 좀 더 아낌 없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무주상 보시가 아닐까?

IMF 아래에서도 건재한 남편, 출가한 첫째 딸, 시립아동상담소에서 봉사활동 중인 둘째 딸, 그리고 직장인인 아들. 나는 나의 가족이 언제나 건강하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을 불교 공부 덕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남을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나는 오늘 또 연꽃을 다듬는다.

게시판

♣ 인사

불교신행연구원 △사무장 김정진

♣ 강좌

△실천불교학교=보광사(주지 효림)가 제7기 실천불교학교를 연다. 3월11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반(10시30분)과 오후반(7시30분)으로 나눠 부처님의 생애, 불교기초교리등 교육을 실시한다. 보광사는 또 3월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천수경〉 경전공부도 진행한다. (0348)942-7700

△불교사회학=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3월12일부터 4월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불교사회학 특강을 마련한다. 이번 강좌는 불교기초교리, 개인·가정·사회윤리, 불교와 정치, 불교와 경제를 주제로 송위지교수(외대)가 강의한다. 불교경전에 나타난 윤리정치 경제관을 살펴볼 기회. (02)723-5101

△화엄경·참선=탄허불교문화재단 부설 삼일불교교육원(이사장 전장렬)은 3월 4일부터 〈화엄경〉 십회향품·십지품(강의 각성스님), 불교사상(강의 최봉수교수), 참선(강의 종호스님) 등을 개설한다. (02)237-4438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3월4일부터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 강좌를 실시한다. 삼보설, 연기론, 사제설, 번뇌론,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의범, 반야심경 등 강의. (02)732-1206

△기초교리=능인선원(주지 지광) 능인불교대학은 불교기초교리, 불교의 본질 등을 매주 화, 금요일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실시한다. (02)557-5800

△한지공예·다도교실=동화사 포교원 관오사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3월3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2시 관오사 법당에서 전통한지공예 강좌를 갖는다. 또한 3월 5일부터 5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2시에는 전통다도예절교실을 연다. 한지공예 수강료는 3만5천원이며 다도교실은 무료. (053)784-3669

♣ 모집

△불교·경전연구과=호남불교대학(학장 도성)은 야간과정 불교학과·경전연구과(법사과) 신입생을 2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불교학과 1백50명, 경전연구과 50명이다. (062)222-0819

△지격증취득반=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철웅)은 머리미용·컴퓨터·종이접기 초급강사 자격증 취득반 수강생을 수시로 모집한다.

3개월과정의 머리미용의 수강료는 월3만7천원. 컴퓨터는 2개월과정에 월2만8천원, 종이접기는 3개월과정에 월4만5천원. (02)817-8052

△지원봉사자=청담사회복지관(관장 혜성)은 메이크업, 피부관리, 영어회화 등을 3월초 개강한다. 또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물품후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06-1375

♣ 이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동회장 설조·안동일)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 5층으로 이전했다. (02)765-5448, 017-244-8237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은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83-3번지로 이전했다. (02)720-1902

△천태종 천태종보사는 16일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로 이전했다. (02)573-7645~6

♣ 화촉

△법보신문사 황도차장이 28일 오후 1시 신촌 태고프라자에서 이수경씨와 화촉을 밝힌다.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 천 법사

책자내용(목차)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생활풍수의 기본적 개념·생활풍수의 기본요소·생활풍수의 이론적 배경
4 팔괘의 심볼에 대한 설명 5 팔상탑주의 조성원리
6 팔상탑주의 종류
7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그 효험력
8 나침반의 방, 실내방위 관독방법 9 팔상탑주 구입방법
10 팔상탑주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예
11 생활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12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 13 음택(산소)풍수
14 음택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관 팔괘 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한 작용과 조성동기 및 산소적용 방법
15 산소(묘)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황동관 팔괘 만다라와 황동관 팔괘 불탑다라니의 처방비법

"이 책자를 다읽고 나면 자신의 운명(運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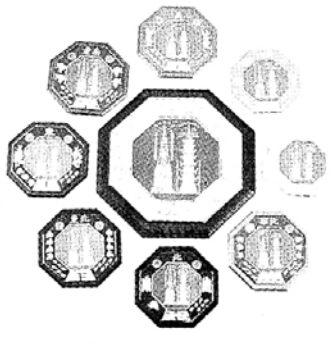
"생활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운이 약한 자를 운이 강한 자로 만들어 주는 생활풍수처세비법"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와 각 8방위별 팔상탑주



(1)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2)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3)규격 : ·총괄팔상탑주 : 30㎝×30㎝
·팔방위팔상탑주 : 15㎝×15㎝
(4)의장특허등록 : 제211260호
(5)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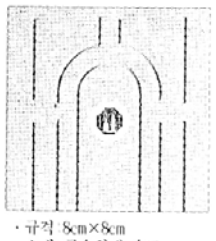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팔괘와 음양의 조화, 십이지·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닥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스님들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팔상탑주 처방비법"

본 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만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팔상탑주는 스님들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특별처방비법이 따라야 하며, 이 방법을 거쳐야 그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의 신도들에게 풍수적으로 불가사의한 효험력을 나타내는 팔상탑주를 적용하여 신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 불자님들께는 본 책자를 요약한 카다로그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 대문용 팔상탑주



·규격 : 8㎝×8㎝
·소재 :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가격 : 60,000원

※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 앞에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직살방이라 하여 기가 약한 집이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기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이 점점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이때, 대문앞에 팔상탑주를 부착하면 그 시점부터 집안에 좋은 생기만 흡입되고 모여들어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지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또한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출입가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하며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당이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 차량용 팔상탑주



·규격 : 5㎝×5㎝
·소재 :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가격 : 60,000원

※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필히 걸어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는 총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괘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안에 생기가 충만케 해주고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줌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뻗어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금년부터는 나라살림·회사살림·집안살림 모두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재앙이나 악운이 닥치고 행운마저 외면한다면 우리 불자님들은 견뎌내기가 무척이려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생활풍수원리에 따라 조성된 12품 팔상탑주를 자신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종류를 선택하여 가정이나 사업체, 가게, 상점, 공장 등에 적용하면 풍수적으로 막지 않는 곳을 교정시키고 차단된 기(氣)와 역류되고 있는 운기(運氣)를 균형되도록 조화시키고 기(氣)를 북돋아 줌으로써 불행을 피하고 또한 최소한으로 예방시키면서 건강과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 화 : (0335)34-9490, 34-9491 야 간 : (0342)706-3060

"사지전문발굴기구 필요하다

전담기구 없어 졸속 행정-원형 훼손 심각
종교·문화적 식견 갖춘 전문가 양성해야



◇문헌조사에서 발굴, 정비에 이르기까지 사지발굴은 종교·문화적 식견을 지닌 전문인력에 의한 일관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진은 4월부터 발굴이 재개되는 강화 선원사지.

군위 인각사(2월중순), 제주 법화사(3월중순), 강화 선원사(4월초) 등 사지(寺址)복원사업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사지발굴을 전담하는 '사지전문발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사지발굴조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가 없이 행해지는 사지발굴이 근시안적인 졸속행정과 맞물려 오히려 원형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관련학자들은 "사지는 단순히 기술관으로 발굴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종교적 신앙심과 불교문화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지발굴 전문가가 전담해야 한다는 것. 또 여러차례 중수·중창을 거쳐온 사지에는 다양한 유적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지발굴은 특정지역을 단번에 파들어가는 고분발굴과 다르다는 것이다. 시간과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출토유물도 적다. 이로인해 전공이 다른 연구자가 사지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세밀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

중앙승가대 김상영교수(불교사)는 "발굴은 보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지전문 발굴자가 없는 발굴기관은 사지발굴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사지발굴은 대학박물관에서 전담하고 있다. 발굴현장에서 상시 조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1~2명. 행정편의적인 조사기간 및 조사단의 급조 등으로 발굴이 오히려 유적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청주 H사지처럼 철저한 문헌고증없이 조사에 착수, 사찰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사례도 있다.

김교수는 "철저한 문헌조사에서 출발, 전문인력에 의한 발굴, 스행도량으로서의 옛 기능 회복에 이르기까지 사지전문발굴기구에 의한 일관된 노력이 있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자칫 복원만을 앞세우다 보면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역사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사지복원계획을 수립, 우선 사지 실태조사부터 철저하게 벌여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 등 각종 문헌과 사적비(寺跡碑)에 기록돼 있는 사지의 정확한 위치와 유물 등을 정리, 현장조사를 통해 대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재훈단장(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단)은 "사지발굴 전문인력의 동원없이 수천년에 걸쳐 내려오는 유적을 실험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지나치게 복원을 목적으로 한 발굴 또한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 원흥사의 경우 출토된 유물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보존과학센터를 설립한 이후, 사지발굴에서 보존처리, 전시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발전했다. 관련학자들은 사지복원의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에 불교계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국대박물관과 중앙승가대와 같은 종립대학을 활용, 전문학과를 개설하고, 박물관 학예직을 늘리며,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윤기석 기자

불심시심 〈118〉

너와 나는 하나의 이치

五十年來成底事 (오십년래성저사)	50년 동안 이룬 일이 무엇인가
破衣蔬食臥禪床 (파의소사와선상)	해진 옷 나물밥으로 선상에 누웠다
浮雲朝暮有飜覆 (부운조모유번복)	뜬 구름 아침 저녁 번복이 있지만
流水東西無古今 (유수동서무고금)	동서로 흐르는 물이야 고금이 있나
魚躍鳶飛皆率性 (어약연비개솔성)	고기 뛰고 솔개 날음도 모두 본성의 거느림
鶯歌燕語各全心 (앵가연어각전심)	꾀꼬리 노래 제비 지저귐 각기 온전한 마음
靜觀萬物兼觀我 (정관만물겸관아)	고요히 만물 살필 때 나 또한 살피면
物我混然一理深 (물아혼연일리심)	너와 나 혼연한 한 이치임을 깊이 알게 돼.

관허대사의 시이다. '부질없이 읊다(漫吟)'라는 시이다. 이 시에서 대사가 찾았던 자연이나, 그에 대한 작시가 모두 사물 이치의 관찰이요, 법리의 추구며, 수선적 방편이었음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50여년의 수선 생활에서 얻은 선리의 터득이다. 구름은 시간없이 끼었다 걷혔다 하는 것이 본성이다. 그러면서도 항시 구름일 수밖에 없고, 물의 본성에는 원래 낮은 곳이면 흐르는 것이다. 어제 흘러간 물은 오늘의 물이라 할 수 없지만, 물 자체로서는 어제 오늘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 승련의 구성은 완전한 시공의 배치를 잘 조화있게 하였다. 위에 떠있는 구름으로 공간적 무상을, 아래의 물에서 시간의 무상성을 나타내었다.

물고기는 뛰어 오르고 새는 하늘로 날게 되어 있다. 이것이 모두 본성의 자연이다. 이 연비어약의 어구는 유가에서 사물의 이치를 살피는 기본자세로 예시하는 어구이다. 각기 본성의 진실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꾀꼬리의 노래나 제비의 지지귐이나 사람의 언어가 그 본성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살핌이 바로 나와 남, 사람과 자연이 한 이치임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대사는 자연의 서경에도 항시 사물의 이치를 투시하려는 의도가 넘치고 있다. 선가의 진리적 표현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더라도, 깨닫는 방편적 원용이었다 한다면 궁극적인 깨달음에는 차이가 있을 리 없다. 선의 이치를 모든 사물의 일상사로 이해하려는 선가의 자세라 한다면 어떨까.

이종찬 〈동국대 교수〉

"성보도난방지법 강화"

조계종 성보보존위 의견일치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위원장 원학스님)는 1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 관련부서(문화부)가 관리부실한 성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문화재보호법상에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72년 제정이후 사문(死文)화 되다시피한 성보보존법을 개정해 성보도난에 대한 제재조치를 엄격히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성보보존위는 이와함께 전문적인 성보문화재의 보존·연구를 위한 불교중앙박물관 건립추진소위원회를 올 분명히 해야 이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사찰 스님들과 종무원들에게 성보보존에 대한 사명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사찰의 성보관리가 미흡할 경우 종단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성보보존위 또는 문화부를 문화재보호법상에 관리단체로 등록, 성보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불교중앙박물관 추진위 올 구성
황룡사지 전시관건립 '반대'

법제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비지정 성보의 관리에 대해서 홍윤식교수(동국대)는 "지속적인 기초자료 조사 및 자료의 전산화, 종단차원의 지정, 성보보존법령 개정 등을 통해 성보에 관한한 문화재관리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보관리의 책임자로서 총무원 문화부의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교박물관다운 특색과 여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동국대박물관이 새로 건립되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황룡사전시관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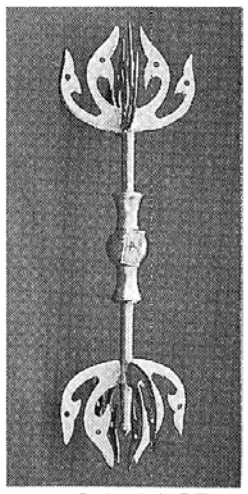
해내 구성하기로 했다.

법제상 성보문화재는 소유자가 사찰주지 개인으로 돼 있어 소유권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에 성보의 매매, 불사 등과 같은 현상변경시 종단의 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범하스님(통도사 박물관장)은 "성보보존법은 제정이후 단 한번의 개정도 없었다"며 "성보도난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만 해도 4개 교구본사에까지 도난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단 한번도 없어 도난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용성스님 유물·유품 전시회

3월4일부터 천안 독립기념관



◇용성스님의 유물인 금강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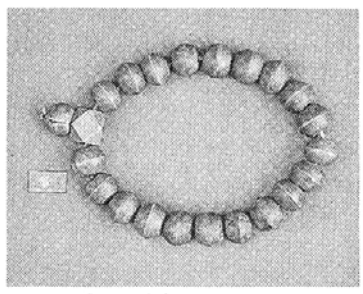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백용성스님의 유물 유품 전시회가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천안 독립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스님이 기증받은 부처님 진신사리 1과, 용성스님이 남긴 사리 1과를 비롯 스님이 생전에 사용하던 옥으로 만든 삼보지인(인장), 염주, 요령, 촛대, 금강저 등과 화엄경 능엄경 등 스님이 번역한 육필원고와 관련 사진 등 50여점이 전시된다.

한편 용성스님 유품전시회 개막식은 4일 오전11시에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되며 당일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주최로 점심공양이 베풀어진다.



◇용성스님이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 번역본 육필원고.



◇용성스님이 생전에 쓰던 염주.



◇돈황 막고굴 제57굴의 보살상 모사그림(계생作).

백양사 고불미술관
3월1일~5월31일

돈황그림전

백양사 고불미술관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국 돈황 막고굴 모사 그림과 탁본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갖는다.

중국 돈황시에 있는 막고굴은 천불동이라고도 하며 지금까지 총 492개의 석굴이 발견됐다. 막고굴은 366년 낙준스님이 조성하기 시작해 북위 서위 수 당 송 원에 이르는 13세기까지 천여년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이곳에 있는 벽화와 불상조각들에게서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양식의 특징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그림들은 중국 화가인 이정, 계강, 생택 등 3인이 직접 돈황막고굴에서 그린 작품으로 '제57굴 보살상' '제199굴 관음보살상' '제327굴 헌화비천상' 등 널리 알려진 벽화그림 14점과 석가모니와불 탁본 등 총 21점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0685)92-7502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정비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인각사 전경

승가대, 인각사 사역범위 조사

삼국유사의 산실 군위 인각사(주지 대원)에 대한 3차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소장 홍선)는 인각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8일부터 '군위 인각사 사역확인을 위한 시굴조사'에 착수, 3월 30일까지 약 40일간 발굴작업을 벌인다.

이번 발굴조사는 92, 93년 경북도의 예산지원으로 추진된 1, 2차 발굴조사에 이은 연속사업으로 인각사 외곽지에 대한 유구확인과 사역의 범위를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다.

인각사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결과를 기초로 인각사 정비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책방 여시아문 2월 특선 - 경전의 지혜로 겨울나기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올 2월, 많은 불자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경전들만을 간추려 특판전을 열고자 합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법구경 등 불자들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 읽어 보아야 할 경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 붙은 우리들의 마음을 붓다의 지혜를 빌어 이겨 가시지 않겠습니까.

문의 전화 : (02)737-0695, 732-1521

찾아오시는 길
현대불교문화사 책방 여시아문
광화문 운주사 조계종구청 조계사 광화당 입구 안국동 종각역 공평빌딩 종로3가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 5,500
금강경 대강좌 청담/ 보성문화사 / 20,000
금강경 대강좌 이제열/ 여시아문 / 8,000
금강경 오가해 무비/ 불광 / 15,000
금강경 이야기 법륜/ 정토 / 상 9,500 하 6,200
금강반야바라밀경 월운/ 보련각 / 5,000
금강반야바라밀경 해안/ 불서보급사 / 4,500
능엄경 불전간행회, 김두재 / 민족사 / 9,500
능엄경 강화 1, 2, 3 동국역경원/ 각15,000원
능엄경 주해 운허/ 동국역경원 / 10,000
대승입능가경 김재근 / 명문당 / 7,000
묘법연화경 고산 / 반야샘 / 15,000
반야심경 법성 / 큰수레 / 8,000
반야심경 송원 / 상아 / 6,000
반야심경 이기영 / 한국불교연구원 / 4,000
반야심경 청담 / 보성문화사 / 9,000
반야심경 강의 한정섭 / 불교대학교 교자(편) / 6,000
반야심경 이야기 법륜 / 정토 / 7,000
법구경 김달진 / 현암사 / 8,000
법구경 불전간행회, 석지현 / 민족사 / 6,500
법구경의 세계 이원섭 / 운주사 / 7,000
법화경 운허 / 동국역경원 / 7,000
법화경 이원섭 / 삼중당 / 6,000
보현행원품 한정섭 / 불교동신교육원 / 6,000
보현행원품 강의 광덕 / 불광 / 4,000
보현행원품 강의 무비 / 민족사 / 6,500
아함경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 대한불교조계종 / 12,000
아함경1, 2 불전간행회, 돈연 / 민족사 / 각 7,500, 7,000
여래심지의 요문(대승입능가경) 박건주 / 농가산방 / 11,000
원각경 감산대사, 오진탁 / 세계사 / 15,000
원각경 관심석 법성 / 큰수레 / 9,000
원각경 주해 원은 / 동국역경원 / 3,000
유마경 불전간행회, 박용길 / 민족사 / 6,500
유마경 안진호 / 법륜사 / 25,000
유마경 장순용 / 시공사 / 12,000
유마힐소설경 이기영 / 한국불교연구원 / 8,000
육조단경 광덕(역) / 불광 / 12,000
육조단경 나카가와 다카, 양기봉(역) / 김영사 / 7,000
육조단경 심재열 / 보련각 / 15,000
육조법보단경 해의 법성 / 큰수레 / 12,000
천수경 무비 / 불일 / 4,500
천수경 강해 법성 / 큰수레 / 6,000
천수경 이야기 김호성 / 민족사 / 4,500
초발심자경문 심재열 / 보성문화사 / 7,000
초발심자경문 탄허 / 불서보급사 / 3,500
치문경훈 이일엽 / 보련각 / 15,000
치문경훈 이일엽 / 수덕사승가대학 / 15,000
한글 세대를 위한 법화경 상, 하 감산대사, 오진탁 / 세계사 / 각 15,000
한글 세대를 위한 법구경 최동호, 김달진 / 세계사 / 12,000
한글 아함경 고익진 / 동국대학교 출판부 / 12,000
화엄경 법정 / 동국역경원 / 7,000
화엄경 불전간행회, 김지견 / 민족사 / 12,000
화엄경 강의 무비 / 불광 / 9,000

성철 스님 법어집

백일 법문 상·하 상 6,500원 하 5,500원
선문정로 평석 6,000원
돈오입도 요문론 강설 5,000원
신심명 증도가 강설 6,000원
영원한 자유 6,000원
자기를 바로 봅시다 6,000원
돈황본 육조단경 6,000원
선문정로 4,000원
본지풍광 7,000원
한국불교의 법맥 5,500원

• 성철 스님 법어집 1질(11권 W63,500)을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비디오(「스님, 성철 큰스님」W100,000)를 선물로 드립니다.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 팩스: (02)737-0696

80화엄-60화엄 '한눈에 비교'

우진스님 '二本 한글화엄경' 펴내

원문싣고 한글-영어로 번역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
초심자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부처님이 성도한 깨달음의 나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화엄경〉의 두 한역(漢譯)본 80화엄과 60화엄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화엄경〉 번역본이 새롭게 나왔다. 〈화엄경〉 '현수품'의 원문을 싣고 이를 한글과 영어로 번역한 〈이본(二本) 한글 화엄경〉(부다가야 刊)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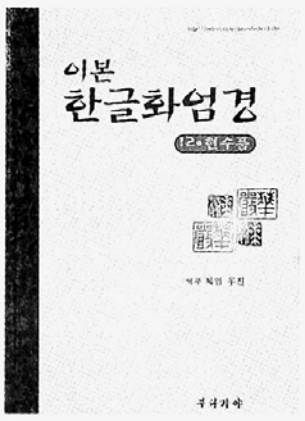
◇우진스님

저자 혜업 우진스님(통도사 승가대학 중강)은 "그동안 〈화엄경〉을 배우면서 현담이 가져다 주는 난해함과 어려운 교학서의 해설로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화엄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에서 3년을 넘게 준비한 끝에 이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라고 발간의미를 설명했다.

〈화엄경〉 한역에는 6본이 있으나 지금은 80화엄 60화엄 40화엄 3본만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 책은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과 동진의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가 번역한 60화엄의 동일한 내용을 같은 장의 좌우면에 배치해 비교해 봄으로써 경전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80화엄에는 원문에 한글과 영문번역을 함께 해놓고 있으며, 각 면마다 어려운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어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전의 이같은 편집방법은 처음이라는 것이 출판사측의 얘기다. 영문번역은 미국인 토마스 클리어리가 맡았다.

"80화엄과 60화엄을 비교해보면 단어



선택은 물론 문장의 뉘앙스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게송은 80화엄에는 있는데 60화엄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60화엄에 나오는 말을 80화엄에 나오는 말로 잘못쓰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책 발간과 동시에 인터넷에 올린 것도 출판에서는 보기 드문 일. "한문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고 요즘세대들에게 영어를 통한 이해가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영문번역을 해놓았듯이, 대부분이 컴퓨터통신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을 통해 화엄의 세계를 알리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세계화에도 다소나마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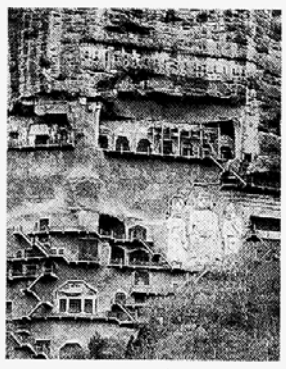
〈이본 한글 화엄경〉 내용이 들어 있는 홈페이지 주소는 http//net-in.co.kr/sovin/index.html. 이 홈페이지는 내달초엔 통도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화엄경〉 '정행품' '보살문명품' 등도 모두 올릴 예정이다.

우진스님은 96년 펴냈던 〈이본기신론(二本起信論)〉을 양나라 진제스님의 역(譯)과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의 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진제스님의 역을 영역(英譯)해 〈이본 한글화엄경〉과 함께 펴냈다.

한명우 기자

'황허의 물은…' '실크로드를 건너…'

김찬삼씨 중국기행 2권 '눈길'



◇1953년 발견된 '숨겨진 불교유적' 마이지산석굴. 7천여개의 소상과 석상, 벽화 등이 남아 있다.

4~5미터나 되는 청룡, 적룡이 그대로 날아갈 것처럼 새겨져 있는 카이펑 상국사의 현관은 감탄의 서곡에 불과했다. 룽먼과 둔황석굴 등 중국인의 숨결과 문화는 그대로가 부처님의 세계인듯 다가온다.

김찬삼씨가 92년 3월부터 1년여간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전대륙을 여행하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한 〈황허의 물은 천상에서 흐르고〉와 〈실크로드를 건너 히말라야를 넘다〉(디자인하우스 刊) 두 권의 책은 찬란한 중국불교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중국 위해(威海)에 첫발을 들여놓으면서 시작된 답사내용을 산등성 중원 둔황 신장성 등 크게 네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들 지역의 문화유적을 통해 중국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달마다사가 면벽 9년만에 도를 깨쳤다는 중국 선종의 발상지 소림사와 중국최초의 사찰 백마사를 지나 다다른 곳 룽먼석굴. 최대의 석굴 봉선사 대불과 신라인의 자취가 서린 신라굴 등을 둘러보며 저자는 불교조각예술의 정수를 울칼라로 전한다.

텐수이(天水)에서 남동쪽으로 4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숨겨진 불교유적' 마이지산석굴에서는 제각기 얼굴표정이 다른 천불랑(天佛廊)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실크로드를 건너 히말라야를 넘다〉는 첫장부터 동아시아 불교예술이 시작됐다는 모가오 굴의 모습을 펼쳐보이고 있다. 4백92개의 굴에 2천4백여개의 채색소상(彩色塑像)과 4만5천제곱미터의 벽화가 남아있어 '세계 최대의 화랑'임을 실감케한다. 텐산산맥의 동쪽 끝 지점 투루판분지 인근 베제클리크 천불동에서 저자는 훼손된 불교유적의 아쉬움을 전한다.

기행문 형식의 이 책은 앞부분에 칼라화보와 함께 증간중간 유물사진과 일정을 나타낸 여행지도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의 이해를 돕고 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진흥원, 청정운동 백서 발간



청정운동추진위원회의 95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청정운동' 전개과정과 '청정운동실천전국대회'를 통해 발표됐던 주제강연을 종합 정리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발간했다.

백서형식의 이 책은 각 지역 청정운동실천대회의 주제 및 행사내용, 활동사항을 담은 사진과 함께 '청정운동은 오계정신의 확대에서'(정병조·동국대 부총장) '청정운동 추진의 당위성과 전개방향'(강건기·전북불교대 교수)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청정법계'(고은·시인) 등 모두 15편의 주제강연문이 실려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율 순	신 우 당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4	팔만대장경에 숨어있는 108가지 이야기	진 현 종	혜 윰
5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6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7	설법 그 이론과 실제	정 순 일	민 족 사
8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9	금강경대강좌	이 제 열	여시아문
10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인회	불교방송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길을 찾아서**=저자 최민자교수(성신여대)는 "원효대사는 손가락에 의지해 손가락을 여읜 달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언설(言說)에 의지해 언어가 끊어진 법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서문에서 적고 있다. 삶과 사회의 실재와 유리된 위험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드러나 있다. 〈까치 8천원〉



▲**우리 옛글 백가지**=현암사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시리즈의 열두번째 책. 이순신 김시습 박지원 영조대왕 등 고려, 조선시대 명사들의 삶의 지혜와 정담이 가득한 명문 1백편을 엄선, 선조들의 가치관과 삶은 어떠했는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제문(祭文)에서부터 가벼운 수필, 상소문, 기행문, 묘지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르가 망라돼 있다. 〈현암사 9천8백원〉



▲**테오의 여행**=세계의 종교와 문화를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14살 소년 테오가 세계의 성지를 여행하면서 새롭고 신기한 것을 통해 세상에 대한 넓은 시각과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의 본질을 배운다는 줄거리. 〈동문선 6천원〉



▲**흥어**=지난 여름 계간지 〈작가세계〉에 중편으로 발표됐던 김주영씨의 장편소설. 중견작가 김주영씨가 10년만에 발표한 이 소설은 13세 소년을 화자로 내세워 아버지의 부재와 궁핍한 생활,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생명력을 눈싸인 시골배경에 접목시켜 한 폭의 흑백사진을 연상케 한다. 〈문이당 8천원〉

동아시아의 전통철학 | 주칠성외 지음

한·중·일 전통사상 주제별 비교연구



중국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 교수들이 쓴 '중국·조선·일본 전통철학 비교연구' 중국어관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번역한 〈동아시아의 전통철학〉이 나왔다. 이 책은 불교 도교 유학 주자학 양명학 실학에 대한 삼국의 차이점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는 민족적이고 국가적이라는 단일성과 유교 도교와 함께 섞인 통합성을, 중국불교는 과장과 엄격한 계율요구로 인한 정통적 지위획득의 실패, 일본불교는 역대의 통치자들이 불교를 적극 육성하면서 이를 이용해 국가의 의식형태를 이룬 '국가화'라는 특징이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예문서원 1만3천원〉

화제의 책

인생을 건너는… | 구보순료 지음

경전이야기 통해 마음의 피로 풀기



"작장일에 지쳐있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없어 쓸쓸합니까." 삶이 괴롭고 힘들때 펼쳐보는 불교의 지혜를 담은 〈인생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나왔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진실한 마음의 풍요로움을 만났을 때.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저자 구보순료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권한다.

'인생을 되돌아보고 싶은 분께' '인간관계로 괴로워하는 분께' 등 모두 9개 주제아래 이와 관계된 68편의 불교경전 이야기를 제시하고 각 이야기 끝마다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자리' 코너를 마련, 마음자리를 제시해 놓고 있다. 〈도서출판 일출 6천5백원〉

화제의 책

우리는 영원히… | 김영우 지음

전생요법 신체·정신질환 임상사례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는 96년 〈전생여행〉을 출간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영우씨의 두번째 작품. 만성 우울증, 폐소공포증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전생요법으로 치유해낸 새로운 임상사례를 공개하면서, 과학도로서의 윤회에 대한 견해를 풀어내고 있다.

제1장 임상사례에 이어 질문자와 원장의 답변형식을 빌린 2장 '지혜의 목소리'와 3장 '영혼의 친구:소울메이트'에서 김원장의 불교사상이 짙게 드러나고 있다. 〈정신세계사 7천5백원〉

마음 맑히는 책들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큰스님/법어/모음집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0쪽
값 7,000원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마음 맑히는 책들 ②

삶은 苦가 아니다

삶의 혁경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행/스님/법어집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값 6,000원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을 위한 경전 공부 ①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팔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가다가 산이 막히면 넘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망과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般若船)로 건너고 금강의 칼(金剛劍)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요, 금강의 칼,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게이다.

— 본문 중에서 —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0695 (영업부), 737-0691(편집부) 팩스 : (02) 737-0696

학술초점

선전연구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 28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 스님) 제1차 선전연구 발표회가 28일 오전 10시 서울 법련사 불일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보조의 삼종문의 성격에 관하여(최연식 · 서울대 국사학과) △종밀의 사상과 비교(이병욱 · 고려대 철학과) △돈오점수의 철학적 기초(이창구 · 전북대 철학과) △보조의 간화선 문제(박영제 · 서울대 국사학과) △보조의 회통철학(인경스님 · 동국대 선학과) 등의 논문 발표를 통해 21세기 한국선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학술단신

선무학회 회지 발간

한국선무학회(회장 김 철) 학회지 제7집이 28일 발간된다. 국제 학술교류를 위해 영문판으로 발간되는 이번 학회지에는 동국대 김용표 교수의 '공의 단정법적 논리와 명상수행-중관학파 입장에서'를 비롯 선체육 · 선무용 · 선미술 등 선 관련 논문이 수록될 예정이다.

동국대학원 연구논집

동국대 대학원 연구논집 제27호가 발간됐다. 이번 연구논집에는 △천태지의의 정토수행 연구(김은희 · 불교학과) △편정오위(偏正五位)의 고찰(김호귀 · 선학과) 등 인문과학분야 논문 5편을 비롯 97년 발표된 총 27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위덕대 출판부 설립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는 2일 대학본부 부속기관으로 출판부를 신설하고 경주시청에 등록을 마쳤다. 학술연구성과물의 출판 및 교양 · 전공서적 출판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0561)760-1026

보존과학 학술발표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회장 김유선)는 20일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에서 정기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석조문화재의 보존대책에 관한 고찰〉 〈환경오염에 따른 문화재 보존〉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역경 제대로 하려면 티벳-팔리어 연구선행"

한문대장경 그대로 한글화 '오역우려'

"범어원전 직역 한글대장경 보완해야"

전재성씨 주장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당시의 원음으로 알기 위해서는 티벳어와 팔리어 연구 등 언어학적 측면의 역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 전재성씨는 '현존 대장경에서의 역경의 문제점'이란 제하의 논고(論考)를 통해 "범어와 티벳어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범어문헌의 연구를 위해서는 티벳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는 티벳어나 팔리어 연구를 통한 범어원전 역경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회장에 따르면 한문대장경이 범어에 능통한 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부처님 당시의 언어적 감각으로 번역된 것이나 오류가 없는 완전무결한 성전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 따라서 한역 대장경을 바탕으로 번역할 경우 그 과정에서 오역(誤譯)된 내용을 그대로 한글화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회장은 그 쉬운 예로 '아라한(阿羅漢 : Arhant)'의 해석을 들었다.

아라한은 어근 √arh '가치있다, 능력있다, 할 수 있다'는 동사의 현재분사형이 명사화된 것으로 중국에서 번역될 때에 '아라한'으로 음사되거나 '공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분'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반열반경〉 〈법화경소〉 〈아미타경소〉 등에서는 '(번뇌라는) 적을 죽이는 자'의 의미인 '살적(殺敵 = 怨敵)'으로 잘못 번역돼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범어 Arhant에 쁘라끄리띠어(=범어의 속어) 문법을 적용해 Arihant로 잘못 분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즉 Ari는 '적'이란 뜻이고 hant는 '죽이는'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서 나온 오역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불소행찬 · 佛所行讚〉의 경우 담무참(曇無讖)의 한역은 부처님의 탄생을 '점차적으로 모태에서 출생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점차적으로'에 해당하는 범어 kramena가 '적시에, 올바른 때에'란 뜻의 부사로 고대 인도문헌에서 쓰이고 있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 전씨는 "19세기말 20세기초, 세계 각국에서 번역된 경전들도 번역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번역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근세에 번역된 경전들은 원천언어의 형식을 중요시하여 원문의 문체상의 특징을 번역문에 그대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씨는 "대승경전 역경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오류는 번역이 '문법'이라는 언어학적인 이해와 '내용'이라는 해석학적인 이해의 정합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교학의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고 비교, 번역하기 위해서는 티벳어를 비롯 많은 언어를 습득해 문법과 해석의 정합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올해 말 동국대 역경원이 〈한글대장경〉의 완간을 앞두고 있어 역경사업의 보완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1965년 〈장아함경〉의 번역을 시작으로 총 280권이 간행되는 대장경의 '한글화' 작업은 불경이 어려운 한문의 굴레를 벗지 못해 대중과 괴리돼온 점에서 한국불교사에 큰 획을 긋는 대불사(大佛事)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한문경전이 한글로 편찬되는 과정에서 뜻글자(표의문자)와 소리문자(표음문자)라는 언어구조상의 차이로 본래의 의미에서 다소 벗어난 번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대해 역경원 최철환 출판부장은 "최대한 한역 대장경의 오역부분을 수정하면서 번역하고 있으나 〈한글대장경〉 완간 후에도 보완작업은 계속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역경원장 월운스님도 "잘못된 번역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도(誤導)한다면 오히려 지혜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며 "만약 범어원전의 직역이 이뤄질 경우 한역 대장경의 오역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전 해석상의 오류가 충분히 극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팔리어나 티벳어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점과 범어원전의 대부분이 소실된 점을 지적하며 월운스님은 "범어원전이 직역된다면 한역 〈한글대장경〉과 비교할 수 있게되고 최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 역경사업의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여시아문' 이해 노장적 세계관"

허인섭씨 '금강경 오가해에 나타난…' 발표



"〈금강경 오가해〉에 나타난 혜능과 야부의 주석에서 그들은 아(我 · Atman)를 세계의 중심으로 파악하며 본질주의적 자아 개념을 개입시키고 있다."

허인섭씨(연세대 철학과 강사)는 14일 한국종교학회 학술발표회에서 '금강경 오가해(五家解)에 나타난 혜능(慧能: 638~713)과 야부(冶父)의 여시아문(如是我聞) 주석의 문제점 고찰'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불교가 형이상학적인 아트만의 개념을 비판한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도가적 존재론에 보다 더 근접해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

허씨는 "부처님의 설법을 그대로 전한다는 형식적 도입구절인 '여시아문'에 대해 혜능과 야부는 노장적 세계관을 적용, 오히려 복잡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불교가 인도불교를 그대로 수용했다기보다는 철저히 노장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도가와 불가가 인간의 개념적 사고의 한계를 인지한 것으로 보는 평가에 대해 허씨는 "그들의 세계 이해 또는 이상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는 명백하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도가가 대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주관과 객관의 합일을 강조한 반면, 불교는 인간의 인식론적 조건 또는 인식기능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고통을 분석하고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92년 등재된 앙코르와트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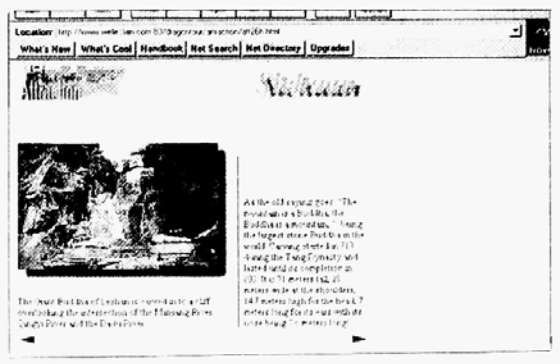
앙코르와트 선사유적 발견

美 항공우주국, 저수지 · 운하 등 흔적찾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 사원. 최근 첨단 장비의 도움으로 그 신비의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특수레이더 장비로 항공촬영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한 결과 역사에 기재된 앙코르왕국(657~1432)보다 훨씬 이전의 앙코르문명 흔적이 드러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영국 런던대 고고학자 엘리자베스 무어교수는 "앙코르문명은 현재의 사원이 대표적이지만 물관리와 관계된 저수지 운하 등 방대한 건축물에도 그들의 위대함이 있는 것으로 레이더 탐사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명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앙코르와트 사원 25㎞지점으로 NASA측은 축구장만한 크기의 선사시대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드래곤 여행

구화산 등 중국불교 4대성지 「감상」

중국불교의 성지로 꼽히는 4대 명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이트로 산서성의 오대산, 절강성의 보타산, 사천성의 아미산, 안휘성의 구화산 등 중국의 관광명소 31곳의 역사 · 유적 · 연구논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보현보살을 모신 불교 성지인 아미산은 3천99m에 달하는 거봉에 1백여개의 사찰이 은거해 있다. 아미산의 불교유적중 낙산에 위치한 낙산좌불이 단연 으뜸. 강을 낀 절벽을 깎아 만든 석불로 세계에서 가장 크며 조성에만도 90여년이 소요됐다. 낙산좌불 이외에도 ▲아미산 ▲아미산의 원숭이와 설경 ▲아미파의 무공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아흔아홉 봉우리를 자랑하는 구화산은 9세기 말엽부터 지장보살을 모신곳. 현재 50여개 사찰과 6천여개의 불상이 보존되어 흥성했던 불교의 자취를 보여주는 곳이다. ▲구화산 축제 ▲구화산 ▲안휘성 등의 사진을 볼 수 있다.

산서성의 북쪽에 있는 명산이며 청량산으로도 불리는 오대산(3천58m)은 문수보살을 모신 중국불교 성지로 수많은 사찰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번성해 왔다. 기멜로교수(美 아리조나대학)의 논문 ▲'산서성 오대산의 세월하산(歲月河山)'을 비롯해 ▲오대산 해돋이와 석양 전경 사진을 열람할 수 있다.

보타산은 858년 관음보살의 응화, 설법지로 알려지면서 보제사, 법우사, 혜제사 등 성지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절강성과 서호 ▲보타산 ▲혜제사 등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http://www.welleslian.com/dragontour/attraction/

국제소식

스리랑카 불교유적 테러불구 관광객 늘어

스리랑카 캔디시(市)의 관광업이 타밀의 무력조직 타밀엘람 호랑이의 폭탄테러에도 불구하고 성업을 이루고 있다.

스리랑카 관광평의회 의장 사마라나야크(Samaranayake)는 "캔디시의 관광업은 지난달 25일 타밀엘람호랑이의 폭탄테러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0%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캔디지역은 해발 4백88m에 위치한 고도로 불교유적과 사원 등이 밀집한 지역. 캔디시의 역사적인 건물로는 석가모니의 치아라고 추앙받는 신성한 유물이 소장된 달라다 말리기바 사원 등이 있다.

대만機 추락현장 스님들 수습앞장

대만의 스님들이 16일 추락한 여객기 탑승자 시신을 수습하고 탑승객 유가족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고 수습에 참여한 스님들은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고지점으로 달려와 탑승자 시신을 수습하고 불타고 있는 비행기 잔해와 건물들을 진화했다는 것.

또 사고 여객기 유가족이 추락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제단을 만들어 위령제를 지내고, 유가족들이 차분히 DNA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DNA 검사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시신의 신원 확인자료로 사용된다.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 · 탑 · 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 · 대적광전 · 극락전 · 미륵전 · 관음전 · 명부전 · 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 · 불화 · 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11]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 · 천수관음 · 십일면관음 · 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 · 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 · 관음염불 · 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 · 봉 · 대 · 선 · 사 · 일 · 대 · 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자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41

위산의 불씨

선은 부정의 변증법을 방법적 도구로 한다. 물론 그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을 욕망과 두려움의 흔적없이 "있는 그대로(진여)" 파지하는 것이다. 선의 구도는 그렇다면 싱겁기 이를데 없다. 선이 복잡하고 황당해보이는 이유를 크게 둘로 잡을 수 있겠다 싶다. 하나는 오랜 무명의 훈습에 의해 "있는 그대로"가 아주 심하게 왜곡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실상은 워낙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어 다루기가 아주 미끄럽다. 또 하나는 이같은 방법적 부정을 거쳐 "있는 그대로"를 구현하는 양상이 신출귀몰의 다기한 활발발(活潑潑)을 연출하는데 있다.

선의 거장들은 이 두 문제를 다룸에 있어 독특한 개성을 자랑한다. 그 가운데 위산과 앙산에 의해 진작된 종풍은 잔잔하면서 속깊은 강의 흐름을 갖고 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백장(百丈 720~814)의 청규(淸規)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선은 이같은 엄정한 규율과 지침을 필요로 할 정도로 확장되고 있었다. 백장은 늘어난 신도들을 위해 대위산에 분원을 세우고자 했다. 백장은 영우(靈祐)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고참인 화림이 이의를 제기했다. 백장은 공개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시험문제는 물통이었다. "이것은 물통이 아니다. 무어라 부르겠는가." 화림이 대답했다. "그렇다고 말뚝이라 부르겠습니까." 백장이 이번에는 영우를 돌아보았다. 영우는 물통을 조용히 엎어 놓고 방을 나갔다. 이 답안이 백장의 마음에 꼭 들었다. 이리하여 영우는 일천오백의 대중을 거느린 대위산의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위산 영우라 불린다. 이 산은 원래 험준하여 인적이 끊긴 곳이었다. 처음 위산의 영우는 원숭이떼를 벗삼아 도토리와 밤을 주워 살았는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와 절을 지어주었다. 대장군 이경양(李景讓)이 황제께 아뢰어 동경사(同慶寺)라 했고 정승인 배휴(裵休)가 찾아와 현묘한 진리를 물었다. 이로부터 천하의 선객들이 이리로 몰려들었다.



그림 · 이준석

영우는 북주 사람으로 15세에 부모를 떠나 출가하여 처음 대소승의 법을 닦았다 한다. 23세에 강서(江西)의 백장을 만났는데 백장은 첫눈에 그릇임을 알아보았다. 어느 겨울 백장과 영우가 화로를 마주하고 둘러앉았다. "어디 불씨가 없는지 찾아보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백장은 몸소 재를 뒤적여 조그만 불씨를 찾아냈다. "이건 불씨가 아닌가?" 영우는 이 말에 뒤통수를 맞고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렸다.

과연 우리의 진정한 불성, 영혼의 불씨는 어디에 있는가. 선사들이 공통으로 일러주는 바로는 거기에 이르는 확인된 지도는 없다. 그것은 지적 관념의 작업으로 도달될 수 없는, 즉 "문이 없는" 내적 지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당하고 파격적인 수련방식이 선의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비상한 용기와 준비 없이는 일상적 사고습관의 끈질긴 관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은산철벽의 절망이 선장들의 노파심을 촉구했다.

그 노파심의 표출양상은 다양하다. 논리적 언어를 통해 설득하기도 하고 시적 비유를 통해 암시하기도 한다. 앞의 사구백비는 전자의 경우이고 무문의 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어쨌거나 온건한 축이다. 과격한 스타일은 언어를 던져두고 행동으로 들어간다. 멱살을 드잡기도 하고 몽둥이나 고함으로 내려치기도 한다. 위양의 종풍은 온건하고 치밀하다. 부드러운 표현과 화락한 거래 속에서 선의 핵심을 빠짐없이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형적 예화를 두가지만 소개한다.

여름 안거가 끝난 후 앙산은 스승 위산을 찾았다. "한 여름 내내 보지 못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땅을 좀 갈아서 수수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을 헛되이 보내진 않았군 그래." "스승님께서는 무얼 하고 지내셨습니까." "나야 하루 한끼 먹고 밤에는 잤지." 앙산은 이렇게 응답했다. "스승님도 여름을 헛되이 보내진 않으셨군요."

하루는 위산이 설핏 낮잠이 들었다. 앙산의 방문고리 소리에 깼지만 내색을 않고 벽쪽으로 돌아누웠다. "저는 스승님의 제자입니다. 어째서 낯선 사람 대하듯 격식을 차리십니까." 잠이 그제서야 깬 것처럼 위산이 몸을 뒤척였다. 앙산이 방을 나가려 하자 위산이 불러세웠다. "막 꿈을 꾸고 있던 참이네. 무슨 꿈인지 들어볼텐가." 앙산은 자세히 듣겠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위산이 입을 열다 말고 이렇게 주문했다. "자네가 어디 한번 맞추어 보게나." 앙산은 말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물담은 세수대야에 수건을 들고 들어왔다. 세수를 마친 위산이 자리를 고쳐앉을 관인데 향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위산이 말했다. "우린 지금 기적을 연출하고 있는 중이었지. 이만저만한 기적이 아니야." "제가 비록 저 아래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세" 하고 자리를 고쳐잡았다. 향엄은 나가서 차를 한잔 받쳐들고 왔다. 위산은 파안했다. "너희들의 지혜와 신통은 사리불(舍利弗 Sariputra)과 목련(目連 Maudgalyayana)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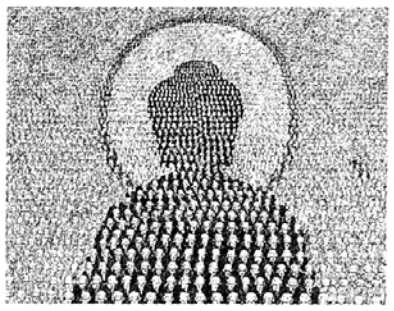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영혼의 불씨는 어디 있을까

"일상적 습관 벗어나 있는 그대로 보라"

法數로 배우는 불교

〈51·끝〉



◇허허당 향훈 스님의 화엄법계도.

헤아릴수 없이 많은 법수 상징
數 이전 본분자리 찾는게 참뜻

불경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효나 숫자를 나타낼 때 백, 천, 만, 억과 같은 단위로써 수의 양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아승기(Asemkiya) 또는 갠지즈강의 모래수와 같은 단위로써 숫자의 양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승기나 갠지즈강의 모래수는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셈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수효의 숫자단위이기 때문에 무수, 무량대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셈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처럼 흔히 쓰이는 숫자로 '팔만사천'이라는 단위가 있다. 팔만사천 법문, 팔만사천

팔만사천법수

번뇌, 팔만사천 국토, 팔만사천 다라니, 팔만사천 불보살, 팔만사천 방편, 팔만사천 중생, 팔만사천 겁, 팔만사천 지옥, 팔만사천 신장, 팔만사천 상호, 팔만사천 삭가라수, 팔만사천 청정보목, 팔만사천 모타라비, 팔만사천 세, 팔만사천 마군, 팔만사천 광명, 팔만사천 삼매, 팔만사천 유순 등에 나오는 팔만사천이라는 숫자는 셈할 수 있는 뚜렷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병이 많으면 그만큼 의사도 많고 약도 많고 처방도 많다. 중생의 번뇌가 한량없으므로 부처도 많고 법문도 많고 방편도 많은 것이다.

생각해보면 팔만사천으로 표현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효의 불교용어들은 모두 현재 무명속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것이다. 진실한 부처님에게는 몸도 없고 설할 법도 없다고 한다. 다만 중생을 위해서 자비로 몸과 법을 나타냈을 뿐이다. 일체의 분별을 떠난 것이 부처님의 세계이건만 짐짓 중생들의 번뇌의 병, 병사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몸을 보이고 법을 말하므로써 수많은 용어도, 숫자도 나오게 된 것이다. 부처님은 법을 설하심에 있어 부처님 자신편에 서서 법을 설하시지 않고 항상 중생 편에 서서 법을 설하셨다. 그러므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 그 법문이 나 자신을 향해 설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팔만사천 뒤에 나오는 어떠한 용어도 그것은 모두 부처님이 중생으로 처해있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세우고 계신 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제호 '법수로 배우는 불교'는 이것으로 마지막이 된다. 짧은 식견과 부족한 필력으로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법수용어를 설명함에 있어 필자는 기존 자료나 문헌에 근거하지 않고 독자들의 신심과 수행에 초점을 두고 이해시키려 했다. 그러다보니 어느 독자로부터 어느 주제는 법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는 힐책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관단에 미루어두고 싶다. 〈대명법수〉라는 책에 나오는 것만이 법수라거나, 법의 뜻이 안 들어 있으므로 법수가 될 수 없다거나, 49재를 칠칠재로 써야만 된다는 식의 논리는 너무 틀에 박힌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경 율 론 삼장을 포함해서 정법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불교의 숫자는 법수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어떤 숫자가 되었건 그 숫자 속에는 반드시 법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법수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대명법수〉라는 문헌에 들어있는 1천6백여 단어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들어 있는 불교용어는 법수로 여겨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 의미에서 법수 또한 팔만사천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의미 없고 뜻이 없는 말과 숫자는 하시지도 쓰시지도 않으셨다.

말을 통해서 말이 끊어진 경지에 들고 숫자를 의지해서 숫자로 갈라지기 이전의 본분자리를 찾는 것이 불교의 원래 취지이다.

그동안 부족한 내용 애독해주신 독자들께 감사드린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49

불교와 수학 44

호과 0

김 용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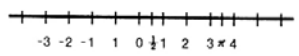
소승불교가 자신만의 대각을 강조하는데 비해 대승불교에서는 나보다 남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이타행(利他行)을 내세운 보살사상에 중심을 두고 있다. 맨 먼저 '모두 공이다(一切皆空)'가 반야경에 등장한다. 이때 공(空)의 생각이 철학화된다. 그것을 대성한 사람은 용수(龍樹)보살이며 그의 저서 〈중론(中論)〉이 잘 알려져 있다.

'연기'를 공의 입장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공(空)사상이 불교를 인도종고에서 세계종교로 비약시켰다. 그것은 마치 수학에 있어서의 '영(0)'의 개념이 인도에서 발견되어 아라비아를 통해 서구에 전해짐으로써 수학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온 것과 같다. 고대 수학은 문명이 있는 곳에서 발달되었다.

중국에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 百, 千, 万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처럼 바빌로니아, 이집트, 희랍, 인도… 각 문명권마다 고유의 숫자가 있었다. 이것이 영(0)이 발견됨으로써 1, 2, 3…8, 9, 0 열 개의 숫자로 통일되어 수학은 저마다의 문명권을 벗어나 세계수학으로 비약하고 오늘날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었다. 같은 인도에서 나온 철학으로써 공(空)의 사상과 수학의 영(零)이 함께 세계로 비약한 것이다.

공과 영의 공통점은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것, 즉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는 철학적인 신념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2, 3…과 같은 것은 한 개의 돌멩이, 두 개의 사과, 세 사람과 같은 구체적인 갯수로 생각되는 개념이다. 몇 개로 구성된 물체의 모임에서 수를 추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미부여
인도서 나와 세계적으로 발전



문명권에 따라서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지닌 수의 개념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뜻에서 1, 2, 3…과 같이 물건의 갯수를 나타내는 숫자를 자연수라고 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수로서 받아 들인 데는 '없는 것이 있다'는 의지적인 순수사유를 통해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후 수의 세계는 자연수의 틀을 벗어나 크게 발전해 갔다. 1과 2사이에도 수가 있다.

즉 $\frac{1}{2}$, $\frac{1}{3}$…과 같은 분수가 나오고 복잡한 원주률 π와 같은 수도 나온 것이다. 0이 있음으로써 1, 2, 3…에 대해서 반대되는 -1, -2, -3…과 같은 음수도 나오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필요한 수를 만들어 냈다. 지금까지 설명한 수는 실수로써 모두가 수직선상에 나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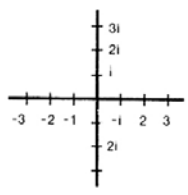
불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다.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생활을 지배하는 마음 세계를 중시한다.

일단 공(空)의 철학은 중심에 두게 되면 그것에서 파생하는 물질과 마음의 세계를 하나의 눈으로 보는 관점에 서게 된다. 유식론(唯識論), 구사론(俱舍論) 등 마음의 세계, 인식의 방법을 정밀하게 파헤친 불교 철학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학에서도 0의 발견은 그후 보이지 않는 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곧 복소수 세계의 등장이다. 복소수는 $\sqrt{-1}$을 단위로 하며 제곱을 하면 -1이 되는 수이다. 즉 $(\sqrt{-1})^2=-1$, 이때 $\sqrt{-1}=i$로 표시한다. 이것은 실수선상에 있지 않는 수이다. 그래서 $\sqrt{-1}$을 단위로 하는 또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선이 필요해졌다.

수직선과 0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또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선과 합해서 생긴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한다.



i는 보통 수와는 달리 크기가 없다. 따라서 i를 곱해서 만든 수를 허수(虛數)라고 한다. 실수에 대한 가짜의 수라는 뜻을 품고 있다.

상식적으로 2i와 3i를 보면 3i가 큰 것 같은데 허수 세계에서는 비교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대단한 의미를 지니며 요즘 수학에서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마음세계의 일이 물리적인 양과는 달리 비교할 수 없으나 마음가짐이 현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과도 같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특보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우환과 액운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 출세를안겨주는
신비로운 민간요법

명당자리 氣 요법

· 제조원 : 이명무 오링테스트 연구회
· 판매원 : 기원정사 천도원(세정개발 주식회사)
· 주 문 : ☎ 052) 223-0491~2
☎ 052) 249-8751

◆우울증, 치매, 정신병, 간질, 근무력증, 만성피로, 원인불명질환, 중풍, 언어장애, 난청이명, 불면 증, 불임증, 당뇨병, 축농증등 현대의학으로 치료 안되는 환자, 사업실패, 불운,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기타 우환과 액운이 따르는 사람에게 권합니다.

명당자리 요법이란?

▶ 묘지요법 (영혼천도 및 묘지 명당 만드는 법)
▶ 유해전자파 중화요법 ▶ 꿈질 및 목욕요법 등

현대 의학과 민간요법을 조화시켜 종합적으로 대처함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킨 합리적인 요법이다.

특히,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만성병, 불치의병, 원인 불명의 질환이 거의 대부분 조상의 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명무 약사가 오링 테스트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확인하여 임상적으로 증명하였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종합적인 명당자리 요법을 통하여 정신병 환자가 호전 반응을 일으키고 치매, 신근 경색증 환자가 양호한 상태로 변화되는 등 실제 임상을 통하여 입증시킨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의학계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상표등록출원 23461호

도자기



▲ 조상을 편히 모셔드리는 명당도자기

자매품



★ 명당컵
① 명당컵을 TV위에 올려 놓거나 전자렌지, 냉장고 안에 넣어 두면 신비로운 氣의 작용에 의해서 유해전자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명당컵에 물을 담으면 건강수가 되고, 그 물을 이용하여 꿈질 및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되어 피로회복은 물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 묘지 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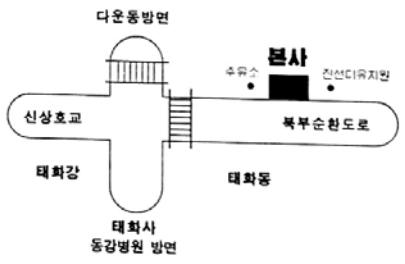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하여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명무 약사가 세계 최초로 연구하여 조상의 묘가 잘못되면 실제로 그 후손이 나쁜 기를 받아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사업실패, 영업부진, 불운과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기타 예고없는 사고등 액운이 따르므로 이런 사람은 지체없이 고인의 묘지에 명당 도자기를 묻어 주거나 유골을 모시면 고통받는 영혼이 완전히 편안한 영혼으로 변화되어 후손들의 질병도 치료되고 당대 발복하여 행운이 따라와서 출세를 누릴 수 있는 불가사의한 치료법이다.(특히, 객사죽음, 화장한 영혼은 한이 많은 영혼이라서 천도가 잘 안되지만 명당도자기 요법으로 100% 천도가 됨)
유해 전자파 중화요법, 꿈질 및 목욕요법, 건강 식품 요법 등은 위 상품란에 참고 하시고 상세한 것은 전화 문의나 시중 서점에서 이명무 지음「신비의 오링테스트와 명당자리 기요법」을 구입해 참조 하시기 바람.

전국 시·군·사찰지사 모집

◐「남여 불문 선착순 계약」

주변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신도가 없는지?
갖은 노력을 해도 실패만 거듭하는 신도는 없습니까?
스님들을 통해서 그 효력이 100% 발휘되는
명당자기 기요법!! 놀랍고 불가사의한 비전!
신비로운 작용, 그 전부 입니다.

● 「불황에도 투자액의 배액이 보장된다.」
● 독점 품목이다.
● 투자에 대한 위험이 없다.
● 신도들의 서원을 100% 충족시킨다.
● 간편한 방법으로 영가 천도는 반드시 된다.



※ 불가비법 원법(圓法) 접수함.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길러준다. 'IMF시대'라는 상황에 그늘져버린 사회의 고통을 벗어나 자신을 들여다 보는 수련생들의 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참회하며 지금까지보다는 더 나은 삶의 자세를 다짐한다.



◇한 톨의 밥짜꺼기도 버리지 않는 청정 식사의식. 검소한 삶이 강조되는 요즘 '발우공양' 정신이 사회전체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구원은 오직 내 마음 속에만…"

길상사
직장인 禪수련회

길상사 설법전에 모인 60명의 수련생들 마음의 때를 씻고있다

낭비·무절제했던 생활 발우공양 통해 반성하고, 주인공 찾는 108참회 하루 8시간의 좌선 환희심이 밀려온다

"원하옵나니 가슴마다 보리 씨앗을…"

14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 60명의 수련생들이 삶에 지친 마음의 때를 씻고 있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인가. 누구나 열심히 살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던가.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동경이 일고 산사에 대한 그리움이 그만큼 커졌을 것이다.

김홍근씨(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는 아직까지 불교를 책으로만 접한 초심자. 바른 생활중에서도 참선과 명상을 '흉내' 내면서 언젠가 산사의 수련대회에 참가해 보겠다는 생각속에 시절인연이 닿기만 기다려왔다. 더구나 IMF시대를 맞아 얼어붙은 사회분위기에 주눅든 마음을 녹이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길상사 직장인 선수련회에 참가했다.

길상사 일주문에 들어서자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잡념없이 수행에 흠뻑 젖어들것만 같았다. 평상복을 벗고 회색 수련복으로 갈아입으니 세상고민에서 벗어날 것같다는 기대감이 가슴을 설레게 한다.

오후 3시 입제식. "원하옵나니 수련회 동참자들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가슴마다 보리의 씨앗을 심어 성불의 열매를 맺도록 하옵소서…" 수련생 발원문이 낭독되면서 아침 3시 기상, 아침·저녁예불과 108배, 울력및 발우공양, 이어지는 8~9시간의 좌선, 10시 취침. 초심자들에겐 만만찮은 역정인 2박3일의 직장인을 위한 선(禪)수련회가 한치도 빈틈없이 꽉짜여진 일과표에 따라 시작됐다.

산사에 들어오면 처음 배우는 것이 발우공양.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면서 설거지물인 청수까지도 깨끗하기 그지없다는 공양법은 불교의 깊은 사상이 함축돼 있다. 그런만큼 수련생들의 감동도 크다. 사회에선 얼마나 낭비하고 무절제했던가.

오후 6시, 세상이 점차 어둠에 묻히며 무거운 범종소리가 하늘을 가른다. 저녁예불시간. 오체투지를 하고 불경을 봉독한다. 모두 서있는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시간이다. 예불에 이어 설법전에서 108배 참회정진에 들어갔다. 수없는 업드림이 이어지지만 이는 내마음의 주인공을 존경하는 표현이다. 한번이라도 빠먹을 수는 없다. 인생이 그렇듯이.

잠깐의 휴식은 새로운 시작에의 동경. 좌선시간이 이어진다. 입승을 맡은 덕조스님은 좌선에 앞서 "마음자리는 보석과 같은데 망상 번뇌라는 도둑이 노리고 있어 한눈팔면 훔쳐가니 잘 단속하십시오. 좌선에서 시선은 내면을 응시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딱 딱 딱' 선방엔 죽비소리가 정적을 깨고 지도법사 덕문스님도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연다. "일생 일대사를 여기서 아예 끝내십시오." 김씨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가슴에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스님의 절실한 마음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는 듯하다.

비장한 얼굴로 좌선에 들었지만 대부분의 수련생들은 초심자답게 엉덩이를 움직이고 눈꺼풀은 천근 만근이 되어 졸음과도 사투한다. 제꼽 가누기도 어려운 것이다. 방선시간에도 저린 다리를 끌고가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대열이 흐트러지고 덕조스님의 채근이 뒤따른다. "방선도 좌선의 연장입니다. 흐릿하게 해서는 안되요. 생사를 거세요." 다시 정좌한다. 김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새벽 3시 기상.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예불을 모신다. 다시 108배로 이어지고 스님은 '무엇을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무엇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발원을 하라고 힘주어 권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日日不作 日日不食)'는 백장청규 정신에 따라 모든 수련생들이 울력을 한다. 김씨는 일주문 옆에서 수북히 쌓인 목재옮기는 일을 했다. 협력의 힘은 큰 것. 울력은 화합의 힘을 주고 대중을 서서히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오전 9시, 류시화시인의 음악 명상시간. 류시인은 요간난다가 작곡한 명상음악 (Divine Gypsy, 신을 향한 여행자)를 소개. 류시인은 명상이란 '작은자아를 버리고 보다 큰 자아와 합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도 등 잔불을 쳐다보며 음악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발견한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몸을 버리고 정신을 내디뎌야 하는데.

몇시간의 좌선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좌선시간이 되니 이윽고 안온하고 청정한 공기가 수련방을 감미롭게 감싼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했던가. 책으로만 공부해온 김씨는 불교란 삶이지 지식은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게 아니라 부딪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월요일 새벽, 2박3일을 마무리하는 회향식이 시작된다. 주지 청학스님은 법어를 통해 "참선은 정신집중이며 인식까지도 통제하는 것이지요. '현재 내가 뭘하고 있는지 계속지켜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기자신을 주시하고 순간순간 깨어있도록 노력하십시오"라며 타성에 젖어 분별심을 일으키며 사는 삶의 덧없음을 일깨워준다.

수련회가 끝났다.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려니 마음이 쉽게 동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주에 와서 청소라도 하겠단다. 일주문을 나와 하산하면서 김씨는 서둘러 집에 전화를 했다. 아! 모든 것이 잘 해결돼 있었다. '어디에도 구원은 없다' 단지 있다면 오직 내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부처님도 열반시에 아무런 가르침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가 서있는 이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나와 세계가 하나되고 우리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직장으로 향하는 김씨에게 샛별처럼 맑은 정신이 서서히 감싸들고 있었다.

글=김원우 사진=고영배 기자

직장인에게 들려주는 법정스님 법문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보면 '보시' '인욕' 크게 두가지 이지요. 모든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참는 것이지요. 그동안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들었던 간에 우리는 그 교훈대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을 낙천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고도성장의 그늘 아래서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면서 함부로 지내다 보니 민족의 에너지가 고갈된 것이지요. 그래서 IMF 시대를 맞게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에너지를 재충전 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해요.

선방에 가면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지요. '자기가 서있는 자리를 항상 살피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든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많은데 지금까지 배운 이른 가지고도 부처가 되고도 남습니다. '본다' '배운다' '익힌다' 이런 것이 종교적으로 실천안되면 불교가 아니지요.

작은 선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가지씩 행하십시요. 일상적인 행을 통해서 자기자신을 일으켜서 세워야지 그

"작은 것에 행복 숨어있어요 IMF 시대를 재충전 기회로"

렇지 않으면 자꾸 넘어져요. 우리처지를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일을 해야돼요. 우리가 '잘살았네' '못살았네' 하는 것은 하루 하루 삶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살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은 거기에 묘미가 있어요. 인류사를 볼때 수평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애에서 볼때 넘어야할 산이라고 보면 돼요. 살다보면 고비가 있게 마련이지요. 전생애의 과정을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살필줄 알아야 합니다.

고뇌에서 벗어나려면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해요. 지극히 작고 일상적인데 큰 행복이 숨어있게 마련이지요. 분수에 지나친 욕망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지요. 이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것 이것이 우주의 진리이지요. 우리가 태어날때는 한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들 무슨 손해가 있으며 죽을때 못가지고 가니 부유한들 무슨의미가 있는가? 좋다. 이런 세상도 살아보자. 이런 저력과 에너지를 가져야합니다. 저마다 자기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때 일수록 그릇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방식을 바꿔야 할때가 왔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묻고 어떤일을 하면서 만족을 얻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에 힘든 것입니다. 세상이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한마음이 청정하면 온법계가 청정해집니다.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번뇌를 쓸어내는 것이다. 수련생들은 도량청소 울력을 통해 고뇌에 찬 마음을 맑히고 합동의 미덕을 새삼 깨달았다.

취재수첩
무교·타종교인 100여명 동참 "만족해요"

일급요정에서 사찰로 변신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길상사가 마련한 직장인을 위한 선수련회는 일상에 지친 도시인의 마음을 정화하여 새 활력을 줄 프로그램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었다. IMF시대의 우울한 사회상. 그 그늘에서 괴곤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길상사의 선수련회는 더없이 반가운 자리였다. 그런만큼 참가 신청자는 무려 1백74명이나 됐다. 그 중에서 직장인 70명을 서류심사를 거쳐 엄선해 통보했고 60명이 참가했다. 초심자들 위주로 해서인지 대부분이 무종교인이였으며 타종교인도 10여명이나 참석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애들이 4명이나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 먹고살기 힘들다"며 "마음고생이 많아 참가했으나 이제는 무언가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기독교인 K씨는 "참선책을 읽어보고 참가하게 됐다"며 그는 "기독교 일부에서는 배타적이기도 하지만 나처럼 〈선불교와 그리스도교〉 같은 책을 읽고 공감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또 한 가톨릭신자는 "호기심에서 동참했다. 절하고 좌선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나 자신에게 만족스러워 참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대체로 무난하고 쉽게 진행됐다는 평이다. 특이한 점은 이번 수련회에 회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스스로 얻은 '마음의 충만'에 따라서 수련회 끝나고 나갈때 대웅전 불전함에 넣고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역시 사회의 믿음과 신용을 얻게해 준 교훈이었다.

길상사 선수련회는 다음달 21일과 28일에 다시 문을 연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도행품(道行品) ②

起時當卽起 기시당즉기
莫如愚覆淵 막여우복연
爽墮無瞻聚 여타무첨취
計罷不進道 계파부진도

분발할 때에는 즉시 떨쳐 일어나되
저 어리석은 이 연못 뒤집듯 하지 말라
함께 빠져서 바라 볼 것 없으니
닦는 법 깨지면 도에 나아가지 못한다

念應念則正 염응념즉정
念不應則邪 염불응즉사
慧而不起邪 혜이불기사
思正道乃成 사정도내성

생각이 온전하면 곧 바른 것이요
생각이 흩어져 비춤이 없으면 삿되다
지혜로운 이 삿된 번뇌 일으키지 않고
바른 길 생각하여 도를 이룬다

愼言守意念 신언수의념
身不善不行 신불선불행
如是三行除 여시삼행제

탐욕과 뜻이 스스로를 묶는다
저 송아지가 어미 젖 그리듯이

能斷意本 능단의본
生死無疆 생사무강
是爲近道 시위근도
疾得泥洹 질득니원

능히 생각의 근본을 끊어서
나고 죽음에 애쓸것 없으면
이는 도에 가까운 것이다
빠르게 열반에 들어가리라

貪婬致老 탐음치로
瞋恚致病 진에치병
愚癡致死 우치치사
除三得道 제삼득도

탐욕에 빠지면 죽음에 이르고
성내는 마음은 병고를 가져오며
어리석음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삼독을 없애야 도에 이르리라

縛前解後 석전해후
脫中度彼 탈중도피
一切念滅 일체념멸
無復老死 무복로사

앞 생각도 놓고 뒷 생각도 놓고

"탐욕에 빠지면 죽음에 이르고 성내는 마음은 병고를 가져온다"

佛說是得道 불설시득도

말을 삼가는 것 뜻을 지키는 것
몸으로는 선하지 않는 일 행하지 않는 것
이 세가지 행을 깨끗이 하면
부처님께서 도를 얻으리라 하셨네

斷樹無伐本 단수무벌본
根在猶復生 근재유부생
除根乃無樹 제근내무수
比丘得泥洹 비구득니원

나무를 잘라도 뿌리를 뽑지 않으면
뿌리는 남아 오히려 되살아난다
뿌리 뽑아야 나무는 없어지니
비구는 이렇게 해서 열반에 이른다

不能斷樹 불능단수
親戚相戀 친척상련
貪意自縛 탐의자박
如猿慕乳 여독모유

나무를 베어버리지 못하면
번뇌 망상이 서로 그리워해서
중간 것도 벗어 버리면 피안에 이른다
모든 망념 사라지면
다시는 늙고 죽는 것 없으리라

人愛妻子 인영처자
不觀病法 불관병법
死命卒至 사명졸지
如水湍疾 여수단취

사람들은 처자권속 거느리느라
병통이 무언지 살피지 못한다
죽음이 갑자기 닥쳐오면
홍수가 마을을 쓸어가듯 할텐데

父子不救 부자불구
餘親何望 여친하망
命盡怙視 명진호친
如盲守燈 여맹수등

아버지와 아들이 구원하지 못하거늘
나머지 친족이야 무엇을 바랄건가
목숨 떨어질때 친족을 믿는 것
장님이 등불을 간직한 것 같으리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내 마음자리 못 찾으면

성찬스님 〈도성암 조실〉



요즘은 삼시 세때 공양하고 오전 오후 2번씩 운동하며 소일하고 있어요. 때로 사중의 살림살이를 장만하기 위해 현풍장에 내려가 세간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합니다. 늙은 탓에 몸이 좋지 않아 좌선 정진을 주로 합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이후 새벽 1시까지 정진을 합니다.

젊을 때 정진하던 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 잠은 2~3시간만 잡니다. 정진을 하되 화두를 들지는 않아요. 화두를 타파한 이후의 정진이니 설명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논산군 덕암리에서 6남매중 셋째로 태어난 나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숙부모님 등 어른들의 층층시하에서 자랐어요. 대가족이라 논농사도 많이 짓고 먹고 살 여건도 괜찮았지요. 하지만 일은 시키면 잘 했어도 공부는 왠지 하기 싫었어요. 그러다보니 부모님도 공부 시킬 생각은 아예 안하시더군요.

그런데 열다섯 살이 되니 공부 안한 것이 후회가 됐어요. 철이 들어 세상사에 눈이 떠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스무 살이 되어서는 문득 '내가 촌에서 일만 하다 죽으면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모든 게 덧없이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노릇할까. 어떻게 하면 융통한 사람이 될까.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어요. 결국 집에서는 사람노릇 하기도, 제대로 길을 찾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입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동학사에서 이지은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것이 스물두살 때였어요. 그 당시는 불교가 뭔지도, 선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수행에 대한 바른 지표와 자극을 얻지 못한 나는 뭔지 모를 답답함에 오래지 않아 만행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당시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때였어요. 절 살림이 어렵다보니 자주 수행처를 옮길 수 밖에 없었거든요. 만행시에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본격적인 정진은 스물네살 때인 오대산 상원사에 머물면서부터 였어요.

상원사의 방한암선사는 내게 '마삼근(麻三斤)' 화두를 주셨어요. 하지만 7~8개월을 자리틀고 앉아도 화두는 안되고 망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기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염불수행을 병행했습니다. 아직은 내 본성을 직접 관하는 힘이 부족해 타력에 의지하여 마음자리를 얻으려는 생각에서 였죠. 얼마 뒤에는 금강산 마하연으로 떠났습니다.

장안사와 표훈사에서 더 들어가는 마하연은 경치가 좋아 수행처로는 최상의 적지(適地)입니다. 그곳 마하연에서 선각(先覺)들에게 받은 화두는 '시심마(是甚麼, 이뭣고)' 였어요.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걸어다니고 희로애락을 거듭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의문이었어요.

육조스님의 '내게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이 무엇인고(吾有一物 此何物)' 하는 화두였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청황적벽(靑黃赤碧)의 빛깔도 아니요,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으며,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배고프고 목마르면 그런 줄 아는 이 물건이 무엇인고' 하는 화두예요.

사람마다 마음 가운데 한 물건이 있으나 이것을 등지고 살아요. 깨달아야 사람노릇 해요. 앉아서 천상천하를 당겨 보고, 뭇 별의 사람들을 만나 볼 수도 있어야 사람노릇 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자성자리를 밝힐 수 없어요. 내 마음자리도 모르고 껍데기로만 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중생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몸뚱이 없어지면 무엇을 나라고 할까요. 몸뚱이는 마음자리가 의지하는 집과 같아요. 깨달아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부지런히 참구하면 누구나 이 한 물건을 볼 수 있어요. 머리가 길든 짧든, 산에 있든 도시에 있든, 결혼을 했든 안했든 발심만 제대로 하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관청에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직장인은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서, 농사꾼은 들에서 밭을 매면서 이 화두를 잡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도 도를 닦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의 양무제는 수많은 절을 짓고 많은 스님을 양성했으며 많은 토지를 보시했어요. 어느날 달마대사를 만나 묻기를 "대사님, 나는 수만개의 절을 짓고 수만명의 스님을 양성케 하고 수많은 시주를 했습니다. 이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하자, 달마대사는 "공덕이 없습니다(無所功德)" 했어요.

'범소유상(凡所有相)이 개시허망(皆是虛妄)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이면 즉견여래(卽見如來)' 라는 〈금강경〉 한 구절을 외우는 것이 훨씬 큰 공덕이란 뜻입니다. "보시라는 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하거늘(應無所住 行於布施) 상에 걸린(住於相) 보시가 어찌 공덕이 될까보냐" 이런 뜻입니다.

또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찬 7보로써 보시하는 것은 복덕(福德)에 지나지 않으나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지혜의 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공부하는 공덕보다 더 큰 게 없다는 말이예요. 언제든지 마음자리 깨닫겠다는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거창한 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하연에서 잠 안 자고 공부하며 절차탁마한 보람이 있어 참선의 참맛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부에 힘을 얻게 돼 3년 정도면 대도견성(大道見性)하리라 자신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뭄에 알 수

"머리가 길든 짧든 여자든 남자든 발심만 제대로 하면 누구나 마음속 이 한물건 볼 수 있어요"

약력
- 1914년 8월 충남 논산 生
- 1936년 이지운스님을 은사로 동학사서 출가
- 1954년 정혜사에서 만공스님의 제자가 됨
- 1969년 이후 현재까지 대구 비슬산 도성암에 주석

이면 즉견여래(卽見如來)' 라는 〈금강경〉 한 구절을 외우는 것이 훨씬 큰 공덕이란 뜻입니다. "보시라는 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하거늘(應無所住 行於布施) 상에 걸린(住於相) 보시가 어찌 공덕이 될까보냐" 이런 뜻입니다.

또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찬 7보로써 보시하는 것은 복덕(福德)에 지나지 않으나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지혜의 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공부하는 공덕보다 더 큰 게 없다는 말이예요. 언제든지 마음자리 깨닫겠다는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거창한 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하연에서 잠 안 자고 공부하며 절차탁마한 보람이 있어 참선의 참맛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부에 힘을 얻게 돼 3년 정도면 대도견성(大道見性)하리라 자신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뭄에 알 수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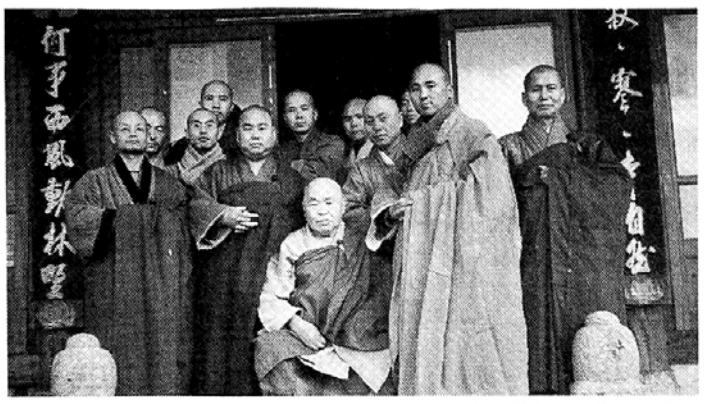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큰스님 수행한담

껍데기로만 살게돼요"



◇지난해 동안거 결제를 기념해 수좌들과 함께 한 성찬스님(앉은 스님). 그 오른쪽은 도성선원 원장 불산스님.

"힘 있을때 정진하세요 이것이 나와 남 살리는 '큰 일' 온국민이 이 도리 알아야…"

없는 병이 생긴 겁니다. 참선방에 앉기만 하면 시나브로 기운이 빠지고 졸음이 오는 병이 생겼어요. 이후 20여년간 공부를 방해하곤 했던 이 병은 나중에 충북 제천 강천사에서 아이들 경기(驚氣) 있을 때 먹는 주추 두밀과 한약을 함께 다려 먹고 나았지요.

생각해 보면 젊을때 대부분을 병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약 사 먹을 돈도 없었지만 남에게 손을 벌리는 성미도 아니었거든요. '죽으면 그냥 죽고, 살면 그냥 사는 거지' 했지요. 그때는 병을 이기려 수행하랴 두배로 힘이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한 거지만 더욱 정진하라는 채찍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때는 50도 못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83살이니 말이죠. 〈보왕삼매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렇습니다. 병의 고통을 좋은 약으로 삼고 육신의 병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정진하노라면 병마는 물러가고 의지는 더욱 굳세지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전세(前世)에 게으른 탓이었겠지요. 수행자는 사소한데 걸리면 공부를 믓해요. 또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을 가져야(大信) 하고 크게 깨닫겠다는 대원(大願)을 세워야 해요. 공부가 막힐 때에는 반드시 뜻을 이루고 말겠다는 분심을 내야(大憤) 합니다. 대원·대신·대분심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때 마하연에서 나름의 견처(見處)를 얻은 후에는 시비장단(是非長短)을 분별하는 지혜가 났지요. 평소 남의 말귀를 잘 못알아 들었는데 이후부터는 저절로 모두 이해가 되더군요. 일자무식이었던 내가 글귀도 알아먹게 되었고 천수관음 주도 해석이 되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도 공부가 된 사람인지, 소견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만 들어도 마음이 보였습니다. 문자 공부 안해도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아는, 이른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경지라고나 할까요.

그후 선배나 노스님들에게 선문답을 하곤 했어요. 마땅한 답을 못 들으면 또 다시 인연을 찾아 나섰어요. 마땅히 정착할 곳이 없어 주로 선방을 옮겨 다니며 정진했습니다. 그렇게 20여 안거를 보냈지요.

불교정화 당시에는 영월 법흥사에서 월산스님(前 불국사 조실·지난 해 입적)과 같이 수행했어요. 도반이기도 한 월산스님은 문자를 모르는 나를 위해 경전과 선어록을 읽어주곤 했는데, 한번은 〈선문염송〉을 외워주더군요.

방거사가 (大道를 이루기 전) 어느날 대매스님을 찾아와 묻기를 "대매야, 살구가 익었느냐 말았느냐"하니, 대매스님 답왈(答曰) "일백가지 꽃이 피었느니라." 대매스님이 다시 묻기를 "살구 먹었으면 살구씨는 내 것이니 내놔!" 했지요. 그러자 방거사가 답을 못하고 막혔어요.

월산스님 덕택에 여기서 또 다시 한 소식을 얻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견처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경각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하지요.

내 나이 마흔을 전후해서는 충남 예산 전월사에서 만공스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너 철을 모시면서 선문답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정혜사에서는 이런 문답이 있었어요.

만공스님이 뜰앞의 코스모스를 보고 "코스모스가 잘 자랐구나"하자, 나는 "코스모스가 스님 쾌각입니다" 했지요. 그러자 스님이 "이것이 나를 놀려"하더군요. 그때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또 한번은 간월암에서 스님을 모실 때의 일입니다.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만공스님이 내게 묻기를 "저 배가 어디로 가느냐?" 나는 주먹을 내밀면서 "이리로 갑니다" 했지요. 그러자 만공스님이 아무 말씀 안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망월사에서는 춘성스님, 선학원에서는 석두스님, 월정사에서는 탄허스님 등의 선각·동료와 인연이 깊었습니다. 그분들과도 선문답을 통해 수시로 서로의 수행을 점검하곤 했지요. 간혹 어떤 수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문자로만 선문답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몇다디면 해보면 탄로가 나요. 선문답은 터득한 바가 없으면 문답이 되지 않아요.

처음 공부하는 이들은 참선을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자무식이었던 육조스님도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란 한 마디에 견성했어요. 부지런히 공부해 수행심이 무르익어 깨닫게 될 때는 한 마디만 일러주면 돼요. 볼기 맞다가도 깨닫고, 귀싸대기 맞다가도 깨치지요. 이는 물론 전생의 공부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만.

옛날 마산 승주사에 선방이 있었는데 산중에 있는 곰이 여름에 수좌들의 참선 수행을 엿보게 되었어요. 문을 활짝 열고 면벽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날마다 구경하고 흉내 내다가 나중에는 스님들하고 친해져 먹을 것도 얻어먹게 되었어요. 이것이 공덕이 되어 곰이 죽은 후 인도환생(人道還生) 했는데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살이하는 업으로 태어났어요.

스무살 때 절에 들어와 부목을 살게 되었는데 누구든지 그를 보면 곰같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곰같다'고 하는지 의증이 났어요. 다발채로 아궁이에 땔감을 밀어넣으면서도 그것에만 매달린 거예요. 뒤에 공양주 보살이 공양간에 들어와 보니 밥은 다 탔는데 우두커니 서 있더란 거예요. 공양주 보살이 꽥 소리를 치니, 그 순간에 이 총각이 깨쳤어요. 깨닫고 보니 자신이 전생에 곰이었고, 견성하지 못한 이가 조실 자리에 앉아 있는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발심(發心)만 제대로 한다면 금생이나 내생이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처음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는 〈화엄경〉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미물인 곰도 해 내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예요? 다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남을 제도할 수가 없어요. 고인이 말하길 "전생의 일은 금생의 나를 보면 알 것이요, 내생은 금생의 하는 모양을 보면 안다"고 했어요. 금생에 부지런히 도를 닦으면 생사를 자재할 수 있고 남도 제도할 수 있어요. 금생에 일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내생에는 도인이 될 것이니, 힘이 있을 때 정진하십시요. 이것이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큰 일입니다.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이 도리를 알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번의 경제위기도 한 철이 지나면 풀릴 터이니 모두가 화합해서 나라를 살리고, 조만간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과도 마음의 문을 열어 통일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내 마음자리 깨닫는 방법을 설한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고 대장부의 길을 열심히 걸어 가세요.

정리=김재경 기자

몸뚱이는 마음의 집 "무엇을 나라고 할까" 본성 찾으려거든 大信·大願·大憤은 필수

나와 경전 42

관무량수경



동 봉
'우리절' 주지

〈관무량수경〉은 정토삼부경의 하나로 리우쏭(劉宗)의 지양리앙에서 (彌良耶舍)가 서기 424년에 번역한 것이다.

〈정토삼부경〉이란 잘 알다시피 똥진의 쥐에시엔(覺賢)이 빠오윈(寶雲)에서 서기 421년에 번역한 〈무량수경〉과 쿠마라지바(Kumarajiva)가 번역한 〈아미타경〉을 함께 일컫는다.

우리는 보통 〈아미타경〉은 잘 알고 있으나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에 대해서는 그리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아미타경〉은 경전의 분량이 지극히 짧고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미타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을 간과할 수는 없다.

나는 목동 법안정사에서 93년에 〈아함경〉강의를, 94년에 〈정토삼부경〉을, 95년에 〈승만경〉을 강의했다.

일반불자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경전을 미리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관무량수경〉의 개요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읽고 또 읽었다. 읽을수록 끌려드는 경전의 매력,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세상에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곧잘 벌어지곤 한다.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련의 사건들, 아들이 아버지를 시해하고, 학생이 교수를 구타하고 하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터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런 때 우리 불자들에게 어떤 경을 읽게끔 할 것인가. 그래, 〈관무량수경〉을 권해야겠다. 그렇다면 우선 〈정토삼부경〉을 교재로 택해야지"

내가 〈정토삼부경〉을 택하고 일요법회에 통보하자 불자들은 예상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금강경〉이나 〈천수경〉 같이 알려진 경전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정토삼부경〉이냐는 것이다. 어렵게 불자들을 이해시키고 그래로 진행했다.

〈관무량수경〉은 라자가하의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라자가하의 왕 빔비사라와 그의 왕비 바이데히는 단 하나 밖에 없는 태자를 두었다. 태자의 이름은 아자타사트루(Ajatasatru)였다. 그런데 그 태자가 성장하여 부왕인 빔비사라를 가두고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 이때 바이데히는 부처님께 지성으로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을 맞게 된 전생의 업연은 무엇이며 어찌하면 그러한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를 묻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바이데히 앞에 나타나 여러가지로 인연을 설하고 차제에 극락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펼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극락세계가 찬란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관무량수경〉에서는 열 여섯가지 관상법을 통해 상중하의 근기들이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미타불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왕생할 수 있다는 설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관무량수경〉에서도 '나무아미타불'의 육자진언을 염송하므로써 마침내 원왕생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설파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있다.

인륜의 중요성 강조…"서로 포용하라" 16가지 관상법 통해 극락정토 안내

극락세계를 다른 말로는 정토(淨土)라고 한다. 정토란 글자 그대로 쾌적한 환경을 뜻한다. 쾌적한 환경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마음을 텅 비우고 모두를 포용하는 데서만 가능하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거나 극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불가능하다. 〈관무량수경〉은 바로 그 점에 착안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언제나 참되고 부드러운 언어를 구사하라고 가르친다.

특히 아자타사트루의 패역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인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목동 법안정사 일요법회 때마다 아름다운 눈망울을 반짝이며 강의에 열중하던 불자들의 모습을. 그렇다. 극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열려갈 것이다.

현수막
불기2542년 부처님 오신날 祝 奉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에 부처님 사진을 칼라로 넣어서 제작해 드립니다.
⊙ 공정이 복잡하여 미리 주문을 받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가격: 5m × 90cm에 ₩35,000(배달비 포함)

한을기획
(02) 474-2040
474-2041
FAX : (02) 477-2316

생전예수재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국판 72페이지, 개정판
● 법보시 특가: 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FAX.(02)738-8682
생전예수재 용품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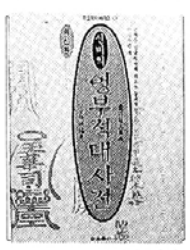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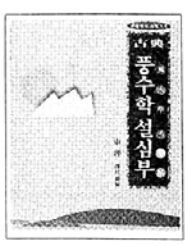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에술 실습 수강생 모집. 사경문체와 용이 있고 법과 대가 있습니다.(통신도 가능) 반야심경, 법화경 모든 경전 서예 수강생 특별지도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관음출판사
■ 신간 — 관음 역서시리즈

命理學 萬問萬答
대자연의 법칙은 즉 하늘의 도(道)다.
시키고, 뜻도 세워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행운(幸運)의 길흉을 점작해서 화복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임에 이 모르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터득하려면 문답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된다.
哲學博士 曺誠佑 지음 / 값 12,000원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신국판/값20,000원
송월스님 著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A5신/양장본/35,000원
김백만 편저

古典풍수학 설심부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값18,000원
申 坪 지음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몸 전체를 감싸는 신광과 머리부분의 두광이 함께 표현된 아미타삼존도(일본 根津미술관소장) (부분).



◇둥근 구슬로 만들어진 염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거나 수를 세는 법구로 쓰인다.



◇사찰의 지붕 합각에 그려진 원이삼점. 자재천왕의 눈모양을 본떴다 하여 '자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화순 운주사 원형다층석탑(보물 제798호).

"진리세계 둥글기가 허공같네"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圓 〈2〉

안과 밖 분별 않는 우주적 합일
걸림없는 法 성품·깨달음 비유

원동태허(圓同太虛)
무흠무여(無欠無餘)

중국 선종의 제3조 승찬(僧璨)스님은 〈신심명〉에서 "지극한 도는 참으로 원융하고 장애가 없어서 둥글기가 큰 허공과도 같다"고 했다.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절대적인 무한의 진리가 원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를 성철(性徹)스님은 "지극한 도란 누가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없고 덜어낼 수도 없어 모두가 원만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로 깨칠 뿐 증감할 수 없다"고 풀이했다. 절대진리를 더함도 덜함도 없는 절대적인 허공에 비유하고 그 허공을 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93년 성철스님은 이런 임종게를 남기고 원적했다.

"일생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뱉으며 푸른산에 걸렸도다."

'둥근 한 수레바퀴'란 무엇일까. 감히 뭐라 설명하는 사람이 드문 이 게송의 마지막 부분이 원동태허는 아닐런지. 이 송의 인연을 거두는 순간 선사의 예리한 법안(法眼)에 비친 '둥근 한 수레바퀴'는 바로 절대진리의 당체일 것이기에 말이다.

아무 걸림 없이 자유로운 것(無碍自在)이야말로 불교가 추구하는 최상의 경지가 아닌가.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는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라 한다. 물론 우리도 그 위없는 깨달음의 자리를 추구하는데 불교 신행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승찬 스님이 두상(無上)의 깨달음을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다고 표현한 것이나 성철스님이 '둥근 한 수레바퀴'를 본 것도 위없는 깨달음에 대비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의상(義相)조사도 저 유명한 〈법성게〉를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으로 시작했다. 법의 성품이란 원융한 것이어서 두가지 모습이 아니라는데서 깨달음의 실마리를 풀고 있는 것이다. 진리란 절대적이다. 한 모습, 한 맛, 한 색, 한 빛으로서의 진리야말로 진정한 진리일 뿐 분별되고 사량되는 것은 진리일 수 없다. 그 진리가 절대무한의 원(圓)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물론 진리의 상징으로서의 원이란 둥글게 그어진 선의 인과 밖을 분별하지 않는, 절대적인 크기로서의 원이다. 중국 당대의 선승 남양혜충(南陽慧忠)이 손으로 원을 그려 보이며 깨달음의 자리를 표현한 이래 지금까지도 선사들은 법상에 올라 주장자로 크게 원을 그어 보이며 "이것이 무엇인가" 혹은 "네가 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묻는다.

불교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의미를 담고 원을 표현하고 있다. '성격이 원만하다' '동글동글 살아라' '원만히 해결됐다' 등의 말을 많이 한다. 또 윈가 일이 잘 되었을 때나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손가락으로 원을 그려 보이기도 한다.

원은 진리와 완성, 순환의 영원성, 조화와 관용, 우주적 합일과 풍요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문양이 바로 원이란 것도 원이 갖는 이런 상징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일원상(一圓相)

사찰의 벽화나 선화들에서 일원상을 흔히 볼 수 있다. 절대진리를 상징하는 원은 일원상으로 표현된다. 우주만유의 근본자리로 원이 표현되기도 하고 우주 그 자체로도 표현된다. 우주에 원만히 품어진 진리를 하나의 원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또 불보살의 마음자리, 일체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불성의 자리를 원으로 표현한다. 이는 나고 죽는 것, 오고 가는 것, 변화가 없이 여여한 것, 언어가 끊어진 곳과 선악의 분별이 사라진 경지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의미를 담는다.

선종에서는 특히 일원상을 진리의 표상으로 여기고 있다. 선화(禪畵)에서 원은 가장 일반적인 소재다. 어찌 보면 원상을 그리기는 쉽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그냥 둥글게 선을 그려놓는다고 선화로서의 원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우주법계의 모든 번뇌를 녹여버린 무상각(無上覺)의 선지가 배어 있어야 한다.

곽암(12세기)스님은 십우도(十牛圖)의 여덟번째 '인우구망(人牛俱忘)' 부분을 이 일원상으로 표현했다. 등자가 소를 찾아 집으로 돌아와 소와 자신의 존재를 초탈하는 대목을 커다란 하나의 원으로 그린 것. 모든 존재의 초탈은 곧 번뇌의 초탈이다. 공(空)의 체득인 것이다. 물론 공의 자리를 표현한 일원상의 둥근 선은 의미가 없다. 선의 안과 밖이 모두 원이기 때문이다. 원 안의 세상과 밖의 세상을 구별하는 데서 우리의 번뇌가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주의 절대진리를 상징하는 일원상은 선화의 가장 보편적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 사진은 동원스님(사명암)의 작품.

圓과 관련된 불교용어

원각(圓覺): 부처님의 원만한 깨달음.
원과(圓果): 열반을 뜻함. 원만행인(圓滿行因)으로 원만과덕(圓滿果德)을 증득했다는 의미.
원광(圓光): 불보살의 몸에서 나는 광명.
원광관음(圓光觀音): 33관음의 한 분. 등 뒤에 화염이 있다.
원구(圓具): 구족계의 다른 이름. 구족계를 받은 사람은 열반의 원과(圓果)에 가까와 졌기 때문에 원구라 한다.
원돈(圓頓): 모든 사물을 원만히 결함없이 갖추어 단번에 깨달음.
원성실성(圓成實性): 원만 성취 진실을 구족한 것. 진여(眞如)와 같은 의미.
원수(圓數): 10이라는 수를 뜻함.
원승(圓乘): 원융한 교법. 중생을 싣고 불과(佛果)를 얻게 하는 것.
원심(圓心): 완전히 원만한 열반을 구하는 마음.
원융(圓融): 걸리고 꿘벽됨이 없이 가득하고 만족하며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서로 융합되므로 방해됨이 없음.
원통(圓通): 널리 두루 통함으로 방해됨이 없는 것.
원합(圓合): 모든 법을 원만히 융합시킨 것.
원해(圓海): 여래 과상(果上)의 공덕이 광대원만한 것을 큰 바다에 비유함.

■ 원이삼점(圓伊三點)

사찰의 지붕 합각(合角) 벽의 둥근 원 속에 작은 원 3개가 삼각형, 역삼각형 또는 약간 기울어진 삼각형 모양을 이루며 그려진 문양을 볼 수 있다. 이를 원이삼점 또는 이자삼점(伊字三點), 삼보(三寶)라 부른다. 3개의 원은 범어의 '이'자가 세점의 역삼각형인데서 비롯됐다. 범어의 '이'는 자재천왕의 눈이 생긴 모양을 본뜬 것이라 하여 자재를 의미 하기도 한다. 〈남본열반경(南本涅槃經)〉 권2 '애환품(哀歡品)'에서는 이 원이삼점을 통해 '열반의 내용인 법신 반야 해탈의 세가지 덕목이 서로 다르지 않게 상즉(相卽)하고 있음'을 비유하고 있다. 이 원이삼점의 점들은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고 앞과 뒤를 따로 두지 않는 전체적인 융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우리는 불(佛) 법(法) 승(僧) 삼보에 비겨 삼보의 상징으로도 보는 것이다.

■ 광배(光背)

불화나 조각에서 부처님 혹은 보살의 뒷면에 둥근 빛이 발하는 장면이 묘사된 것을 볼 수 있다. 머리에 이런 표현이 된 것은 두광(頭光), 등 뒤에 표현된 것은 신광(身光)이라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을 통칭하는 것이다. 후광(後光) 또는 어광(御光)이라고도 한다. 빛은 상당한 신성을 갖는다. 불보살의 몸체를 표현하는데 있어 광배의 문양을 사용하는 것도 불보살의 신성과 존귀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1세기에 시작된 간다라미술에서부터 후광이 묘사되고 있다. 요즘의 불화에도 신광과 후광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표현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 법륜(法輪)

법륜이란 말 그대로 법의 바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륜성왕(轉輪聖王)이 가지고 있는 윤보(輪寶)에 비유한 말이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자체를 '법의 바퀴를 굴린다(轉法輪)'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의미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 즉 법은 수레의 바퀴처럼 쉼없이 구른다는 의미에서 법륜이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이후 다섯 비구에게 첫 설법을 한 것을 '초전법륜'이라 하는 것도 같은 의미다.

법륜이란 말은 일체의 법을 뜻하는데 8정도 혹은 8상(八相)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가지로 나뉘어 설명한 것)을 의미하는 여덟 축으로 된 바퀴모양을 흔히 볼수 있다. 항상 구르는 법의 실상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주인공이다.

■ 염주(念珠)

염주는 글자 그대로 풀면 생각하는 구슬이란 뜻이 된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물론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염주는 둥근 구슬을 108개, 1080개, 3000개 꿰어서 만든다. 54개나 27개 혹은 그 이하의 수로 만들어진 짧은 염주도 있다. 이를 단주나 합장주라고도 부른다. 염주의 구슬 수는 108번뇌나 27현성 등 법수와 같이 하여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 운주사 원형다층탑

부도를 제외한 대개의 탑은 4각이나 8각이 일반적이다.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원형으로 된 탑도 있어 불교에서 원이 상징하는 진리의 의미를 탑에 적용시킨 예로 여겨지고 있다. 전남 화순의 운주사 원형다층석탑(보물 제798호)은 십각의 기단석면을 제외한 모든 부재가 원형을 이루고 있어 흥미롭다. 높이가 5.71m인 이 탑은 운주사가 창건된 고려시대의 탑으로 보고 있다. 갑석에는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으나 나머지 옥개석들은 둥근 쟁반을 엎어 놓은 모양이다. 운주사 천불천탑의 조성 배경이 용화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비원과 함께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나지 않고 원만한 이상향의 세상을 발원했을 조성자의 염원이 새롭기도 하다.

■ 원적(圓寂)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는다. 연기실상의 한 부분일 뿐 영원한 소멸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을 열반이라고 이르는 것도 죽음 그 자체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던 번뇌가 끝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원적이란 모든 무지와 사견을 버리고 깨닫는 것을 말한다. 원래적 고요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의 죽음을 이세상의 모든 번뇌를 끊는 것으로 표현하여 원적에 들었다고 말한다.

임연태 기자

일 원 상 우주만유의 근본자리
원이삼점 법신 반야 해탈 나타내
법 륜 불법 쉼없는 바퀴에 묘사

자연을 연출하는 —— 우리옷
연/지/곤/지
개량한복을 50% 할인가격(₩80,000)으로 판매합니다.
사업하실 분에게는 위 가격에서 충분한 마진을 드립니다.
★ 단체복(승복,원아복, 사원복, 도복)을 최저가로 주문받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
본점 02)3461-8552~3 각천점 507-7852
평촌점 (0343)88-7852 본당점 (0342)702-7373



IMF를 이기는 불자님의 지혜
- 우리옷을 입읍시다.



(능인선원 건너편)
● 연지곤지는 최고의 품질을 최저가로 보급합니다. ●

"오늘의 교육 지식전달에 치우쳐"

교육의 잠재적 기능과 이심전심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8〉

불교의 개념을 교육학에 적용하면 禪은 잠재적기능 敎는 표면적기능

교육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 하나는 표면적 기능(表面的 機能)이며, 다른 하나는 잠재적 기능(潛在的 機能)이다.

표면적 기능이라 함은 교육에서 의도한 바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며 주로 언어, 문자에 의하여 가르쳐지고 가시적(可視的)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반하여 잠재적 기능은 교육에서 의도한 바가 없거나 표면적 기능 속에 숨겨져 있는 교육기능으로서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가시적(非可視的) 결과를 초래한다.

종래 교육에서는 교육의 표면적 기능만 강조하여 왔다.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은 언어와 문자이고, 성적이라고 하는 가시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시간 지키는 일, 질서 지키는 일, 자신을 갖는 일, 질투하는 일, 열등감을 가지는 일 등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잠재적 기능은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행사, 문화풍토, 교사의 묵시적(默示的) 영향 등에 의하여 배우게 되며 그 결과는 비가시적(非可視的)이다.

종래 교육에서는 표면적 기능만을 강조하였지만 교육학적 사고가 세련됨에 따라 최근에는 잠재적 기능도 함께 강조하게 되었다. 교육의 올바른 길은 표면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에 있다.

불교에서는 흔히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한다. 이 때 선(禪)이라 함은 부처님의 마음을 지칭하며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불도(佛道)이다. 이에 비해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을 뜻하며 주로 언어와 문자에 의하여 습득하는 불도를 말한다.

위와 같은 불교의 개념을 교육학에 적용하면 선(禪)은 교육의 잠재적 기능에, 교(敎)는 교육의 표면적 기능에 시사점을 던져 준다.

불교에 있어서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참구(參究)한다면 교육에서는 교육의 표면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이 상보적(相補的)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미 교육의 양대기능을 아득한 옛날부터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가르침이며, 이는 교육의 잠재적 기능의 측면에 관한 역설(力說)이다.

이심전심은 염화미소(拈華微笑)의 고사(故事)에서 비롯된다.

염화미소란 세존께서 영산(靈山)에서 설법을 하실 때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니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었으나 오직 가섭존자(迦葉尊者)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지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불법이 전달됨을 말하며 세존염화(世尊拈華), 염화파안(拈華破顔), 가섭미소(迦葉微笑)라고도 한다. 말이 끊어진(言語道斷) 상태, 문자를 떠난(不立文字) 상태에서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불법을 전함을 염화미소라고 한다.

이심전심은 깨달은 내용을 언어나 문자를 매개로 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함에서 연유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보다 넓고 가벼운 뜻으로 사용하며,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며 말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넓고 가벼운 뜻으로 해석한 이심전심이 곧 교육의 잠재적 기능이다.

교육의 잠재적 기능 중 교사의 마음 가짐이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전달됨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전달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에 걸쳐 있다. 교사가 부지런하고, 봉사적이며, 자비스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본받게 되며 교사가 금전 제일주의이고, 이기적이며, 게으른 마음가짐이 있으면 학생은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나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는데 언제나 강의시간 전에 교실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다. 학기초에 교실에 들어가 보면 약 三분의 一 정도 되는 학생만이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되면 학생수와는 관계없이 강의를 시작하였다. 강의를 시작한 지 10분정도 지나야 비로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리를 메꾸었다. 출석은 강의가 끝난 후에 점검하였다. 나는 한 번도 학생들에게 강의 시작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없다. 그러나 학기말이 되면 거의 모든 학생이 강의 시작전에 착석하고 있었다.

최근에 대학교수가 된 제자가 찾아와 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바 있다.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만 특히 강의 시작 전에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강하게 배운 내용이며 저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교육은 말과 글에 의한 가르침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원래 교육의 잠재적 기능이라는 개념은 사회학자인 머톤(Merton)의 사회제도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머톤(Merton)은 사회제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결과를 표면적 기능, 관찰할 수 없는 결과를 잠재적 기능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아리조나주의 원주민인 호피(Hopi) 인디안족은 심한 한발이 오면 기우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비를 내리도록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의식이다. 근대 과학의 상식에서 보면 호피족의 기우제는 하나의 미신이나 전통적 타성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기우제가 비를 내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비를 내리게 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기우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피족의 기우제는 계속되고 있다. 표면적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기우제가 하나의 미신에 불과할지 모르나 잠재적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기우제는 가뭄으로 인하여 들뜬 민심을 가라앉히고 부족원간의 집단의식과 단결을 강화해 주는 기능을 한다. 표면적 기능의 관점에서만 보면 비합리적이고 미신에 불과한 기우제가 잠재적 기능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의미로 관찰되고 해석된다.

위의 예에서 잠재적 기능은 호피 인디안 부족의 지도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였을 것이다. 즉 부족 지도자들의 마음이 기우제라는 행사를 통하여 은연중에 부족원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제사(祭祀)를 지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제사의 표면적 기능은 조상숭배에 있지만 잠재적 기능은 가족간의 화목과 예절형식의 중요성의 가르침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잠재적 기능은 어른들의 마음이 가족에게 전달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위에서 든 예는 주로 잠재적 기능의 긍정적인 측면의 발로(發露)이지만 잠재적 기능은 교육의 부정적 측면 즉 역기능으로서도 작용한다.

부모, 교사, 사회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바램은 그 가르침과 바램의 정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가 있다. 즉 전도(顚倒)된 이심전심이다.

예를 들면 어떤 여고생이 다음과 같은 졸업소감을 밝혔다고 하자 "女高를 졸업한다는 것은 참으로 서운한 일입니다. 낭만과 꿈으로 가득찬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시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긋지긋한 수학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6년간, 중학교에서 3년간, 고등학교에서 3년간, 계12년간에 걸쳐 교사는 수학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이 학생은 그 동안 "수학은 싫은 것, 나는 수학공부는 일생하지 않겠다"는 것을 배웠다면 이는 곧 전도(顚倒)된 이심전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심전심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다. 교육의 잠재적 기능이 특히 강조되는 까닭은 오늘날의 교육이 언어와 문자를 매개로 하는 지식 기술의 전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이심전심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의 잠재적 기능은 인간의 도덕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직결된다. 특히 전도된 이심전심, 즉 교육의 부정적 측면의 잠재적 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심전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학교보다 가정에서 더욱 힘써야 할 교육의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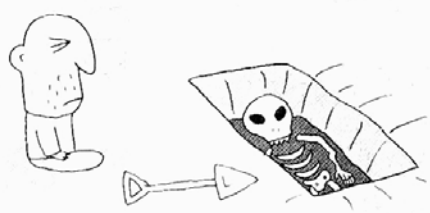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그림 · 이준석

"교과공부 못지않게 이심전심교육 중요"
잠재적기능은 도덕·정서발달에 직결

생활불교용어


그림 · 박구원

타인으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괴로움을 받는 것을 "시달림을 받는다" "시달림을 당한다"라고 말한다. 일은 남이 벌려 놓고 시달림은 엉뚱한 사람이 받는 때가 많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시달림'이란 단어는 불교의 '시다림(尸陀林)'에서 시원되었다. 시다림은 범어의 시타바나(Sitavana)를 음역한 것. 범어 시타는 '차가운(寒)'의 의미이고 바나는 숲(林)의 의미여서 한림(寒林)이라고 번역해 쓰기도 한다.

〈사분율·四分律〉에 따르면 시타바나는 중인도의 마갈타국 왕사성 북쪽에 있는 숲이었다. 이 숲은 요즘말로 공동묘지로 성중에 사람이 죽으면 이숲 시타바나(시다림)에 버려졌다. 따라서 시다림은 공포의 장소였으며

시다림

尸陀林서 시원…염습등 장의절차
'곤욕을 치른다'는 뜻으로 쓰여

질병이 무성한 곳이었다. 후일 나라에서 이 시다림에 악성 죄인들을 추방시켜 살게 했다고 한다. 〈사분율〉에 등장하는 시다림은 고행의 장소로 자주 택한 생매장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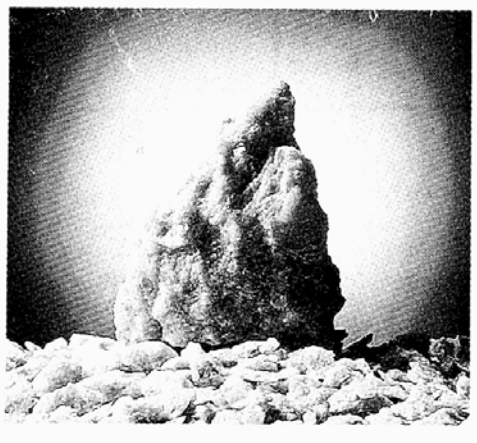
요즈음 우리나라 불가에서는 사망한 사람을 위해 염불하고 축원하고 때로 설법하는 것을 '시다림 법문'이라고 한다. 시다림은 사람이 죽어 염습(殮襲)을 하기 전과 염습 이후 발인(發靷), 발인에서 화장, 화장에서 매장까지로 구분된다. 사람이 죽은 직후일 경우 스님은 오방례(五方禮)를 한다. 오방례란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방위에 계신 부처님께 예배드리는 절차다. 오방례가 끝나면 '무상게(無常偈)'를 독송해 생사 무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힘으로써 가신 이는 물론 상주들의 다음을 생사초월 단계로 승화시켜 준다.

이렇듯 장의 절차 구비구비에 스님은 법문을 해준다. 이를 통틀어 시다림이라고 한다. 장의 시다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을 "시다림을 받는다"고 표현했을까. 따라서 시다림은 공동묘지의 공포와 죽음 직후의 슬픔을 중생의 생사초월을 위한 큰 법문으로 승화시킨 숭고한 뜻이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生光石은 자연입니다.
生光石은 원석 그대로 입니다.
生光石은 자연이 베푼
마지막 축복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자연에서 살지 못하고
독성을 내뿜는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소 젖보다 어머니 젖이 좋듯
사람에게는 자연의 정기가 좋습니다.
生光石은 강원도 영월에서 채광된
가공되지 않은 신비의 자연 그 자체입니다.

자연의 파장 生光石, -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켜줍니다.

● 헬스톤 100

100% 生光石으로 만든
◎ 헬스톤 100으로 시공된 집은

건강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드립니다.
·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 · 체질개선
· 미용효과 · 전자파로부터 보호

환경 상큼한 실내공기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드립니다.
· 시멘트 독성제거 · 실내 공기정화
· 결로 방지 · 균열 방지

위생 철결한 생활위생을 보장합니다.
· 곰팡이 서식방지 · 냉기 방지
· 해충 퇴치 · 피부질환 방지및 치료

경비 헬스톤 100의 시공, 경비를 되돌려 드립니다.
· 고온의 체감온도 · 우수한 열전도율
· 축열 효과 · 난방비 절약

● 생광석 108염주

◈ 생광석 108염주로 부처님 명호를 염하시면서 기도하시면.
1.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기도 원을 부처님께서 잘들어 주실것이며
2. 하나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송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잘 헤쳐 나가실 수 있을 것이며,
3. 늘 지니고 다니시면 부처님이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실 것이며
4. 내 마음의 심성을 밝혀 선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곳이 곧 부처님 계신 법당이며
5. 생활속에서 작은 복을 짓는 것이 부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 생광석 108염주를 늘 몸에 지니시면.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며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지십니다.

● 베게(학생, 사무직근로자, 노인, 애연가, 애주가)
1.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상쾌하다.
2. 뇌의 혈액순환과, 대사작용을 촉진시켜 잠을 푹 잘 수 있다.
3. 불쾌한 머리 냄새를 없게 한다.
4. 상처가 잘 아물고 머리결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한다.
5. 고개가 부드럽고 유연해진다.

● 방석(한곳에 오래 앉아 있는 분, 주부, 자가운전자)
1. 세포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을 돕는다.
2. 배설기관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3. 불쾌한 냄새등을 없이 한다.
4. 복통이나 불편한 부위에 올려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다. (따뜻하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놓고 앉으면 차내의 담배냄새등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차내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하며, 장시간 운전하여도 피로감이 거의 없다.
6. 여름에 오랫동안 한곳에 앉아 근무를 해도 히프의 땀띠나 사타구니의 축축함이 없고 쾌적하다.
7. 장기간 사용하면 치질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8. 방석(특)을 3개 연결하면 건강매트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외에 냄새제거, 수족관 환경유지, 피부미용, 행운의 건강석, 난초 · 화초재배용 生光石이 있습니다.

● 韓國 生光石 허리벨트

한국 생광석 허리 벨트는, 사람의 세포 운동 파장인, 9.36 마이크론의 세포 활성 에너지를, 실 생활 온도에서, 효과적인 방사를 하는, 생광석 제품으로, 허리 부위의 세포를 활성화 하고,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허리결림, 허리 통증등과 생리통 등에 큰 도움을 주며, 허리 보호에도 좋습니다.

허리를 미리 미리 보호하십시오.
허리가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께 권합니다. ◈
1.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 장애에 의한, 허리 결림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
2. 아랫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
3. 앉거나, 선 채로 장시간을 지내야 하는 분
4. 출산 후의 여성, 생리통이 있는 여성
5. 허리를 보호해야 할, 50대 이상의 남 · 여
6. 허리가 비만하고 허리가 유연하지 못한 분
7. 허리를 다치기 쉬운 스포츠 맨, 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8. 무거운 짐을 자주 들거나, 서서 일을 많이 하시는 가정주부 또는 선생님
9. 허리를 고정한 채로 오래 있어야 하는 운전 기사, 낚시광 등등.
10.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허리, 허리는 나를 사람답게 서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대들보입니다.

KSC 한국생광석주식회사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주문리 12번지
TEL 서울: (02) 737-0695
대구: (053) 422-6661~2
창원·마산: (0551) 63-7296
진주: (0591) 53-5494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강 •

한방암정보
02)
700-6366

승가 전통의 손맛…
온돌방 전통메주
(음식조리용 장군죽염)



▶ 재래콩 메주에 음식조리용 죽염으로 담근 죽염 된장 간장은 영양가득 약성이 풍부한 무공해식품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보리가족**
02)3141-1011/011-786-0817
· 온돌방 전통메주 소두1말(斗) 5개 값 39,000원
· 음식조리용 죽염 특별포장 5Kg(1) 값 35,000원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能仁 看病會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3-16
011-337-0353
02-809-1831

대보생식
02)
427-9162~3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찾으시며
●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탐사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 수맥연구원 학간생 모집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141-1 용님선원
0593)34-1115~6
012)598-1015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선착순 20명 모집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역학을 기본으로 한 *건강비법!*
지친 현대인들의 기를 살려주고, 정신을 맑게 해 줍니다.
◆ 상담 대환영! ◆
(고민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오)
☎ 723-4260~1

치질, 치루, 탈항
간경화 완치
수술않고 고통없이 완쾌됨!
02)
960-4088~9

• 강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02)583-0041(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월 4회 실시-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학생 모집
■ 모집과정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예하지도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 지원자격 : 1) 전공과정-포교상담의 사명감을 가진자
2) 연구과정-법회상담의 지도자로 사명감을 가진자
■ 수업년한 : 1) 총목과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2) 수업기간 2년 소형버스 통학가능
(교육청 인가 97호)
만대교학대학원
☎ 0582)535-1987
☎ 02)931-6075~6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릉지사
0391)43-5599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진로선택 · 작명 · 기타
기초부터 증강후 간명에 이르도록 책임지도합니다.
■ 강의기간: 3월 3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금요일(주2회)
오후 1:30~4:30(3시간씩)
■ 수강료: 교재제 포함(월 10만원)
마포구 대흥동 801-68
T. (02)713-4852~3
한국명리연구원

• 구인구직 •

미국 한의대 입학 설명회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이 필요한 IMF 시대!! 평생 직업과 고소득이 보장되는 **미국 한의사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 설 명 회

지역	일자	시간	장 소
강북	98년2월 27일(금)	오후 2시~6시	회화동 대학로 동사단 3층 (지하철 4호선 L 2번 출구)
강남	98년2월 28일(토)		서초중앙 연수원(기업은행 6층 지하철 2호선 전철역 4번출구)
연사	David J. Park 박사 (사우스 베일로 유니버시티 총장)		
특전	당일 원서 제출시 수속비 전액 면제		

● 한의대 개요

학 교	사우스 베일로 유니버시티(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시)
입학자격	대학 2년이상 수료자 본과 입학, 고졸생-예과 입학. 전공불문 98년 4월 입학가능
대 상	IMF시대 5만의 새로운 정통 모색하는 모든분중 장년층 환영
특기사항	전과정 한국어 수업 가능. 한의사 시험 한국어로 가능
비 자	학생비자(F1), 학생가족비자(F2)로 모두 입국 가능
전 망	미국내서 학위 취득하면 영주권 취득 절차 용이. 평생고소득보장

E.P.S. Korea 본사에서 사우스 베일로 대학 입학담당 John Kim 교수가 매일 상담 합니다.
미국사우스 베일로 대학 한국 대표 본부 E.P.S. Korea
전화 : 02)964-7030 FAX : 02)3295-3930

선 강 좌
밝고 쉽게 가르칩니다.
그룹환영, 생활속에서의 선, 삼속에서의 선, 길을 찾아 드립니다.
02)897-7731
016)340-4459(개인상담도 가능)
氣暇妻子 地水火風

물교의식 학인 모집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함(초급반 · 중급반 · 고급반)
● 모집대상 : 스님, 법사, 포교사, 일반불자
● 각2개월씩, 매주 토요일 1시
● 각종단 관계없이 많이 참석바랍니다.
대구보광포교원 손 보 광 합장
053)557-1149

함께 일하실 불자
노력과 성실로 고소득을 원하시는 분
정년퇴임 · 명퇴하신분
◆ 특전 : 교육비 40만원, 초기 1년 활동비 지원,장학 · 경조 · 육아수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화 02)959-8966~7
FAX. 02)959-8968

대 모 집
■ 대 상 : 만 25세 이상 남녀
■ 기 간 : 1998. 2. 27~ 3. 5
■ 대 우 :
15일 교육후 30만원 교육비 지급
6개월까지 30~50만원 보장
일속에서 참자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051)818-7601~2

• 법회안내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산 3번지
0593)854-0262~3
보 림 사

● **한 마 음 선 원** ●
혜원스님 초청 강남구 대법회
● **주 제** :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는 불자의 마음자세
● **일 시** : 1998년 3월 7일(토) 오후 5:00 ~ 7:00
● **장 소** : 강남구민회관 강당
02)565-4950~2
※ 3호선 대치역 하차 6번출구

• 불교용품 •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도원불교수련원(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 0374-32-7464 FAX: 0374-33-7464
주소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210-1

• 불교미술 •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웅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단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분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무불스님 달마보급



연락처 : 011-841-3591

• 장의 •

불교장례문화를 선도해가는
● **아미타상조회** ●
갑작스런 장례로 인한 어려움을 평소에 대비하여 장례시 최적의 비용으로 최상의 장례를 치러 영가와 그 가족들의 평안을 도모키 위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하는 일** - 장례상담, 제기불자들의 불교식장례 대행, 스님장례진문, 납골당 · 납골탑 알선, 장지 및 이장업무, 천막 · 파출부 · 음식일선무의탁 노인 및 생활 보호대상자 무료장례,장례 용시 활동, 불교의례 의식교육
■ **문의처** : 대전 동구 용전동
(사)대한불교법사회 녹아원 도서관내
042)625-1080(주 · 야) FAX (042)626-1080
호출 015)410-6586 H.P 011-455-1080
공주 (0416)856-3280

• 기타 •

불자님을 위한 전문 광고회사
광고다운 광고!
"광고전문가와 만나십시오"
- 기업홍보 브로셔 제품 카다로그, 리플릿, 상품전단
- CI, BI 제작물, 실물 로고제작 특수인쇄
- 신문광고, 잡지광고 포스터, 카렌다 POP
WILL
광고는해야 하는데 아무곳에나 맡길수도 없고 아시는 광고회사가 없으십니까 ?
광고 생고생해서 시작한 사업을 광고 한번으로 끝내버린?
잘못으로 날해를 보시겠습니까 ?
전화 주십시오 ! 돌이 아닌 한마디로 본자님의 광고를 전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껍쌩사보다 우위에설 수 있는 생생한 광고를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가 잘 큰 광고회사는 아니지만 근본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광고회사 애드 · 윌 입니다
광고문의 :(02) 512-8868 · 8869 元耕 합장

• 학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사찰안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전국무료전화직통:
080)723-4082
광진불사

◆ 사찰부지 : 500평
◇ 대웅전 : 27평, 산신각 8평 ◇ 요사 : 50평 × 방 4
◇ 매가 : 3억 5천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산속에 위치
※ 사찰 납골당 부지
● 경기도 이천 ① 부지 6,300평×평당 5만원
② 부지 50,000평×평당 4만원
(필요한 평수 분할시 평당 10만원)
● 불교 연수원 부지 ① 원주근교 50,000평×5천원
②경기도 이천 : 20,000평×평당 10만원
(대지 10,000평+전 · 임 10,000평, 건물 150평+법장 1동 포함)
(주)천 운 나 강 민 합장
0371)762-0101/ 011)735-4168/ 012)932-4168

사찰 운영하실 분
◆ 위 치 : 충남 논산지역
◆ 부 지 : 3,000평
◆ 법 당 : 30평 목조 단청 필
◆ 요 사 : 2동 51평, 24평
◆ 가 액 : 1억 2천 5백만원
◆ 시 설 : 시설일체 무상 기증,
◆ 특 징 : 전통 한학관장마을 부근에 소재한 사찰로서 수려한 산수를 자랑하고 있는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입주즉시 법회가능함.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언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립니다
양도의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대리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국불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 : 012)1648-6334
(24시간 호출可)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 위 치 : 북한산(서울시내)
◇ 임야 사용권 3,000평
-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주지실, 요사, 석굴
◇ 계곡과 기암괴석, 고목나무들.
◇ 서울시내 조망 가능
◇ 가 격 : 7억원정
02)512-3092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 3동
◇ 대지 : 시유지 1,200평
- 법당 13평, 방4칸, 입실부엌, 목욕탕, 거실, 창고2, 화장실1, 대형 주차장 · 우물샘 있음.
◇ 가격 : 8천만원
032)422-5739

◇ 위 치 : 강원도 영월 (제천에서 더 가까움)
◇ 평 수 : 730평(종교용지)
◇ 법 당 : 40평
- 산신각, 요사채 4동, 석등, 석탑,
- 방10개, 화장실
◆ 기도도량으로 적격임
◇ 가 격 : 1억 3천 5백만원(절충가능)
※ 서울에서 2시간 20분 거리
0373)374-1765

◇ 위 치 : 지리산 아래 대명당(급매) 청학토란형
◇ 소 재 : 하동군 악양면
◇ 부 지 : 3천평, 가옥 2동
◇ 가 격 : 절충가능
0595)83-6231
012)587-6233

◇ 대구시내 포교원 20평 주택
◇ 사정상 급구함
◇ 법당 시설 완비.
◇ 가 격 : 보증금 500만, 월 20만원
◆ 여스님 환영.
053)653-4846
053)814-9325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 4층건물 2층 30평
◇ 방 2, 주방 1, 법당1
◇ 가 격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700만원, 월50만원
※ 가격절충가능
02)483-2973
017)263-6908

◇ 위 치 : 부산시 금정구 서4동 190-20 시장입구 최고요지 - 백담사 포교원
◇ 건 물 : 3층 25평
- 법당, 주방1, 방1, 욕실, 화장실1
◇ 가 격 : 보증금 1,500만원, 월 15만원
◇ 후불평화, 신중평화 무료로 드림
051)524-7224
012)956-7879

◇ 위치 : 경남 진해시
◇ 평수 : - 법당 15평
- 방2개 및 다락 1개
- 옥상 30평 사용
◇ 3존불 및 시설 완벽
◇ 부엌, 목욕탕, 주방시설 완벽
◇ 보증금 :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약간(절충요함)
◆ 경남 진해시 중앙시장 내 최고요지.
0551)23-9407~8

◇ 위 치 : 경북 선산군 소재
◇ 법장식 암자, 승용차 진입 가능
◇ 부 지 : 750평(대지 200평 포함)
- 건물 50평, 창고 30평
◇ 가 격 : 1억 9천
◆ 사철 계곡에 물이 효르고 주변 산세 좋음.

◇ 비밀 절대 보장함.
◇ 신속한 상담전문
◇ 상담자 대기중
◇ 전화상담 환영!
좋은인연, 좋은기업
동양투자컨설팅
대표전화
053)755-6498
053)744-1713

◇ 위 치 : 서울 송파구
◇ 평 수 : 30평
◇ 가 격 : 보증금 2천만, 월 60만원
◆ 특 징 : 최고급 시설 완비
전철역 200m 지점
시설비 절충가능.
02)202-0990

◇ 위치 : 제천시
◇ 부 지 : 700평(도지년 80만원)
◇ 법 당 : 20평 주3포
◇ 요 사 : 50평 주차시설 완비
◇ 가 격 : 1억 3천(전세도 가능)
◆ 약수가 풍부하고 신도수 약 70호로 산을 낀 청정도량으로 사정상 급히 양도합니다.
02)723-4082

◇ 위치 : 마산시
◇ 평수 : - 대지 200평
- 전답 430평 - 합 63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 : 20평(방 3칸)
◇ 삼성각 : 5평(완전목조 단층)
◇ 지하수 200M(전기시설 농사용 전기사용)
◆ 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양도금액 : 2억 2천(가격 절충가능)
011)563-0108(주지 직접)
0551)21-5737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평수 : 50평
◇ 가격 : 보증금 3천만원(월 50만)
02)242-6187

■ 토굴 (전원주택)
◇ 위 치 : 경북 청도(대구 근교)
◇ 대 지 : 280평
◇ 건 물 : 11월 준공
신축주택 30평 외 건물 2동
◇ 가 격 : 8천만원
◇ 특 징 : 산수 교통 좋고 조용한 곳
0542)71-0847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어떤 경계 닥쳐도 '공부'로 알아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한 게 뭐냐 하면,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는 겁니다. 배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선장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파도가 치든 잔잔하든 양 손을 다 놓고 그 선장한테 맡겨 놓는다 이겁니다. 선장이 배를 끌고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파도가 친다고 해서 우왕좌왕 하며 마음이 흔들린다면 결국에는 배가 뒤집히죠. 우리 몸뚱이를 배로 비유했다면 그렇단 얘깁니다. 선장인 주인공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데 바깥으로 자꾸 끄달린다면 목적지까지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부(父)와 자(子)가 상봉을 못했다 하더라도 한군데다가 몰두해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굴려 놓으세요. 이 '법륜을 굴린다'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굴리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굴려 놓을 때 찰나에 대뇌를 통해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정수의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면, 그 입력대로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깨우쳤다 깨우치지 못했다 를 떠나서 진짜로 자기 근본자리를 믿는다면 같입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세상에 누구를 같을 데가 있느냐? 못났든 잘났든 네가 이 세상에 나와서 너만이 너를 믿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누구나에게 자불(自佛)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대신 똥뉘줄수 없고 밥 먹어 줄수 없고 잠자줄수 없고, 아파 줄 수 없고 죽어 줄 수 없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공, 자불밖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자불로 인해서 수없는 제불이 찰나찰나 엮어지니까요. 그리고 통신도 되면서 항상 들고 나시거든요, 그 자불 주인공에.

우리가 영화를 한편 보더라도 주인공이 고생은 해도 죽는 건 드물죠? 결과는 항상 회향을 잘하고 끝내지 않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관하면서 진실되게 행하세요. 자기가 자중자애하면서 자꾸 관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실천에 옮기고 실험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차차 경험이 되고 그래서 깨우쳐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서 좇아가니까 어떤 게 닥쳐와도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이 줄이 바로 반야줄이구나! 이게 바로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길, 미세한 그 티끌수와 같은 세계로 가는 거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이 수천 수만이 된다 하더라도 어디건 간에 한 찰나입니다.

"항상 좋은일만 생기지 않는 것은 파도나 잔잔한 물이나 동등하듯 그 이치 알게하기 위해서죠"

만약 이 육체를 새 둥우리라고 합시다. 새 둥우리 속에 새가 들어있죠. 몸이 형성됐으니까 그 속에 자불이 들어있는 거지, 지붕도 안해놓고 부처님 모시는 것 봤습니까? 다 집을 마련해 놓고 자불을 모시는 거죠. 자불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불은 모두에게 다같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섭섭하게 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벌레 하나도 네 생명처럼 아끼며 살생하지 말라고도 하셨구요.

공부하는 것도 살아서 하는 거지 죽으면 공부 못해요. 부딪치는 체가 있어야 느끼고 경험할텐데 체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차원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도 태어나게 되는데 살면서 습이 쌓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무척 고생을 해야 되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기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경계에 부딪치면 쉽게 좌절을 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그건 공부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도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사람 사는 일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밤낮도 돌고 있고 바다에 파도도 일었다 꺼졌다 하지 않습니까. 파도나 잔잔한 물이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등한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을만큼의 알맞는 일들이 생겨요. 텔런트가 배역을 맡아서 그때 그때 역할을 해내고 본래자리로 돌아오는 것 처럼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수습하려면 '날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끄달리게 만드는구나!' 하고 바로 내안에다 관하게 되면 답답한게 한 순간에 다 없어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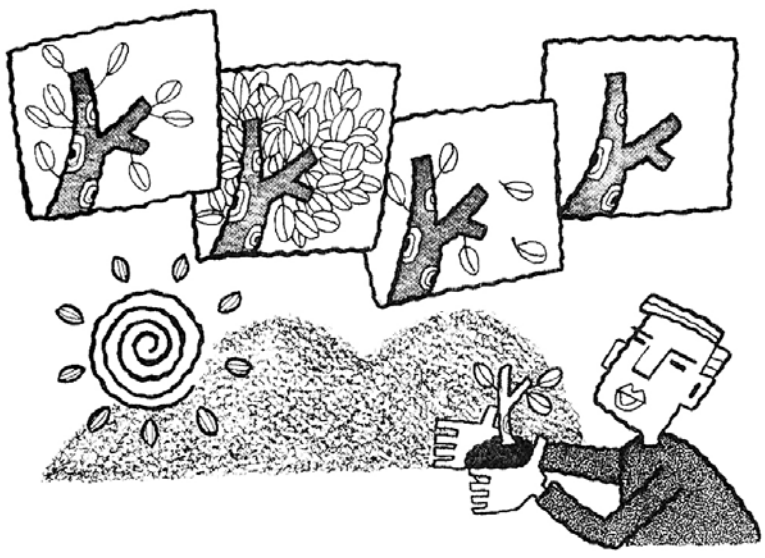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에 묻고 맡기는 습관에서 답이 나와요"

"볶를 볶라 집착하면 멸도에 이르지 못하죠"

이치가 그러한데 얼마동안 잘 되더니 지금은 안된다고 하면서 답답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는 소립니다. 답답하다 생각지 마시고, 답답하고 모르고 그러는 것이 도니까 모르고 답답하고 말도 안되고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했어도 이게 뭔가? 하고 한탄하지 말고, 모든 걸 그 자리에다 맡기세요. '한탄하게 하는 것도 너고, 답답하게 하는 것도 너고, 모두가 너다.' 하구선 거기다 맡겨놓을 때,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떤 거든지 다 거기다 놓게되죠. 그리고 실험을 통하고 또 체험을 하게 되면 자연적 문이 열리는 그런 이치거든요.

본래 깨우치라고 돼있는데 여러분이 딱 막아놓고는 안하니까 안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살아 생전에 그 도리를 알아야 죽어서도 떳떳하고 어디든지 내 자유껏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인가가 됐기 때문에 죽어서도 인가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언제까지나 불쌍한 생명들을 보고 살고, 또 그 생명으로 다시 떨어지고 하는 중세계에서 만 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차원이 높아져서 한세계에 한도량으로 한데 모여서 만화영화에 나오는 은비까비처럼 남이 알지 못하게 도와줄 수 있고 건져줄 수 있다면 자기네 자손들을 건질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대대 종손들도 다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 했습니다. 사람중에서도 진짜 사람이 돼야 부처님 한 도량에 태어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계는 상천세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하천세계로 떨어지느냐의 교차로인데 그 차원도 내 한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닥쳐오는 고를 고라고 생각하면 고가 되는 것이고, 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가 아니 되는 겁니다. 고(苦) 라고 집착을 한다면 그건 멸이 되질 않으며 도를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생각에 따라서 도의 길을 걷느냐, 망상의 길을 걷느냐가 달려있어요. 그러니 이 한철 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부처님 한도량에 함께 할 수 있겠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나무가 말입니다. 자기 뿌리를 간절히 믿고 의지해야 나무가 크게 자랄텐데 자기 뿌리는 믿지 않고 이 나무, 저나무 찾아다니면 나무가 자랄 수 있나요? 그것처럼 우리 공부하는 것도 이것 조금 해보고 또 저기 가서 또 조금 해보고 이러면 정말 시쳇말로 죽도 밥도 안되죠. 큰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형성돼서 나온 자리도 그 자리이고 들어갈 자리도 그 자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죽어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살아있을 때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깨우치지 않았어도 관하면 자꾸 닿는단 말입니다. 닿아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관해도 안됩니다. 열심히 해도 이것밖에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진짜로 믿는다면 닿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진실로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죽는다 하더라도 겁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내버렸어요. 내버린 건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듯이 봐도 본 게 없고 들어도 들은 게 없고 만나도 만난 게 없고, 또 가고 와도 가고 온 게 없고, 모두 해도 한 게 없기 때문이예요. 내가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58

행복 · 성공 · 건강을 내것으로 하고 싶거든.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며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다. 일체 만물의 생명과 내 생명, 일체 만물의 마음과 내 마음, 일체 만물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다.

고로 일체의 대상을 내 몸과 같이 나와같이 보는 게 불심이다. 대상을 높게 볼 것도 낮게 볼 것도 없이 나와 똑 같이 보라. 둘이 아니라고 보라.

나무에 수 많은 잎이 달려 있어도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듯, 각각의 생명은 독립적인 것처럼 보여도 다 한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체 만물이 하나요 만 생명의 근본이 내 근본과 다르지 않으니 물 한모금 마시는 일, 밥 한 술 떠 넣는 일에서도 더불어 먹고 더불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일부러 감사의 생각을 지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가 공식 · 공용 · 공체 · 공심 · 공생하고 있으니 자동적으로 감사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회향이 된다."

우리는 육신 · 기억 · 지식 · 지각활동 등을 뭉뚱그려 '나'라는 존재를 독립된 개체로 인식한다.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보면 나와 상대는 엄연히 다르고 독립적이다. 결코 같을 수 없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나만의 세계가 있다고 믿으며 각자 자존자애하면서 나의 주머니, 나의 밥그릇에 집착한다. 그걸 우리는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그냥 내버려두면 쉽게 투쟁적으로 변한다. 아니 변하는 게 아니라 투쟁과 대립을 기본속성으로 삼게 된다. 아마도 이 세상은 그런 속성을 억지하려 하지 않는 한, 만인과 만인이 다투는 싸움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한 화합이란 법이나 제도, 교육 등을 담보로 하는 화합과 다르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공생하고 공식하는 내 편이자 곧 나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일체만물은 본질에 있어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 너와 나는 물론 다른 모든 생명체나 저 무정물까지도 내 편이요, 나의 한 부분이요, 더 나아가서는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이 세상은 거대한 한그루의 나무이며 우리들 각자는 한뿌리에 의지하고 있는 나뭇잎과 같은 것이다.



가르침대로 우리 각자가 한뿌리에서 나온 잎새와 같다면 잎새와 잎새가 대립하고 투쟁하는 것을 뿌리가 원한다고 보겠는가. 뿌리는 모름지기 잎새와 잎새란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라고 볼 것이고 대립이 아닌 화합이야 말로 모든 잎새의 기본속성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화합은 우리 모두의 뿌리인 불성, 한마음이 환영하는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바꿔말하면 화합은 이 우주 법계의 근본 성질이자 법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일 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독립된 개체라는 인식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해도 최소한 주변의 상대와 화합하려는 노력을 잊어서는 안된다.

화합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싹튼다. 조상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내 이웃 내 동료에게 감사하고 내 스승에게 감사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만물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심지어는 내게 닥아오는 일체 경계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못난대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잘난대로 그점에 감사하고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만이 법계가 환영하는 일이요 둘이 아닌 도리에 부응하는 일이 된다.

불화는 꿈를 낳고 병고액난을 몰고 온다. 내게 닥아온 역경은 모두다 내가 상대와, 일체만물과 화합하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불화, 갈등, 투쟁의 뒤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거기엔 좌절, 실패, 싸움, 질병등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화합과 감사는 불성이 고대하는 바요 법계가 환영하는 일이기에 그 뒤 끝엔 행복, 성공, 건강 등이 따르게 된다. 그걸 원하거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삶의 길을 따르면 된다.

협찬 : 신지연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도의 길 망상의 길 한 생각이 좌우

☞ 17면에서 계속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금덩어리가 돼서 자불과 통하게 됩니다. 만약에 의사의 진단이 암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름뿐임을 알고서 '주인공, 아프게 하는 것도 너라면 건강하게 이끌고 가는 것도 너잖아. 그러니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해 주십시오. 그 암이라는 이름에 덜컥 걸려서 '아-'이제 죽는구나' 라고 미리 생각부터 죽어버리니 몸안에 있는 생명들이 무슨 기운을 차리겠습니까?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도 미리미리 관하는 법을 일러줘서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게 바로 눈물 덜 흘리고 사는 길이예요. 이 공부를 자손들한테 가르쳐준다면 아마도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 마리의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보다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평생의 양식이 구족할테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자불임을 알아서 여여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스스로에게 다 갖추어져 있고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도 다 자신안에 들어있다고요.

사계절이 오는 것을 다시한번 보세요. 전부 스승입니다. 세상만물이 전부 스승 아님이 없이 갖추어져 있는데, 마음이 들떠서 여기 저기 말을 구하러 다닙니다. 말이 아무리 좋고 이론이 좋았던들,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질 텐데 그 말을 좋다고 들으러 다닌다면 그 나무에 싹이 나겠습니까?

관세음도 주인공 나툼인지

문 저는 스님 법문을 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부처는 통체이신고로 병이 나면 의사가 돼주시고 가난할 때는 관세음이 돼주시고 죽어서 갈 때는 지장이 돼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나투시는 분이 주인공입니까?

답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태양이라 해도 좋고 자가발전소라 해도 좋습니다. 주인공이 만약 태양이라고 봅시다. 태양은 어디고 다 비춰줍니다.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은 다 비추게 돼요. 태양은 항상 밝게 떠 있는데 내 마음이 열렸는지 닫혔는지에 따라서 빛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 자가발전소라고 본다면 거기에는 온갖 용도별로 소임의 코드가 각각 꽂혀 있습니다. 관세음코드, 지장코드, 칠성코드, 약사코드, 산신코드, 해신코드 등 용도에 따라 다 있어요. 그러니 용도에 따라 부르면 거기에 맞는 보살들이 응신이 돼서 나가게 되죠. 보살들도 한 뿌리에서 나온 심부름꾼일 뿐이예요. 방편으로 이름만 달리 붙인 거죠.

그래서 안과 밖을 다 조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의식들이 따라줘야 조복이 되는데 이 의식들도 한곳으로 몰아주지 않으면 산만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 한군데다 몰록 놓지 않는다면 내 몸속의 의식들인데도 간수하기가 어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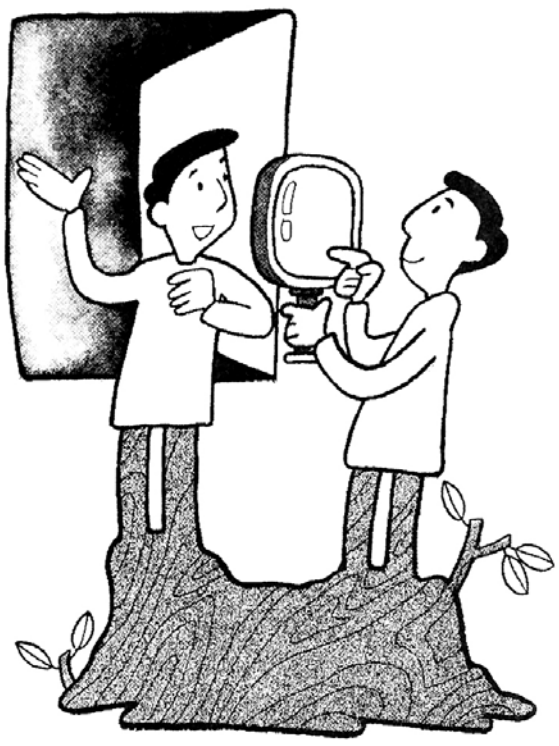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태양은 어디고 다 비추지만 마음이 열리고 닫혔는지에 따라 빛을 받기도 못받기도 합니다"

불법공부는 다 버리고 다 얻어서 다 내주어야 합니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는 지구의 생명들을 물로 죽게 하고 불로 죽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먹는 대로 되느니라. 마음이 자기를 죽이고 살리고 하느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야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면 둘이 아니죠, 전부가. 이 몸 하나 가지고도 공법이며 전체가 공법이고 공생이고 공심이고 공체고 공용이고 공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도 그르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돌 안하죠. 옛날에 스님을 국사로 청할 때에도 선지식을, 즉 마음과 근본 그것을 깨우쳐서 이끌어 가는 그런 분을 국사로 모셨어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야 많았겠지만 세상이치가 보이는 걸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깨치신 분을 모셨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좇아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죠. 좀더 전체를 생각하고 '나' 라는 게 빠지면 좋을텐데 말이예요. 그런 일들도 생각날 때마다 관하면 그대로 또 벌어지겠죠. 우리들의 생각, 살림에 따라서 다 벌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거니까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공부할 때 구경경지에 이르러야만 됩니다. 구경경지란 삼세를 한데 포함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그 하나도 공해서 둘 아니라는 걸 알 때에 비로소 구경경지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란 것도 이름이지 실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만 열심히 믿고 가면 거기에는 일체제불이 합해져 있다 이 소립니다. 딴 이름 부를 게 없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자기 뿌리와 내 뿌리가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제자다 스승이다 하고 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활 속에서 잘 하셔야만 하고 거기다가 다 굴려놓는다면 저절로 통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태어난게 화두예요. 자기가 없으면 상대가 있나요? 자기가 없으면 부처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닥쳐도 눈깜짝 하지 마시고, 또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게 죽는 게 아니예요.

옛날에 어떤 공부하는 사람은 마나님이 돌아가셔도 눈물 한방울 안 흘렸대요. 왜냐하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세상에 그 생고생 하다가 인제 사인교를 타고 올라가는구나. 참, 당신 좋겠어. 나도 바로 좋아갈 거야.' 하고 그냥 막 춤을 추고 좋아 거워했대요. 자식들이나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죠. 마나님 돌아가시고 미친 게 아니냐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 하는 소리가 '당신네들은 눈이 멀고 귀가 막혔소. 그러니 눈 뜨고 귀가 열렸으면 당신 발 하나하나 뚜벅뚜벅 떼어놓는 대로 법이고 떼어놓는 대로 도인 것을…' 하더랍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전체를, 삼라만상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할 때 처음은 다 버리고 두번째에는 다 얻어서 세번째는 다 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처음엔 다 놓아서 공부하고, 두번째는 다 놨으니까 다 얻었단 말이예요. 세번째 가서는 얻은 걸 다 베풀어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다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특히 부모없이 사는 애들도요. 소년소녀 가장이라 하나요. 그걸 볼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고 관해서 마음을 그쪽으로 내주세요. 내가 못 도와줄 형편일 때 마음이라도 내 주면 딴데서라도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서로의 인연으로, 주인공의 인연으로써 브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자좌' 앉을권리 타고났어요"

"세상사 천차만별이지만 나온자리 한곳"

'관' 했더니 문제 잘풀려

문 저는 책을 통해서 스님을 알게 된 초심자입니다. 책에서 관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여러가지 체험을 하고 갑니다. 그 중에 하나 신기한 것은 선원을 찾아올 때 '주인공, 네가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네가 찾아가' 하고 관했더니 정말 처음 찾아오는 길인데도 너무 쉽게 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자성본래불' 이라는 염불을 자주 마음속으로 해봤더니, 여전에 느끼지 못한 편안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인지, 아니면 관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답 그게 그냥 관하는 거죠. 바깥으로 찾는 게 아니니까요. 내 마음안에 다 묻고 맡기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어떤 결과든지 반드시 원인이 있죠. 내가 한생각 냈던 것이 몇생을 돌다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그걸 몰라서 우연이라고 할 뿐이죠. 앞으로도 계속 내안으로 관하게 된다면 많은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놈이 다 하는 거예요!

얼른 쉽게 말해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고, '스님!' 하고 부르면 '왜 그러느냐?' 하고 답을 해야 할텐데 불러도 아무 말이 없다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네가 나를 불렀고 내가 대답했으면 그뿐이지 뭐가 또 있느냐? 네가 있으니까 나를 불렀고 내가 있으니까 대답했지 않느냐 이런 거와 같죠. 그러니까 댁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도 당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모습을 형성시켜 놓고 거기에 들어갔았는 본래의 자불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불의 주인공을 진짜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 세상에 자기 빼놓고 누구를 믿을 데가 있습니까?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공을 의심하게 되면 거기엔 별의별 게 다 붙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든가 급한 일이 생겨도 '주인공 부른다고 뭐 되나?' 이런다면 그거는 영영 소생을 못하죠.

단속해서 가지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군데다가 믿고 놓으니까 단속이 되죠. 안과 밖이 다 단속이 되니까 체험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인공 빨리보고 싶어요

문 스님, 저는 주인공에 관하는 것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저는 가끔 '주인공, 나는 너를 모르지만 내가 너를 빨리 만나고 싶고, 느끼고, 이해하고 싶은데 넌 어때? 내게 나타나야 너를 시봉할 수 있지 않겠어. 얼른 내게 좀 와' 하고 관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것인지 가르침 주십시오.

답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좋지 않을까요? '주인공 본래 네가 있다는데 내가 있으니까 너도 있겠지' 라고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지금 당신이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미 그 놈이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인데, 오라가라 할 것이 어디 있나요? 몸뚱이 움죽거리는 게 전체 다 그 놈이 하는 건데 왜 못 믿고 그러세요?

공부가 기복위주 된것 같아

문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우선 관하게 됩니다. 주인공에 맡기고 공부한다 하면서 스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자신의 문제 혹은 가족의 문제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그것이 주인공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개인 행복 위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게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 아니냐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진짜 욕심이고 기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의 가르침 청합니다.

답 자기 내면으로 즉, 나왔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오로지 한 구녕으로 관하고 들어가는 걸 기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항상 얘기하지만 나무에 수없이 가지가 뻗고 잎이 나도 그 뿌리는 하나죠. 그것처럼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세상사도 그 나온 자리는 결국 한 군데서 나고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잘 되는 일은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일은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굴려 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남의 걱정하는 것도 끄달리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일에 참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 남이 좀 못나게 보이더라도 '전자에 못났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저승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어느 누구든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인연이 된 사람한테는 관하는 걸 일러주고 또 같이 마음을 내주는 거죠. 오다 가다 그렇게도 건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자체가 내 인연이니까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관해지게 되죠. 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어떤 거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처님 법이예요. 부처님의 공법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공법이 있고 우리에겐 없나' 하겠지만 이미 우리들 하나하나가 공법으로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생명들이 한데 더불어 같이 살면서 행하니까 공법이죠.

불법과 인간법의 조화

문 저는 심성과학 연구원 사회과학 분과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저의 전공 과목인 정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에 가장 낙후된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 하반기만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난국을 맞이 했으면서 지혜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는 데만 국민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은 IMF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정치학을 오랫동안 배워왔고 정치학을 오랫동안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정치 사상가들이 이상적인 정치라든지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이론을 펼쳐왔지만 정치의 현실적인 상황은 항상 그 이상적인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그래서 서구의 사상가들은 신의 국가와 인간의 국가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면에서는 인간의 국가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원래 부처님 법과 인간사회의 법이 둘이 아닐텐데도 실질적으로 정치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거리가 상당히 멀게 느낍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법의 차원에서 보셨을 때 과연 그러한 인간의 정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부처님 법과 인간 사회의 법이 둘이 아니게 융합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인도해 주십시오.

답 물론 둘이 아니죠. 다 둘이 아니건만 막이 있어서 정신계를 조금도 생각 안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막아놓고 생각을 못하니까 일이 그릇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는 지구의 생명들을 물로 죽게 하고 불로 죽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먹는 대로 되느니라. 마음이 자기를 죽이고 살리고 하느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야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면 둘이 아니죠, 전부가. 이 몸 하나 가지고도 공법이며 전체가 공법이고 공생이고 공심이고 공체고 공용이고 공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도 그르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돌 안하죠. 옛날에 스님을 국사로 청할 때에도 선지식을, 즉 마음과 근본 그것을 깨우쳐서 이끌어 가는 그런 분을 국사로 모셨어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야 많았겠지만 세상이치가 보이는 걸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깨치신 분을 모셨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좇아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죠. 좀더 전체를 생각하고 '나' 라는 게 빠지면 좋을텐데 말이예요. 그런 일들도 생각날 때마다 관하면 그대로 또 벌어지겠죠. 우리들의 생각, 살림에 따라서 다 벌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거니까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공부할 때 구경경지에 이르러야만 됩니다. 구경경지란 삼세를 한데 포함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그 하나도 공해서 둘 아니라는 걸 알 때에 비로소 구경경지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란 것도 이름이지 실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만 열심히 믿고 가면 거기에는 일체제불이 합해져 있다 이 소립니다. 딴 이름 부를 게 없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자기 뿌리와 내 뿌리가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제자다 스승이다 하고 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활 속에서 잘 하셔야만 사자좌에 앉게 되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못하란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요. 못 생기고 잘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권리가 적고 크고 이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체험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디다. 잘 되더니만 별안간에 안되는 게 탁 오길래 '허, 이것 또한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법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오는구나!' 하고선 딱 굴려서 놓으니까 싹 없어지고 변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도 배우지 않고는 도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옛날에 선지식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제사를 지내준 예가 많아요. 어떤 집에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돈을 가져왔는데, 스님이 상은 차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 누구누구한테 돈을 다 나눠주면서 제사 잘 지냈다고 끝났다고 하니 그 집에서 어리둥절 할 수 밖에요. 스님의 뜻도 모르고 제사 안 지내준다고 돈을 도로 찾아가서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번거롭지 않게 지내줬는데 왜 그럴까?" 그러셨대요. 지혜롭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마음이 가난하니 어찌 살림살이가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정(定)에 들려면 말이예요, 물론 그것도 이름이지만요. 이것 저것 찾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말을 배울려고 하지 말고, 뜻으로 자기가 그걸 알아라 이거죠. 뜻으로 알면 나중에 책을 봐도 다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생활 속에서 전부 그놈이 한다

떡 하나로 제사 되는지

문 불교방송을 들다 보니까 한마음선원에서는 제사를 올릴때 육법공양을 하지 않고 둥그런 떡 하나만 놓고 한다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답 사찰에서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를 할 때에 제가끔 뜻이 있어서 여섯가지 공양물을 정성껏 준비해 올리게 됩니다. 우리 선원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떡 하나만 이라는 얘기는 잘못 전해진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형편이 허락치 않아서 상을 차리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밥해 놓고 떡해 놓고 갖가지로 차리지 않더라도 향, 초, 맑은 물, 그리고 과일 조금, 둥그런 우주떡 한 접시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전의 습대로라면 조상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이것 저것 차려놓는게 잘하는 일로 여겨지겠지만 마음 한번 둥글게 굴려서 조상님과 내가 둘 아니게 한마음이 된다면 오히려 조상님이 좋아하시겠죠. 진실되게 자부처를 믿고 마음공부를 하는 분이라면 말입니다.

혈 친 주인공

불교유치원 무료교육 실직가정 어린이대상

실직가정 어린이를 위한 무료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유치원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무료불교유치원

이름	전화번호
구룡사유치원	(02)577-1986
반야유치원	(02)208-7802
반달유치원	(032)323-0577
보명유치원	(032)816-2508
지산유치원	(0333)64-2261
아름유치원	(0342)704-6206
룸비니유치원	(0344)913-0141
무궁화유치원	(0343)82-8160
꿈마을유치원	(0343)22-4083
선재어린이집	(02)561-3421
장미어린이집	(02)3474-6333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사무소등 관련구청과의 협의하에 무료교육 대상자를 추천받고 있다.

이밖에 장안유치원(0342-702-5072)은 올해부터 실직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교육비의 반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전체 정원이 195명인 장안유치원은 신청자에 한해 20여명 선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화유치원(02-453-5149)은 1·2월 교육비 미납분에 대해 교육비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제주 청교련 예술제 22~24일 임원연수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지부장 김수진)는 15일 제주관광민속 박물관에서 제8회 룸비니 예술제를 개최했다.

1천5백여명의 청소년불자가 참석한 이날 예술제는 1부 법회에 이어 2부에는 연극 사자탈춤 중창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룸비니 예술제는 제주지역 청소년 포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자회 등 경제살리기 나선다

불교계 여성단체 신년사업계획

역사 속에 숨어있는 고승 비구니의 행적 발굴을 통해 비구니 위상 정립 사업을 벌이는등 불교계 여성단체들이 신년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불련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이하 여불련)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98년 사업계획과 5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여불련은 여성교양강좌, 전통예술견학, 생활한복발표회, 성지순례, 보육원 양로원 방문, 청소년장학금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도덕성회복을 위한 종교세미나 개최, 고승비구니 행적 조사 발굴, 제5차 아시아 연대회의 일본대회 참석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고승 비구니의 행적 발굴 조사는 현재 11명 정도 진행됐다. 20명 이상 발굴되면 책으로 간행한다. 특히 생활한복발표회와 종교세미나는 서울시로부터 1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대한불교부인회 대한불교부인회(회장 구자순)는 매주 금요일 서울대병원 자원봉사와 월례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양로원에 기거하다 숨진 연고없는 노인들을 위한 영가 천도재를 상반기 중에 봉행할 예정이다.

전국여법사회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이사장 성순경)는 영등포구치소·청송교도소 등의 포교·교화사업을 비롯해 경전역경, 전통예술 의식전승 사업, 고아원·양로원·소년소녀가장 지원, 포교사·전법사·법사 자격고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불교회 종교인평화회의에 불교계 여성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여성불교회(회장 변광순)는 서울구치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마다 해오던 물품 지원과 법회 동참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중에는 종교인평화회의가 주최하는 세미나 '통일시대를 맞는 종교여성의 역할'에도 참석하고 환경운동도 동참한다.

경불련 여성위 경불련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정자)는 매주 월·목·토요일에 한국사회봉사회의 장애아동 돌보기 외에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불교계 유치원에 비디오 상영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청정국토여성분과 청정국토만들기 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남은수)는 5월경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바꿔쓰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바자회를 기획 중이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한 방편으로 예식장의 남는 음식을 수거해 탑골공원 노인들의 간식으로 제공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환경지킴이와 공동으로 사찰환경 탐사를 기획해 사찰 주변 정화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여 불 련 고승비구니 행적 발굴 조명
불교부인회 무연고 영가 천도재등 추진
여성불교회 자매결연 재소자 물품 후원



◇불교계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97년도 여불련 세미나 현장.

강지연 기자

'아나바다' 운동 실천 구룡사 알뜰시장 개설

구룡사(주지 정우스님)는 재활용의 생활화를 꾀하고 이웃간의 정도 나누는 물물교환·알뜰시장을 3월1일 구룡사 합동회의실에서 개설한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알뜰시장은 매주 주말 상설 운영될 예정이다.

구룡사는 평소 쓰지않는 물건이나 의류 등 알뜰시장에 내놓을 물품을 매주중에 기증받는다. (02)575-7766

건강 365일 〈14〉 하눌타리뿌리


이 만 성 〈영재한의원 원장〉

당뇨·해소·염증성 질환에 특효

약명으로는 천화분(天花粉) 또는 과루근(瓜蔞根)이라고 한다. 약성은 소갈병(당뇨병)을 치료하며 위장의 어열을 없애주고, 염증을 다스리는 성분이 있어 해소 기관지염 유방염 중이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에 널리 응용된다.

하눌타리뿌리에 얽힌 중국 전설을 하나 소개한다. 동굴이 많은 양자강 하류 남쪽에 사는 나무꾼이야기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가는 길에 목이 말라 동굴 앞에 흐르는 물을 마셨다. 물을 마신 뒤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린 나무꾼은 잠결에 두 노인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다. "올해 이 동굴 안에는 두 개의 금으로 된 박이 자라났지." "쉿! 큰소리 내지 말게. 옆에 나무꾼이 자고 있지 않은가? 우리 얘기를 듣고 금호박을 훔쳐가면 어쩌려구!" "알면 어쩌겠나? 동굴에 들어갈 수 없는 걸. 7월7일 정오에 '하늘문 열어라 하늘문 열어라' 하고 큰소리를 쳐야 열린다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무꾼은 금호박이라는 말에 너무 좋아하다가 바위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노인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꿈을 꾼 것이다.

마침내 7월7일이 되어 나무꾼은 단숨에 동굴 앞에 당도해 정오가 되기를 기다려 '하늘문 열어라 하늘문 열어라' 하고 소리를 쳤다. 과연 문이 열린 동굴 안에는 두 개의 누런 금호박이 달려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집에 와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금으로 된 박이 아니고 보통박이었다. 나무꾼은 실망을 하고 말았다. 다음날도 나무꾼은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두 노인이 또 꿈에 나타났다. "임자는 입이 너무 싸. 금호박을 도둑맞지 않았나." "걱정말게. 약효과를 모르니까. 폐병, 해소 천식에 좋고 소갈병에 특효일세."

이 전설 속의 박씨를 과루인이라 하는데 해소 천식 폐병에 좋다. 박의 뿌리는 천화분으로 당뇨병과 각종 염증에 두루 쓰인다. 특히 관절염에 특효약이다. 위장에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에는 몸안의 피라든지 정액이 마르면서 자궁염증 무릎관절염 허리관절염 고관절염 당뇨병 등이 생기는데 이때 복용하면 좋다.

복용법 1회 8g을 달여서 하루에 두 번 복용한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 향 원



어리석은 범부들도 무지하기가 이와 같아 "나"가 없는 다섯가지 쌓임 가운데 제멋대로 "나"가 있다 생각하니 순금의 그림자를 본 사람이 애써 그것을 찾으나 헛수고만 있고 소득이 없음과 같다

'만화 백유경' 연재 이번호로 마칩니다.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7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 간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97년 한해를 총집결한 합본 '97년판을 발간합니다.



'97년 합본집

- 합본집('97년판) : 제109호(1997년. 1.1)-제156호(1997.12.24)
- 가 격 : 60,000원(발송비 별도)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代) 02)737-8881 팩스 : 02)737-0697

5,200여 한국 사찰의 역사 집대성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 사찰의 어제와 오늘!

▶18년에 걸친 편찬작업
(한국사찰보감)은 한국사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국내의 모든 사찰관련 자료를 망라하여 5,200여 사찰의 어제와 오늘을 집대성했다. 편자 이종술 선생(前국민대 고전실 근무)의 18년에 걸친 자료조사와 발굴 정리 작업, 까다로운 편찬작업을 거쳐 완간된 (한국사찰보감)은 한말(1910년)까지 국내에 건립 또는 유적을 가진 사찰 5,200여 곳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했다

▶일목요연하게 편집된 한국 사찰의 어제와 오늘
5,200여 한국사찰의 사찰명, 사찰 위치, 연혁, 설화, 부속암자, 유형문화재, 유적 및 천연기념물, 탑비 부도류, 모든 참고문헌류를 수록했다.

▶불교사상과 고승 연구의 길잡이
(한국사찰보감)에 수록된 연혁이나 소장 문화재류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며, 흥미롭고 교훈적인 설화류나 기록 등해서는 불교사상과 고승에 대한 연구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韓國寺刹寶鑑
佛名辭典

우리 나라 최초의 불명사전!

▶국내 최초의 불명사전
1,420개 (거사 불명 700개, 보살 불명720개)의 불명에 대한 해설 수록

▶불자들의 불심 고양을 위해 꼭 필요한 책
故 고성훈 스님이 생전에 세인들의 불심 고양을 위해 기획한 후 7년에 걸친 작업 끝에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으로 간행

▶불명 짓는 법 수록
생년월일에 맞추어 불자들 스스로 자신의 불명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불명 짓는 법을 수록하였다 신도들도 그 의식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계의식 순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



이동술 편/신국판 양장/540면/값 35,000원



고성훈 지음/탈지 해설/신국판 양장본/320쪽/값 20,000원

우리출판사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불자 세상보기

폐품재활용 절약-환경 '일석이조'

정부 '폐자원 수거운동' 앞장…단체·가정 등 자발적 참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숨은 자원 찾기'가 한창이다. '폐자원 수거운동'이 시·군·구를 비롯 사회단체와 군인들까지 참여, 전국적 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금모으기운동에 이은 폐자원 수거운동은 우리국민들의 저력과 결집력을 또다시 보여주는 귀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환경을 정화하고 외화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폐자원 재활용운동'은 처음 중앙정부가 2월 한달간을 '폐자원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는등 관 위주의 행사로 기획됐다. 그러나 행사 시작 이후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한 부녀회, 노인회, 상가번영회 등 민간 부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동안 수거된 폐자원은 폐지 3만3천여t, 고철 5만9천여t, 플라스틱 4천6백여t, 유리병 4천7백여t 등 모두 10만6천2백여t.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백63억원에 해당하며 이로인한 원자재의 수입대체효과는 2백만달러에 이른다.

고환율과 경제위기라는 현 상황에서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종이 고철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률을 10%만 증가시키면 연간 약 2억8천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1백47억원에 해당하는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96년도 재활용량 3백94만t, 재활용률 54.7%로 t당 1백5달러, 원화로 16만원을 주고 수입하고 있는 종이의 경우 재활용률을 10%만 높이면 약 4천1백40만달러에 해당하는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철은 2억1천1백만달러,캔은 2백50만달러, 플라스틱은 2천1백20만달러의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다.

IMF한파가 몰아치기 이전만 해도 우리국민들은 폐자원 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뿐 아니라, 마구 버림으로써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켜 왔다. 폐자원활용을 위한 자원재생공사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 폐자원의 배출량과 재활용률에 대한 확실한 통계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볼펜처럼 내용물이나 주요 부품만 교환해주면 재사용이 가능한 '리필제품'에 관한 인식도도 매우 낮다. 한마디로 우리사회의 폐자원활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보적 단계임을 보여준다.

폐자원 수거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폐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녹색가게운동본부가 벌인 '아나바다', 즉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IMF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김석중 사무처장은 "지속적인 쓰레기 재활용이야말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청정국토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며 "동대부고 등 종립학교 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자원 재활용운동을 펼쳐 교계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환경도 구조조정을" 18일 오후 프레스센타 19층에서 열린 한국환경회의(불교환경교육원등 27개 단체) 주최의 'IMF시대,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한 환경운동의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위기를 오히려 친환경적인 사회·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종이·고철·플라스틱 10%만 재활용해도 2억8천만달러 절약

공·사설묘지 납골당 의무화

묘지 1기 9평 제한

내년부터 묘지 1기당 면적이 9평으로, 사용기간이 최장 60년으로 제한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묘지증가로 인한 녹지 잠식을 막기위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상의 시행령'을 바꿔 현재 24평인 묘지 1기당 최대면적을 9평으로, 영구적인 묘지 사용기간을 최장 60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을 개정, 올해 상반기내로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묘지 사용기간의 경우 15년을 기본으로 하되 3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전국 54개소인 공, 사설 묘지에 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해 화장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행정지도를 병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4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 올해안에 강원도 춘천과 태백, 충남 논산, 전북 군산, 경북 구미, 경남 진해 통영 등의 공설묘지에 납골당을 건립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관리공단(02-390-6310)은 연말까지 용미리 제1묘지 무연고자 합동분묘 주변 330평의 부지에 5천842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옥외 '납식벽골당'을 설치키로 했으며, 증심문화원(0342-705-1500)은 2003년까지 충북 충주시 엄정면 일대 20여 만평에 총 2천억원을 들여 가족 대대로 한 곳에 조상을 모시는 '한국형 가족 납골묘 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불교 영탑·납골당 시설

시설자	연락처
한마음선원 금왕지원	(0446)877-5000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064)21-4662
음성 고심사	(0446)78-5408
부천 석왕사	(032)6673-404
보현원	(02)738-4555
포천 다보정사	(0357)31-0560
밀양 부은암	(0527)53-8032
상락향수도원	(0356)84-0657
시흥 영각사	(0345)498-7700

불교의 눈 "아난타의 재활용 정신을"

"왕이 아난타에게 의심을 품고 찾아가서 그 옷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아난타가 "임금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임금은 "그러면 그 누더기 옷으로는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것은 욧잇으로 쓰지요." "헌 욧잇으로는?" "베갯잇을 만듭니다." "헌 베갯잇은?" "그것은 방바닥에 깔겠습니다." "헌 깔개는?" "발걸레로 씁니다." "헌 발걸레는?" "마룻걸레로 쓰겠습니다." "헌 마룻걸레는 무엇에 쓰지?" "대왕전하, 그것은 갈기갈기 찢어 진흙과 섞어 반죽해서 벽을 바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맡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좋은 일을 위해 가치 있게 써야 한다."(법구비유경) 평택환경운동연합 의장인 정견스님(심복사 주지)은 이처럼 "불교는 철저한 무소유 정신을 추구하기에 절약과 근검이 계율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생활정보

프린터용 잉크 재활용

컴퓨터 프린터용 리필잉크를 사용하거나 다 쓴 레이저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를 재생해 사용하면 70~80% 비용절감 효과를 낸다. 레이저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를 전문으로 재생하는 회사로는 레이저 테크(02-419-2839) 컴퓨터 베이스(02-715-2666)가, 잉크분야는 프린팅 이미지 코리아(02-357-6016) 체크 포인트(02-716-5217) 그린칼라 잉크 카트리지(02-675-7414)등이 있다.

난방비 50%감축 밸브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람들'은 14일 난방온도 조절 밸브에 형상기억합금을 장착해 난방비를 30~50%로 줄여주는 메모밸브를 출시했다. 설치비용은 28평형 기준으로 환수관이 5개일 때 32만5천원. (02)553-0321

근로자 생활자금 융자

근로자복지공단은 13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를 합쳐 1인당 최고 1천만원을 융자해 준다고 밝혔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3~5년 분할상환. 신청자격은 1년이상 재직하고 월 평균임금이 1백50만원이하여야 한다. (02)6700-459

남북교수 첫 共著 발간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의 언어이질화 문제를 다룬 남북한 연구의 공동연구가 7년만에 햇빛. 서울대 이현복교수는 북한 혜산사범대 노길룡교수와의 공동저작형식으로 연내 〈남북한 언어 연구비교〉란 책을 펴내기로 했다.

정년 교사 장학금 2억 기탁

독신으로 41년동안 교단에서 헌신해 온 전주 성심여고 교사 김경애(65)씨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제자와 불우이웃에 써달라며 퇴직금등 2억1천여만원을 천주교 전주교구에 내놓았다. 또 시가 3억원 상당의 집을 팔아 불우이웃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하고 유언장 공증까지 마쳤다.

실업자에 국선 변호인 선임

대법원은 15일 경제사정 악화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속 피고인이 증가함에 따라 부도기업인.실업자 등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을 적극 권장토록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보다 13.3% 늘어난 77억8천여만원을 올해 국선변호인 선임예산으로 확보했다.

피라미드 사기업체 5곳 적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상품판매나 회원모집 실적에 따라 각종수당과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회원가입비등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려이도 대표 고영걸씨(41)와 ㈜지스킨 사장 박복식씨(34)등 7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의정부 판사 비리 의혹

경기 의정부지역 변호사들과 돈을 거래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는 모두 15명선이며 이중에는 지원장과 부장판사 1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6일 "전·현직 판사 15명이 수임비리로 구속된 이순호변호사 등 관내 변호사 10여명으로부터 최고 1억원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들었다

김대중 차기대통령은 25일 오전10시 여의도 국회 의사당앞 취임식장 선서대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취임선서와 함께 5년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난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IMF위기극복, 남북민족화합 및 지역감정 타파를 통한 국민대화합 창출, 참여민주주의 실현, 희망찬 농어촌 사회 건설, 소외계층 보호 등등. 경전에서의 올바른 지도자상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도자상 "정법으로만 나라를 다스려라"

▨부처님께서 마투라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하여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으로서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수행자 등을 보호하고 살펴라.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물어본 뒤에 깊이 생각하여 당연히 행해야 할 것은 행하고, 버려야 할 것은 마땅히 버려야 하느니라. 또 나라에 외로운 이나 늙은 노인이 있거든 물건을 주어 구제하고, 가난하고 곤궁한 자가 와서 구걸하거든 거절하지 말라. 나라의 옛법을 함부로 고치지 말라. 정법으로만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치우치거나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나라안에 법 아닌 것이 행해지지 못하게 하라. 〈장아함경〉

▨부처님께서 아사세왕이 부모를 해치고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임금이 정치와 교화를 바른 도리로서 하지 않으면 대신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이요, 대신들이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왕의 태자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태자가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신하와 관리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군인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그때에는 해와 달의 운행이 혼란해져서 시절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임금이 법으로서 바르게 하면 온 나라 백성이 법답게 행동하게 되고 시절도 좋아지느니라" 〈증일아함경〉

▨국왕은 마땅히 다섯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백성을 잘 다스려서 억울함이 없게 함이다. 둘째는 장병을 기르고 때에 맞추어 상을 줌이다. 셋째는 선법(善法)을 생각해 잊지 않아서 복덕이 끊어지지 않게 함이다. 넷째는 충신의 곧은 간언을 믿고 소인의 참소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정직한 관리가 해를 입지 않게 함이다. 다섯째는 욕탐의 쾌락을 절제하여 마음이 방일(放逸)에 흐르지 않도록 함이다.〈법구비유경〉

▨백성의 주인이 된 바에는 항상 바른 도리로 다스려 교화할 것이며, 모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이를 버려 행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승군왕소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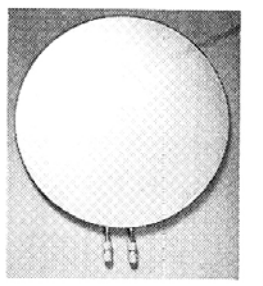
▨다만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부디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온 나라 안에 법 아닌 것이 행하지 않게 하라. 〈유행경〉

새상품

거울 김서림 방지기

욕실에서 더운물로 샤워해도 거울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하는 거울제습장치 '무로'가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왔다.

온수를 거울뒤에 부착한 가열판으로 통하게 해 그 열로 거울의 김서림을 제거하도록 고안한 이 제품은 거울 파손시 기존의 거울만 교체하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예림산업. 가격은 7만원. (902)540-728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흉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9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시 론 IMF 극복의 지혜 ⑥

새로운 노사관계

벼랑 끝에 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대타협을 이루었다. 국제통화기금체제라는 외부적인 압력속에서 이루어진 생태적 한계를 지닌 대타협이라 그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협상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Ⅰ 재벌 고통분담 솔선 실업 최소화해야

우선 노동계의 양대 산맥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화합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양대노총이 합심하여 노동운동의 새로운 연대의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근시안적인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념에 있어 비록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양대 노총이 합심하여 노동기본권을 지킴으로써 노동계의 협상력을 극대화시켰다. 노동계는 그들의 생존권이 달린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수용하면서 새정권의 정국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파트너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연 기 영
〈동국대 법대교수·본지 논설위원〉

또한 대타협 속에는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과는 별도로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사회보장적 내용이 들어 있다. 의료보험제도의 통합과 다른 사회보험의 개혁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합의문의 구속력과 함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이미 IMF의 한파로 인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어 대량실업사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기업주들이 위장술을 이용하여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실시함으로써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경우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한국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미증유의 대량실업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선 정국을 주도하는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정책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벌에 대한 개혁정책을 과감히 펼쳐나가고 노조의 경영참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도입, 고용세의 신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허용 등이 선결 과제이다.

다음은 재벌들의 자기정화와 고통분담의 현신적인 노력이다. 재벌들은 자기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내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노동자들도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한다. 이미 작은 정부를 내세운 정부조직축소안이 통과되어 공무원 감축이 눈앞에 닥친 과제이다. 밥그릇을 빼앗긴 실직자들이 바로 우리들 곁에서 신음하고 있다. 서로서로 등불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실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비의 쉼터, 무료직업소개소 등을 마련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직자들에게는 경제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불안과 초조가 더 큰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로서 총체적 국가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보시의 실천이다. 희망과 용기를 잃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양식을 주어야 한다. 재물을 베푸는 것(재시)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안정시키는 보시(무외시)와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위기극복의 지혜를 주는 보시(법시)가 더욱 필요하다. 참선수행

Ⅰ 노사정 공생하려면 자비와 보시 실천을

법을 통한 마음다스리기를 생활화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자. 귀농학교를 개설한 사찰도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기획, 실천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힘을 모으자.

불교사상에 입각하여 불교계가 발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IMF 극복사업을 정부나 기업에서 적극 후원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 대타협의 화합정신이 국가운영의 근간으로 정착되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불국정토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어려운 때일수록 불심을 모으자.

열린마당

52계위 포살참회법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자료집으로 펴낼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계단위원회에서는 재가불자들이 행하기 어려운 계목이며 율장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계단위원 내부적으로 '보살 52계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포교연구실은 3월중 자료집으로 제작, 배포해 일선 사찰의 신도포살법회 계본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살 52계위'를 둘러싼 포교연구실과 계단위원회, 불교학자, 신도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취지 공감하나 율장계본과 달라"

지관스님〈日 에이지대 불교학박사과정〉



얼마 전 조계종포교원에서 신도포살의 정기적 실시를 위해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 취지에 크게 공감하면서 대단히 기뻤다. 수행과 신앙의 과정에서 포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도 포살참회법으로서 이것이 과연 율장의 정신에 입각해서 여법하고,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승보살 52계위'는 모든 번뇌와 욕망을 떨쳐버렸고, 출세간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즉, 보살지위에 들어간 자)만이 가능한 실천행이자 서원인 것이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재가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8재계)을 일러주시지 않았던가! 또한 포살의 의식에 대하여서도 사분율을 비롯한 여러 한역율장에서도 한결같이 바라제목차(계본)를 외우도록 기술되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처럼 포살참회사가 주장자를 들어 선상을 세 번 친 후 문답을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나 순서 등에 관한 조문, 문헌 등은 찾아볼 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승보살 52계위는 포살에 필요한 바라제목차가 아닌 것이다.

본인은 한국과 같은 대승불교권 국가의 교단에서 율장 외에 근거한 어떠한 포살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불교만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필연성이 있다면, 그 명분과 정당성이 한국만이 아닌 여러 대승불교국가의 사부대중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어야 이 시대의 여법한 법이라 생각한다.

"난해하고 모호…재가실천 불가"

신성현〈동국대 불교문화硏 연구원〉



화엄사상의 자리이타행을 강조하여 신도의 일상생활을 수행과 연계하는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은 성불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사상에 잘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불교 본래의 전통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에 앞서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포살은 본래 신자와 비구(비구니) 포살 2종이 있다. 신자의 포살은 일주일에 한번꼴로 매월 8·14·15·23·29·30일에 행하여 졌으며, 포살일에는 아침 일찍 정사(절)에 나가 비구스님들로부터 계를 받아 하루동안 이를 지키는 것이다. 8종의 계는 ①생명을 죽이지 말며 ②도둑질을 하지 말며 ③거짓말을 하지 말며 ④술을 마시지 말며 ⑤음욕을 행하지 말며 ⑥오후에 식사하지 말며 ⑦(꽃)장식이나 향수 등을 바르지 말며 ⑧높은 침상에서 자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8재계이며, 이것이 본래 불교전통이었다. 8재계라는 단어 자체도 여덟 가지를 구족하는 포살(atthangikam Uposatham)이라는 번역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한다.

포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설계(說戒), 즉 계를 설하는데 있다. 물론 이 또한 수행의 과정을 통하여 궁극의 경지에 이르는데 있겠지만 우선은 계를 통하여 각자의 죄과를 참회하고 청정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복잡다기한 현대를 살아가는 신도들에게 대승보살 52계위는 때로는 난해하게도, 때로는 모호하게도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보살행 생활화 도움될듯

한주영〈선재회 회원〉

불교의 목적은 보살행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포살은 절대 필요하다. 포살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점검, 본래의 청정심을 되찾자는 의식이다. 최근에서야 몇몇 사찰에서 신도포살을 실시하고 있다.

포교연구실이 대승보살 52계위를 제시하고, 보살행의 생활화를 위해 포살법회에 접목하려는 의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또 이를 자료집으로 만들어 사찰에서 활용토록 배려하는 마음씀에 고맙기 그지없다. 포살법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에 포교연구실이 제시한 보살 52계위는 기존의 '금지' 계율과 달리 보살행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교를 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일찍이 없었던 획기적인 시도라고 본다.

수행의 방향과 좌표 제시

이명옥〈우리는선우 기획실장〉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재가자 포살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포살참회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우선 종단차원에서 재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반가웠다. 이전에는 이런 시도조차 없었다.

많은 재가불자들이 포살을 낯설어 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선우도 최근에서야 포살법회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회에 참석하고, 보시를 하고, 5계를 잘 지키면 좋은 불자라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다.

포교연구실이 제시한 포살참회법은 수행을 점검하고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만, 계목이 너무 많아 벅차다는 생각은 숨길 수 없다.

■ 포교연구실 제정 배경

"대승보살 수행 체계적 정리"

포교연구실은 '대승보살 52계위' 자료집 머리말을 통해 '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 제정 배경과 내용, 참고자료를 밝히고 있다. 다음은 머리말 요약문.

대승보살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마땅히 닦아야 할 수행덕목이 대승경전에 분명하게 설해져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종단내외의 사정으로 한번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승보살의 수행'을 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포교연구실에서는 대승보살의 진정한 수행법인 '대승보살 52계위 수행법'을 정리·요약하여 대승보살의 포살본(布薩本)을 만들었고, 연구하면서 모으고 정리한 내용들은 법사들이 강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집으로 엮었다.

이 자료집의 편집을 위한 기본 참고서는 다음과 같다.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 經)〉, 〈범망경(梵網經)〉, 〈마하반야바라밀경〉 제6권 '발취품', 〈화엄경〉, 〈성유식론〉, 〈대지도론〉, 〈망월대사전〉, 〈불교학대사전〉, 〈한자범어사전〉 등이다.

지금까지의 신도교육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지식 위주의 교리강습이 주종을 이루어 지속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하는 참다운 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다.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으로 포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진정한 보살의 신행을 마음속 깊이 각인해가는 완벽한 심지법문(心地法門)의 신도교육이 되게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신도교육의 체계로써 본·말사간에 통일되고 일원화된 신도교육의 프로젝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계단위원회 반대입장

"율장 근거없고 실천 어렵다"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과 관련, 계단위원회는 11일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열어 반대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계단위원들은 계단위원회에서 포교원의 종무에 대해 관여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총무원에서 자문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면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는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모임의 분위기는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단위원 모임에는 총무원의 한 부장스님이 참석했다.

계단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신도의 입장에서 계목이 어려워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면 포살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꼴이 되며 △율장에 근거가 없다는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법성스님은 16일 △'보살 52계위'는 경·율·논 3장(三藏)에 의거한 것이며 △노력없이 부처가 될 수 없으므로 어렵다는 비판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재가불자 참회의식이므로 계단위원의 입장에서 볼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포교연구실은 〈법회와 설법〉 3월호에 별책부록으로 '보살 52계위'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한국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 본 대 학 특 징 ●

1) 직장인 가정주부들에게 불교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종교사회교육대학임.
2) 15년간 배출된 졸업생은 사찰, 군법회, 교도소등 각분야포교, 각종단에 출가 활동중.
3) 희망에 따라 고시를 통해 조계종포교사자격을 취득함.
4)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진학을 추천함.
5) 일요일 서울, 부산 본대학 캠퍼스에서 특강과 가정학습통신교재로 교육함.
6) 별도 수강료는 없으며 1학기(6개월) 12만원 교제대만 받음.

● 모집과정과 입학자격 ●

포 교 사 과	1년코스	고졸이상 실력자와 초발심자 조계종포교사고시 집중지도
대 학 과 정	2년코스	고졸이상 실력자 또는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대학원과정	2년코스	불교교육기관에서 2년이상 수학한자
삼장법사과	3년코스	불교교육기관에서 4년이상 수학한자

● 입 학 절 차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사진3매첨부(원서대 5천원신청), 주민등록등본1통,
1998년 2월 5일부터 2월말일까지 본대학 또는 부산분교에 전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심사후 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에 직접 전화로 문의 하기 바람.

한 국 불 교 교 육 대 학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66-146
전화 02) 821-0541, 821-0542, FAX 821-0543
■ 부산분교 : 부산시 금정구 부곡1동 704 석림정사
전화 051) 581-4111, 582-4110
학 장 철학박사 김 공 철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 질 공 인 !!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 화 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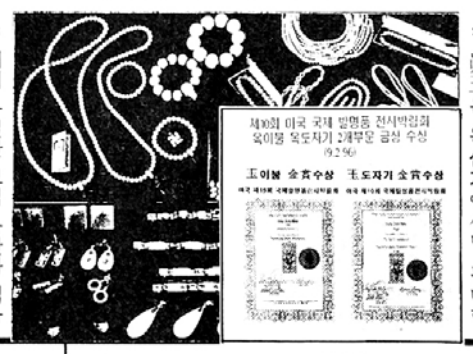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내모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잡다한 병(30~50대 여성의 火병,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장인·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유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기사 내용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편협한 과학지식의 관념을 넘어서 현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9%, 심장질환자 82.6%,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부종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중점인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목반지 84%, 목목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서울신문 기사 내용
「春川産 白玉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롯 데 호 텔 옥산가 玉山家® 777-0105

종단소식

조계종

우수본사 3곳 선정 표창



제 7교구 본사 수덕사(주지 법장)와 제 14교구 본사 범어사(주지 성오),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주지 중원)는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총무행정감사에서 우수본사로 선정돼 17일 총무원장 월주스님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사진〉 제13교구 본사 쌍계사(주지 선곡)는 97년도 분담금 납부 우수사찰로 선정돼 표창패를 받았다.

도안사 스님의 날 기념법회

안성 도안사(주지 송암)는 3월1일을 '스님의 날'로 정해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행사는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꽃다발 증정과 무용공양 등으로 진행된다.

송암스님은 "스님이 존귀해야 한국불교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스님의 날을 제정했다"며 "이같은 행사를 통해 스님들은 출가정신을 되새겨 더욱 정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

강원불교대 8기 졸업식

강원불교대학(학장 이선행)은 11일 8기 졸업식을 가졌다.

1백92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으며, 34명이 포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한편, 이 학장은 이 자리에서 "9기생이 입학하면 실직자를 위한 모임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종헌종법 개정 소위 열어

총무원은 24일 오후3시 설법전에서 종헌종법 개정 소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 측은 "개정의 기본적 방침은 전 종도들이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적극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천태종

금강불교대 155명 졸업식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 제14회 졸업식이 14일 우면동 관문사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졸업생 일동과 금강불교대 총동문회는 학교측에 "2000년 (가칭)금강대학교 설립 기금으로 써 달라"며 4천만원을 기탁했다.

진각종

종비교육생 연수 교육

종비교육생 연수교육이 26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총인원 연수원에서 실시된다.

기존 장학생 3명과 신규 장학생 8명등 11명의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상견례, 교전사경, 총무부장 면담, 도서실 이용법 교육 및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보문종

경제위기극복 방생 법회

총무원(원장 혜일)은 8일 여주 신륵사 남한강변에서 '국태민안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강의 오염을 막기 위해 물고기 방생 대신 천도의식만으로 진행됐다.

총화종

15개 종무원 순회감사

총무원(원장 남정)은 28일 부산종무원을 시작으로 한달여 동안 전국 15개 종무원 순회감사에 들어간다.

예결산 심의 및 승인과 활동계획을 보고 받고, 종무행정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다.

법륜종

위령재등 올 사업 수립

법륜종 유지재단(이사회 석정각)은 24일 재단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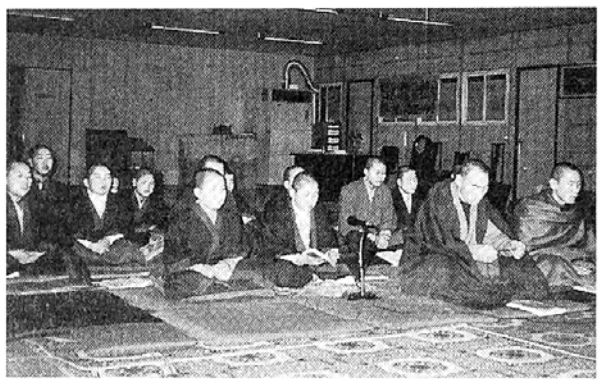
이사회에서는 예결산을 승인하고, 신년사업으로 종도연수교육, 위령재, 법계고시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몽골에 한국불교 알리겠어요"

진천 원융사 몽골스님 수행현장을 가다

한몽 불교교류 차원 가산스님 초청
17세이하 22명 한국어·참선 등 배워



◇몽골에서 온 스님들이 새벽예불 때 우리말로 예불문을 독송하고 있다.

"믹맷 제비 데르젱 잔라이삭…."

아직 찬기운에 코끝이 아린 이른 새벽 충북진천 두타산 대작골의 원융사(법주 석가산). 티벳어 새벽예불 소리가 이채롭다. 이어 어눌한 우리말 발음이지만 "계향 정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지심귀명례…"하는 예불문 독송이 골짜기를 타고 중생의 마을로 흘러간다.

새벽예불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몽골에서온 스님들. 한-몽골 불교문화교류 차원에서 한국어와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22명이 와있다. 몽골 다라에흐사의 주지 바담한드스님의 요청을 가산스님이 받아들여 이들을 초청한 것.

이국땅에 와 있지만 이들의 생활은 고국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으로 향한다. 티벳과 한국식 예불을 올린다. 한국식 예불은 예불문 독송으로 대신한다. 예불 후에는 각자 명상에 들어가며 동이 트기 시작하면 도량청소에 나선다. 이후에는 한국어 공부와 천수경 독경, 명상을 밤 10시 잠들기 전까지 반복한다. 다른 것이라면 새벽예불을 두 번 올리고 한국어 공부가 더해진 것이다.

지난 15일로 한국에 온지 석달을 맞았다.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는 조금의 몸짓만 섞으면 소통이 어렵지 않다. 이들은 14~17세로 어린 나이지만, 출가한 지는 2~5년에 이른다. 초등학교를 마치면 출가가 허락되기 때문이다. 출가 후에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불교와 일반 교육을 받는다. 한국어는 몽골국립대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한국의 한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인 아루나(22) 선생님이 가르친다.

가산스님은 "외국에 한국불교를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는 한국불교 습의와 참선, 불교문화사를 본격적으로 강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몽골스님들은 5월 중순 돌아갈 예정이다.

이들의 체류비용은 모두 가산스님이 부담하고 있다. 가끔 '원융사 몽골스님' 소식을 들은 스님들이 쌀을 보내와 어려움을 덜어준다. 가산스님은 신도도 많지 않은 산골절에서 이 일을 해내기가 쉽지 않다며 관심있는 불자들의 후원을 당부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님이 됐으며, 돌아가면 불교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밝힌 마몽스님(17)은 "돌아가기 전 한국의 삼보사찰을 꼭 참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세계를 접한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라며 "한국의 경험을 몽골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천=정성운 기자

무안 초의선사 생가복원
구례 장죽전 茶재배지도

무안 초의선사 현창사업, 구례 장죽전 녹차시배지 복원 등 내무부의 '건강한 고장만들기' 지원대상이 확정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다도의 정립자로 알려진 초의선사 현창사업은 출생지인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일대에 내년까지 15평 규모의 초의선사 생가를 복원하고 추모각과 추모비를 건립하게 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녹차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장죽전 녹차시배지에는 1백12평의 기념관과 관매장이 신축된다.

btn 방송기금 5억 받아

불교TV(사장 정우스님·구룡사주지)은 12일 한국방송개발원이 선정하는 방송영상진흥기금 대출 방송사로 확정 5억2천만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았다. 제작비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고려불화' '법패'등 불교문화 시리즈물이다. 또한 KBS, 지역민방, 미국 위성방송 K-TV 등과 프로그램의 포괄약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도청앞 지하철 공사
문화재 사전조사 안해 '물의'

대황사 터…전문가 "출토유물 많다" 지적

광주시가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문화재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지하철건설본부에 따르면 지하철 건설구간 중 도청 앞에 역사를 짓기 위해 도청 본관 앞을 굴착 예정이다. 그러나 문화재관계자들은 "현재 증심사에 봉안돼 있는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31호)과 고려초기의 석탑재가 도청자리에서 발견된 것을 비롯 9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조각들이 대량 출토된 적이 있어 공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유물들은 도청자리에 통일신라시대의 대황사가 있었다는 설을 뒷받침하고 있어 사전조사는 필수적이라는 것.

이와 관련 지하철건설본부는 "90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문화재관련조사를 실시한 삼우기획단은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아닐뿐만 아니라 그나마 보고서도 4페이지 분량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인 임명진교수(전남대 인류학과)는 "광주 지하철과 관련된 보고서를 전혀 받은 바 없다"며 "이번 기회에 대황사 위치를 밝히기 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각복지회 법인인가

수탁 복지관·병원등 운영

진각종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대표이사 성초 통리원장)가 18일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통리원(성북구 하월곡동) 성취관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복지재단은 회당장학생 사업, 대구교구청 청드수도원의 사회복지 시설법인으로 변경, 정부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등 수탁운영, 불교사회복지 조사연구사업, 불교복지기금 조성사업, 자원봉사센타 운영, 일반상담 및 해외근로자 상담실 개설 위한 사업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복지재단은 실버타운, 청소년 수련원, 회당 복지교육회관, 회당 복지병원 건립과 장묘사업을 통해 종교단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단체로서 역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에서 주목된다.

충남도 지정문화재 절반 훼손

관리부실…정림사지 오층탑등 24점 변색·균열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등 충남내 지정 문화재 중 절반이 관리소홀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지정문화재 49점을 특별조사한 결과 24개 문화재가 관리소홀로 훼손되거나 주변정비가 부실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국보 제9호)에는 이끼류 등이 서식하고 있어 풍화촉진의 우려가 있고,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보물 제802호)은 지붕의 기와가 벌어져 빗물이 새고 단청이 퇴색돼 있다. 보령 성주사지 중앙 3층석탑(보물 제47호)과 서(西)3층석탑(보물 제 20호)은 기단부 석재 이완 현상으로, 공주 갑사 철당간과 지주는 녹슬음이 심해 정밀조사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아산 송악면 굉촌리 석조약사여래좌상(보물 제536호)은 불상 뒷면에 심한 균열이 있으며, 일부 목조건물은 화재방지시설 등이 미흡해 정기적인 점검,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예산을 우선 반영해 안내판 보수와 이끼 제거, 주변 정비 등 보수가 가능한 것부터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탑사 대웅전 철거 취소판결

광주고법 "진안군 재량권 남용 위법 행위"
전주지법 '전통사찰' 불인정…논란일 듯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에 소재한 마이산 탑사(주지 왕선) 대웅전·산신각 철거를 둘러싼 법정소송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1특별부(재판장 박행용 판사)는 5일 마이산 탑사를 원고로 한 탑사 대웅전에 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진안군의 계고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진안군)는 원고와 관람료를 분배해 온 지난 8년간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다가 원고가 더 이상의 분배를 거부하자 비로소 철거를 구하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강행할 경우 전통사찰보존법상의 허가권자(문체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계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철거의 부당함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심병연 부장판사)는 탑사를 원고로 한 관람료지급의 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탑사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확인소송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訴)라며 이를 각하했다. 이로써 탑사의 대웅전·산신각 철거문제의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탑사 주지 왕선스님은 "탑사는 대웅전 나한전 요사채 등 부속건물 7동이 있는 전통사찰이다"며 "상급심의 전통사찰이란 유권해석에 하급심인 지법에서 불인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님은 전주지법의 결정과 관련 광주고법에 항고할 예정이다.

여성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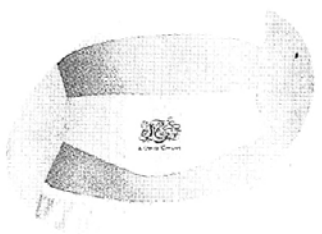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는 얘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얇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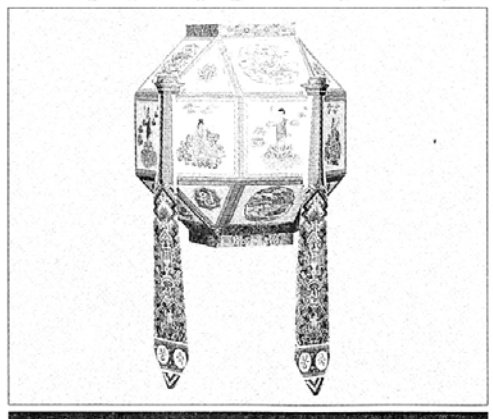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형(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봉축위원회에서 추천한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인하 하였습니다.



가격 인하 단행!!

● 외환 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관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함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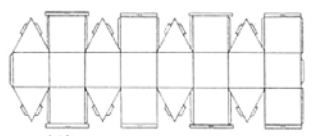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IMF한파 이후 교계 무료급식소

결식노인 줄 잇는다

'자비의집' '관음의집' 등 20여곳 예년보다 50% 증가

19일 교계 최초의 상설 무료급식소인 미아6동 '자비의 집', 머니가 하얗게 센 노인들이 점심시간 1시간전부터 식당에 들어와 줄을 떠돌고 점심공양을 기다리고 있다. 정오에 배식이 시작되자마자 노인들은 벽을 따라 줄을 선다. 모두 식욕이 왕성하다. 어떤 노인들은 저녁준비를 위해 몰래 비닐봉지에 밥과 반찬을 담기도 한다. 몇달전부터 낯선 얼굴이 늘어나기 시작, 평소 70명 정도인 급식인원이 1백20명 정도로 늘었다.

IMF한파 이후 교계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상계동과 미아6동에 '자비의 집',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관음의 집',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의 '토요 나눔마당', 연주암 등 교계 사찰·단체나 20여개의 불교사회복지 시설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는 예년보다 40~50% 정도 증가한 노인들이 무료 점심공양을 이용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노인들은 아침을 거르고 있는 실정이며, 계중에는 하루 한끼 무료 점심공양으로 때우거나 심지어는 걸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무료급식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됨에 따라 청담사회복지관과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3월부터 각각 결식노인 무료 점심공양을 실시키로 했다. 청담사회복지관은 3월9일부터 금천구 시흥동에 거주하고 있는 무의탁 노인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노인들을 위해 50여명 수용 규모의 무료급식소를 개설, 운영한다. 불교신행연구원은 동국대 식당에서 장충단공원에 모이는 결식노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점심공양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주 금강사회복지관은 공주시 보조금 1천만원과 자체예산 1천3백만원을 들여 16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 28명에게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개시, 무의탁노인들의 큰 힘이 되고 있다.

'자비의 집' 위정희부장은 "4~5월이 되면 무료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식노인들은 결국 IMF사태의 2차 피해자이므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직지사 '니련선하쉼터' 개설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3월3일 실직자들을 위한 니련선하쉼터를 개원한다. 니련선하쉼터는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열며 참선, 교리강좌, 특강, VTR상영 등이 진행된다. 한편 직지사는 쉼터에 전화기, 팩시밀리, 복사기 등을 비롯 취업정보를 위한 각종 사무기기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직지사측은 "실직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는 지혜와 신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쉼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불협-조불련 북경회담 3월로

'남북불교지도자 합동기원법회' 개최를 위해 조국통일평화불교협회(회장 법타스님)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이 26일 북경에서 만날 계획이었으나 통일원의 접촉승인 지연으로 3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다.

91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불교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남북불교지도자 합동기원법회'는 오는 5월경 미국 LA에서 열릴 전망이다.



◇무료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자비의집' 무료 점심공양 장면.

소쩍새마을 재활농장 3월 개설

복지타운부지 4만여평에 채소·약초등 재배

승가원 부설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은 3월말부터 종합복지타운 건설 예정지인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송한리 일대 부지 19만평 중 4만여평에 재활농장을 운영한다.

소쩍새마을 원생들에게 재활의 지를 심어주는 동시에 복지 기금 조성에도 도움이 될 재활농장은 지난달 농장장으로 임명된 남도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과 30여명의 원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꾸려가게 된다.

특히 재활농장은 종합복지타운 건설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유휴지로 사용되지 않는 밭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빈 땅 활용이란 긍정적인 측면도 갖게 된다.

남도스님은 "3월 중순까지 농장 부지에 요사채 및 법당을 개설하고 3월말부터 본격적인 파종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재배 농산물은 배추 오이 호박 무 등 고랭지 채소와 당귀 오미자 등 약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쩍새마을은 농장이 정상 운영되면 올 한해 동안 1천만원의 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서초구사암련 결성

회장에 정우스님 첫행사 효도잔치

서울 서초지역에 사암연합회가 결성됐다. 서초지역 25사찰들은 3일 스포타임에서 조찬법회를 갖고 사암연합회를 결성, 초대회장에 구룡사주지 정우스님(인터뷰 4면)을 선임하는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초구사암연합회는 17일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창립기념 '서초구민을 위한 신년법회 및 효도잔치'를 봉행했다. 지역노인과 불자 1천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도문스님(대성사 주지)은 법어를 통해 "이념과 종파를 초월한 대승보살 정신으로 화합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행사는 탤런트 김기섭씨의 사회로 사물놀이, 사암연합회합창단 합창, 인간문화재 임이조씨의 살풀이춤을 비롯 코미디언 남보원씨의 해학과 풍자 등 노인위안잔치가 펼쳐졌다.

한편 사암련은 3월중 첫 모임을 갖고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본사별 환경대책 마련"

조계종 사찰환경포럼서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능관)는 24일 오후 3시 대구 진각회관 7층에서 '국립공원 개발과 보존의 생태학'을 주제로 제2회 사찰환경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각종 개발과 오염지역의 확대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장관이 사찰 및 사찰주변 위락시설의 생활오폐수 실태조사를 이달 중에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승가대 올 예산 19억여원

성우·능인스님 교수임용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지하)는 13일 이사회에서 98년 법인예산 67억원(김포학사 공사비 포함), 학교예산 19억2천1백만원을 확정했다. 또 98년 신규교원으로 포교사회학과에 성우스님(41, 동국대 철학박사), 사회복지학과에 능인스님(45, 일본불교대 문학박사)등 2명을 임용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육원장 암도스님을 당연직 이사에 선임, 수안스님(해인사 재무)을 감사에 선임했다. 이사장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등 임기만료이사 8명은 연임됐다.

뉴스 & 뉴스

정각회 27일 신년법회

국회 정각회(회장 서석재의원)는 27일 오전9시 정각선원 법당에서 신년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법문할 예정이다. 정각회의 이번 법회는 정각선원 개원이후 첫 법회이다.

기초선원도량 마련 결의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6일 교육원회의실에서 기초선원 운영회의를 열고, 27일부터 실시되는 기초선원 육조단경 안거를 동화사 마곡사 극락암등 3곳에서 분산교육 하기로 결의했다.

기초선원운영위는 98년 기초선원예산 총 1억1천5백만원을 책정했으며, 〈몽산법어〉 〈선관책진〉 〈선요〉 등을 98년 가을안거 교과목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책적 차원에서 동화사내에 기초선원 도량을 마련해 다음 안거부터는 기초선원생들을 분산해 교육하지 않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실천승가회, 선우도량 등 18개 불교단체 소속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승려 2백65명은 18일 조계종 불교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했다.

청화(실천승가회 의장) 지원스님(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 등출(선우도량 사무처장)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모든 양심수를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스님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성명서를 전달했다.

대전청년불자봉사회 창립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노안스님·대전)의 사회복지사 류재희(청소년담당)씨 등이 대전지역 청년불자들의 봉사 활동과 포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불자봉사회를 창립한다.

청년불자봉사회는 자비정신의 실천을 통한 불자의 현실참여를 이끈다는 취지 아래 △교리학습 △심성수련 △독거노인·불우가정 결연 △다도강습 등을 펼쳐갈 예정이다.

청년불자봉사회는 3월4일 오후 7시 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창립 법회를 봉행한다. (042)633-1141

선우공부방 21일 창립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가 고3학생을 위한 '선우 공부방(방장 권준형)'을 21일 창립했다.

선우공부방은 27일부터 우리는 선우 회원 자녀 10명을 대상으로 출발해 점차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선우공부방 창립에 이어 우리는 선우는 24일 봉선사에서 '우리는 선우 중·고등학생회 창립 발대식'을 가졌다.

교계주도 北탁아소 결연사업 '활기'

숭실대, 대사모등 사회단체 속속 참여

북녘 어린이돕기 북한 나진-선봉지역 유치원·탁아소 결연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와 국제구호기구 JTS가 펼치고 있는 결연사업은 25일 현재 정토청년회, 대구를 사랑하는 모임 등 국내 8개 단체가 나진 4개 유치원, 선봉 4개 탁아소와 결연을 맺었다. 숭실대 총학생회, 구로시민센터 등 결연을 약속해 온 단체도 10여곳에 이른다.

특히 이번 결연사업에는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웅제약, 길원기획 등 일반사회단체가 적극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사회문제연구소 양재혁 간사는 "나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사업은 단체가 단체를 지원하는 외형적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원자 개개인이 북한 어린이 한사람 한사람과 결연을 맺어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불교 신행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북한 어린이 한명 당 후원금은 5천원이다. 문의 및 회원접수 (02)3672-5045

해인사판전 해체보수 '재개'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국보 32호)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사 판전(板殿 국보52호)의 해체보수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보광)는 지난해 서사간고 기와 및 연목보수를 완료한데 이어 20일 동사간고 기와교체를 위해 내부에 있는 경판을 가건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해인사는 향후 6개월에 걸쳐 수다라전과 법보전의 기와교체, 지붕보수 및 일부 건물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수다라전과 법보전은 경판을 옮기지 않은채 덧집을 세워 보수한다.

영생건설(대표 배정문)이 진행중인 판전 해체보수에는 동사간고 4천2백만원, 수다라전 7억원, 법보전 4억원 등 11억4천2백만원이 투입된다.

목탁소리

복장 속의 금

천 미 희 〈부산주재 기자〉

부처님 복장(復藏)에는 60여가지의 귀한 물건들이 봉안된다. 이 세상의 진귀한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부처님의 몸 속에 넣음으로 불상의 위의와 신성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이 복장물 가운데는 다섯가지 보배가 들어 가는데 그중에는 금(金)도 포함된다.

나라 경제 살리기 금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부산지역의 천불사 주지 도봉스님이 복장속에 있던 금을 내 놓아 항간의 화제를 모았었다. 부처님 복장 속의 금을 내 놓은 스님은 한 TV와의 인터뷰에서 "나라가 있어야 절도 있고 또 절이 있어야 부처님을 모실 수 있고…"라고 동기를 밝혔다.

이러한 스님의 입장을 보는 눈은 천차만별이다. 금 예수상을 내놓는 타종교의 사례를 들어 불교도 나라사랑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고 "부처님 몸 속에 금이 들어 있었나?"라며 의아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교계의 시각은 단순하지 않다. 나라 사정이 어렵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성물을 임의적으로 내놓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스님들의 의견이다. 복장물은 물질의 차원을 넘어 상당히 귀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결국 부산지역 교계에서는 복장 속의 금을 헌납한 스님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12일 부산불교연합회의는 회의를 열어 도봉스님의 부회장직을 박탈하고 제명키로 결의했다. 연합회는 도봉스님의 행동을 '파불(破佛)'로 규정했던 것이다. 연합회의 결정에 대해 도봉스님도 "나라를 위한다는 좋은 의도로 한 일이지만 방법상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17일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도봉스님의 일이 잠시 언급됐었다. 방법상 잘못됐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주지스님들은 부산불교연합회가 도봉스님을 제명시킨 것에 대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나라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와 성물인 복장물을 여법하게 지켜야 한다는 신앙적 의지 사이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금 생각해 봄직한 화두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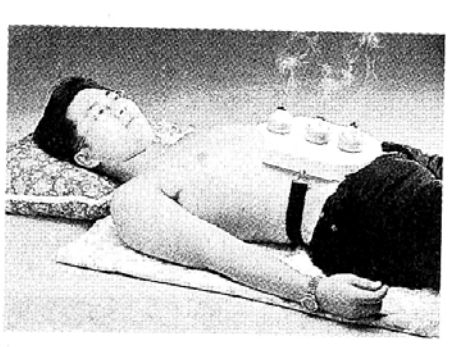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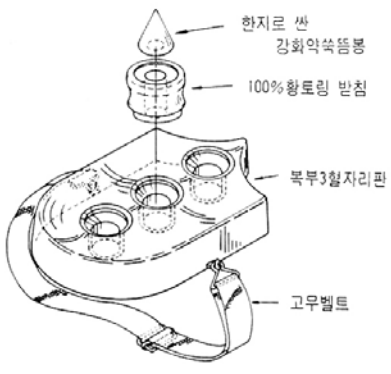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60,000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왠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일반인 포용 프로개발 시급"


◇신진욱씨


◇전진수씨


◇한상희씨

전·현직 방송인 'BBS·btn 발전안' 논문발표

연령·직업·성별 특화 편성해야
불교뉴스 확대…청소년 심야프로도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불교방송과 TV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BBS와 불교TV의 시·청취율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용자(청취자·시청자)층과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처하는 차별화·특성화된 편성전략, 참신한 출연자 발굴, 체계화된 불교뉴스 시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방송사에 있거나 방송에 종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현직 방송 관련인들은 방송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한 '97 석사학위 논문'에서 BBS와 불교 TV의 발전방향을 이와 같이 강조했다.

신진욱법사(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는 'BBS 청취자의 수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 "불교방송의 청취대상은 93%가 고졸이상의 높은 학력의 소지자들"이라 분석하고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전문화된 고급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개편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신씨는 "종교방송이라는 한계상 단조롭기 쉬운 프로그램을 보다 세분화해 특화하고 비신자들도 관심을 가질 흥미로운 종교소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종교방송의 특성을 살리는 불교뉴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BBS와 불교TV의 1일 불교관련뉴스 편성시간은 20분미만으로 더욱 늘여야 한다는 것.

청취자들이 정오이전에 불교방송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점에 착안, 이시간대의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과 20대 이하의 젊은이들을 겨냥한 심야 프로그램 신설에 힘써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BBS보도국 전진수 차장은 '불교방송의 청취행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란 논문(연세대 언론대학원)에서 시간대별 편성전략을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불교방송 청취자들은 방송 내용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신행생활을 위해서 듣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밝혀 포교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케이블TV 프로그램을 속에서 불교TV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프로그램의 차별화. 이런 맥락에서 불교TV의 '선재스님의 푸른맛 푸른요리'는 현대인의 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좋은 프로그램이고 타 방송사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한상희(前 불교TV PD)씨는 집중 분석했다.

한씨는 논문(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케이블TV의 프로그램 특성화 사례연구'를 통해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불교TV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연령, 하력, 직업, 성별 등을 파악한 프로그램 차별화가 관건"이라며 "'선재스님의 푸른맛 푸른요리'와 같은 프로는 적은 제작비에 비해 다수의 시청자를 확보함으로써 불교TV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한파에 언 가슴 녹여줍니다"

BBS '살며 생각하며' 인기 상종가

서울·대구·청주 인생상담 호응 커


◇현각스님


◇재범스님


◇권은이씨

"스님! 저는 노동일을 하는데 요즘 IMF 한파 때문인지 일자리가 없어 속상합니다."

"거사님! 절망뒤에 찾아오는 것은 희망이지요. 일체유심조의 말을 새기며 용기를 잃지 마세요."

애잔한 삶의 이야기를 상담형식으로 전해주고 있는 불교방송의 장수 프로그램 '살며 생각하며'가 대구와 청주BBS에까지 발을 넓히며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매일 밤 12시10분부터 2시까지 110분간 방송되고 있는 '살며 생각하며'는 9일부터 현각스님(원주 성불원주지)이 다시 진행을 맡고 있으며, 대구BBS는 재범스님(불교대구방송 기획위원), 청주BBS는 권은이 아나운서가 차분하면서도 재치있는 화술로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는 청취자를 어루만져 주고 있다.

주 청취대상을 청소년에서 중장년층으로 높여 전화 상담형식으로 새 단장한 불교방송의 '살며 생각하며'(PD 한지윤)는 상담외에도 새벽 일터에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새벽현장을 찾아서'와 명사초청 '토요초대석' 코너를 신설, 심야 청취자들의 주파수를 고정시키고 있다.

대구BBS의 '살며 생각하며'(PD 박재현)도 '불교 명상 메시지' '불교문학소개' '엽서사연소개' 등에 힘입어 하루 50여통의 전화와 엽서 등이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권은이 아나운서의 고운 음성으로 진행되는 청주BBS도 '황재연의 라스 토픽' '영화이야기' '음악치료사' '원담스님의 결망이야기' 등 요일별로 다양한 주제를 방송하여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

같은 포맷이지만 제각기 다른 색깔로 방송포교에 나선 '살며 생각하며'는 궁부한 들을거리와 편안한 밤의 휴식을 제공해 메서운 경제한파에 지친 불자들의 심신을 따사롭게 녹여주고 있다.

신행수기 당선작

특별상〈종단협회장상〉

아니, 미국까지 와서①

일주일 간격으로 배달되어오는 성경구절이 적힌 예쁜 카드. 한두번은 무심코 받아 보았다. 수신인의 주소도 이름도 없는 카드는 회가 거듭될수록 누가 이 카드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뉴욕에서 조그만 옷가게를 하며 이곳 불교단체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3년째 한주도 빠지지 않고 해오고 있다. 전화상담과 설법테이프를 원하는 분들에게 보내는 일도 겸하고 있다. 또 스님을 모시고 법회도 보며 경전강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도반들과 함께 불교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나에게 성경구절이 쓰여진 카드를 보내는 것은 내가 불자임을 아는 이의 행동으로 생각되었다. 성경글귀를 적은 예쁜 카드로 누군가의 마음에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의 마음이 허술하게 보여지지 않았다. 받은 카드를 잘 모아 두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전혀 부담이 가지 않는다.

어느 기독교 권사는 "자매님은 웬만해선 안될 것 같아 제가 백일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나세요"라며 모진(?) 권고와 회유와 협박(?)을 했다. 꿈에 계시를 받았다며 나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기로 마음먹고 찾아오신 집사도 있었다. "아니 그 목소리, 그 실력으로 성령의 말씀을 전한다면 명예와 돈이 굴러들어 올텐데, 참 어리석기도 하군요"라는 어느 교회장로의 안타까워 하는 말씀.

"아유 이렇게 친절한 젊은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 이해가 안가우"라던 성당에 다니시는 어느 할머니. "아깝기도 하라. 아니 무슨 핫고생 하는 거예요. 요즘같은 시대에 인간부처를 믿고 있다니. 젊은 분이 아깝네, 쯧쯧…" "위낙 밝고 한결같이 상냥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많은 재능을 주셨잖아요. 교회에 나와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개종을 강권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인내심으로 설득시키면서 여유있게 웃을 수 있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심을 가까이 하며 몸소 체득하지 않았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일이다.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8년여를 묵묵히 찾아주시며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오길 기도한다"는 집사, 위험도 서슴지 않는 열성과 신자에 이르기까지 내게 하는 전도 형태는 다양하다.

"인간부처를 믿다니 하나님 자녀로…" 개종권유 집요


그림 · 이준석

이곳 미국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나열하자면 정말 끝이 없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불자들의 포교는 미미한 상태인 점으로 미뤄볼 때 같은 한국인인데도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연구해 볼만한 과제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극도의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황폐해진 현대인들의 정신적 위안처로 불교가 큰 몫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성인이나 예술가 연예인 등 상류층이 비폭력적인 평화운동의 선두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내세우고 있다. 행복의 조건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려온 그들이 물질 만능의 허점을 간파하고 정신적 육구를 불교의 진리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다툼이 없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교가 불교라는 점을 깨닫고 보다나은 세상을 위해 창조적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불교공부에 심취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만여개가 넘는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있고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여 불교의 대중화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대에 앞서고 현실적이며 지성인으로써 평화주의사상에 발맞춰 나가는 신세대 감각에 걸맞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김연장 〈미국 뉴욕시 거주〉

PCS 016, 4월중 3,400개의 기지국 확보! - 완벽한 전국통화시대를 열어갑니다.

귀의삼보하옵니다.

선착순 500대 한정판매

■ 기간 : 2월 23일~3월 7일

부다피아 포교기금 마련 PCS 016 특별할인판매

통화료의 5%가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부다피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해 스님들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할인판매합니다.

삼성애니콜 SPH-1100

최적의 통화품질
최첨단 PCS 기술방식과 최적 S/W구성으로 매끄럽게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한글 LCD채택
초정전 회로구성과 최신 배터리 기술로 최장의 통화시간을 보장합니다
견고성
심한 외부 충격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 크기 : 129×51×25mm
· 무게 : 151g
· 연속통화시간 : 배터리 S 110분/ M 180분 /L 300분
· 연속대기시간 : 배터리 S 32시간/ M 63시간/L 103시간

● 시중가 : W368,000(가입비포함)
● 특판가 : ₩150,000 (가입비포함)

삼성애니콜 SPH-2000

유일한 음성다이얼PCS
말만 하면 바로 전화가 걸려 운전중에도 안전합니다
최장의 통화시간
2열방식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세계 최장의 연속대기 168시간, 연속통화 300분을 실현
고음질 시스템으로 또렷한 통화품질
오디오 전용 음성 증폭기 칩과 고속 샘플링 음성 소프트 웨어를 채용하여 또렷한 음성의 통화가 가능합니다



· 크기 : 129×51×25mm
· 무게 : 151g
· 연속통화시간 : 배터리 L 305분
· 연속대기시간 : 배터리 L 103시간

● 시중가 : W410,000(가입비포함)
● 특판가 : ₩220,000 (가입비포함)

신 · 청 · 안 · 내

● 대상
스님 및 사찰 종무원

● PCS 폰 신청방법
1. 단말기 대금을 지정계좌로 입금 후 주문 (신청서 참조)
2. 은행입금시 신청자 명의로 입금 바랍니다.
3. 신청시 가입신청서와 무통장입금증, 승려증 또는 신분 확인서를 현대불교신문사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우편 또는 FAX 접수 바랍니다. (신청서 참조)
4. 폰, PC뱅킹 이용시 입금일, 입금자명, 은행명, 입금액을 신청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은 행	계좌번호	예 금 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 가입조건
24개월 의무가입, 통화요금 은행 자동이체

● 유의사항
1. 신청서의 신청인 난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경우 접수 불가.
2. 통화요금 자동이체시 신청인과 예금주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3. 우편접수시 3월 7일 자 소인까지 유효함.
4. 가입신청서와 무통장 입금증이 접수되는 순서대로 PCS폰이 택배로 배달됩니다.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 : (02)732-1522, 737-8881
FAX : (02)737-0697
737-0698,0696

그동안 불자여러분의 성원으로 마련한 부다피아 포교기금 1차분 ₩3,000,000을 2월 23일 소쩍새마을로 전달했습니다. 계속 성원 바랍니다.

PCS 016 가입신청서

고객사항	고객명		신청단말기	□ 삼성 SCH-1100 □ 삼성 SPH-2000
	주민등록번호		요금청구지	□ 자택(법인) □ 직장
	자택(법인)주소			☎( ) -
	종단명		사찰명	☎( ) -
	사찰주소			
	물건배달주소			☎( ) -
	생일	19 년 월 일(양. 음)		
	요금납부 자동이체	□ 은행명 □ 예금주명	□ 주민(사업)등록번호 □ 계좌번호	
	요금납부 납기일	□ 25일 □ 27일		
희망전화번호		1) 2) 3)		*뒷자리 4자리만 기입(국번, 특수번호 제외)
가입조건		2년이상 의무사용. 사용요금 자동이체조건(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함)		

약정서

본인은 상기와 같이 PCS 016 가입을 신청하며, 회사가 판매보조금을 부담하여 할인 공급하는 PCS 폰을 구매함에 따라 PCS 016 이용약관 제 22 조 제 2 항에 의거, 가입한 날로부터 2 년간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며, 만약 2 년 이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시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른 위약금을 한국통신프리텔(주)에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 위약금 = ₩350,000(회사보조금) ×(730일 - 사용일수)÷730일

1998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통신프리텔(주) 귀하

자르는선